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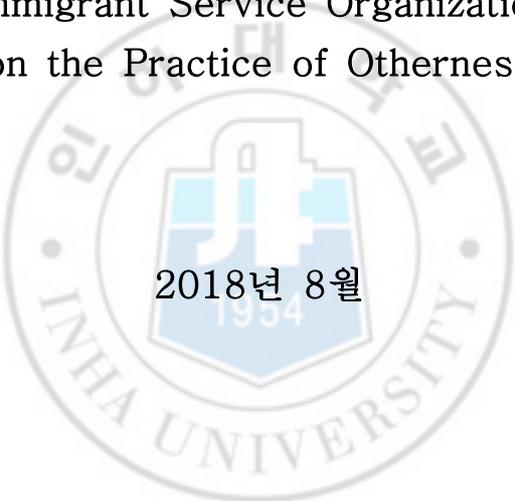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A Life History Study of the Protestant Clergy in the
Immigrant Service Organization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2018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학 전공

배 경 임

교육학박사학위 논문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A Life History Study of the Protestant Clergy in the
Immigrant Service Organization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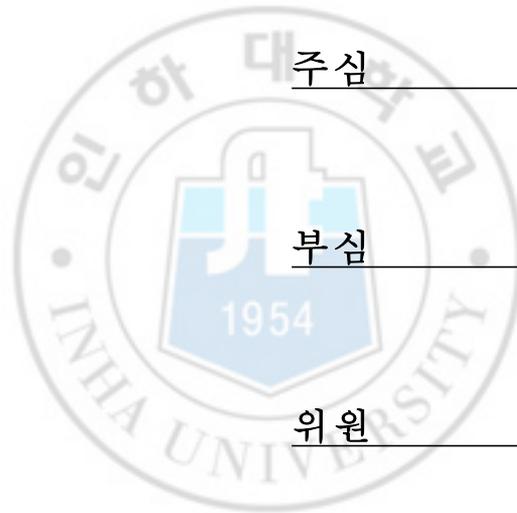
2018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배경임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8년 8월 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 전공

배 경 임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모델을 타자성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주민 봉사 기관에 종사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에서 타인 이해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종교인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그들의 타자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형성된 타자성이 실제 다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관계 맺어야 할지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배타의식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봉사 기관 종사자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단체나 사례들 중에서 특히 개신교 단체의 종사자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생애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온 다문화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려주는 하나의

바람직한 윤리적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은 흔히 타자로 규정되며,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상호문화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 역시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이주민의 입장에서 원주민도 하나의 타자로 인식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자기동일성 이전의 타자를 우선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지향하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은 다문화사회에서 공존과 소통을 이루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며, 타자중심의 책임적 윤리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면과 만남을 통해, 타자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지향하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패러다임은 다문화사회의 책임 윤리적인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함의를 토대로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를 통한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의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문은 생애사적 내용과 타자적 윤리에 대한 내용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심층면담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생연도, 태어나서 자란 지역, 가정 환경, 학력과 배움의 경험 등이 서로 다르고, 각처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은 기본적인 인성과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1차적 사회화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둘째,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적·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타자성이 형성되었다. 셋째,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이주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넷째,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대신하는 삶에 대한 종교적인 경험으로 주체성을 타자와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시대적,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였다. 여섯째, 본회퍼의 신학사상과 삶에 감명과 도전을 받으면서 타자성을 함양하였다.

타자성 형성 과정을 살펴본 후에 그러한 타자성이 연구참여자들이 재직하는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에 대하여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대리자이자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이주민을 위한 실천이 곧 사회적 윤리의 실천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주체성은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 의식과 실천에서 표출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자중심적인 윤리적 책임의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자를 동반자나 협력자로 인식하면서 상호주체성을 실천하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진정성은 지속적인 연대로 드러났다. 한번 만난 이주민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주민 관련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구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개혁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은 각기 상이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타자 지향적인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진정성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과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의 통합 그리고 타자성 철학과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 타자성, 레비나스, 본회퍼, 다문화사회, 윤리적 책임, 생애사연구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v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vii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내용	5
3. 연구 동기	6
4. 연구 동향	10
II. 타자성과 상호문화 이해	17
1. 다문화사회의 타자성	19
1.1. 레비나스의 타자성	20
1.2. 본회퍼의 타자성	21
1.3. 다문화사회의 타자성	22
2. 타자와 윤리적 책임	24
2.1. 레비나스의 윤리적 책임	24
2.2. 본회퍼의 윤리적 책임	26
2.3.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책임	28
3. 상호문화 이해와 타자성 실천	29
3.1. 타자를 위한 대화	29
3.2. 타자를 위한 대리사상	31
3.3.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타자성의 실천	33

III. 연구 방법	36
1. 생애사 연구	36
2. 연구참여자	39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41
4. 연구 윤리	46
IV. 타자성 형성 과정의 내러티브	49
1. 연구참여자 A : 민중신학의 실천가	50
1.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51
1.2. 청년대학시기	56
1.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61
2. 연구참여자 B : 부드러운 상담자	69
2.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70
2.2. 청년대학시기	72
2.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78
3. 연구참여자 C : 열정적인 조력자	85
3.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85
3.2. 청년대학시기	87
3.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92
4. 연구참여자 D : 이주노동자 연대운동의 선봉자	98
4.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99
4.2. 청년대학시기	101
4.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108
5. 소결	113

V. 타자성 실천의 발현 양식	118
1. 정체성으로서의 타자를 위한 존재	120
1.1. 자신과 타자와의 동일시	121
1.2.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리자	125
1.3.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기	131
2. 주체성으로서의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	137
2.1. 다양성 존중	138
2.2. 타자중심의 윤리적 책임	145
2.3. 상호주체성	153
3. 진정성으로서의 지속적인 연대	160
3.1. 지속적인 관계 유지	162
3.2. 다양한 연대활동	165
3.3. 제도 개선과 개혁 노력	172
4. 소결	177
VI. 결론	181
1. 요약	181
2. 논의 및 제언	187
참고문헌	194
ABSTRACT	199

표 목차

<표 2-1>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실천 요소	35
<표 3-1> 연구참여자의 특징	40
<표 3-2> 연구절차와 내용	42
<표 3-3> 심층인터뷰 일정과 장소	42
<표 3-4>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 개요	43
<표 3-5> 타자적 윤리 실천사례 파악을 위한 질문 개요	44
<표 4-1> 연구참여자 A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51
<표 4-2> 연구참여자 B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70
<표 4-3> 연구참여자 C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85
<표 4-4> 연구참여자 D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99
<표 5-1>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의 발현 양식	119

그림 목차

[그림 5-1] 연구참여자 A의 삼각연대 공동체운동 관계도	68
[그림 5-2] 연구참여자 B의 교회 카페에서 성경공부하는 이주민들	154
[그림 5-3] 연구참여자 C의 센터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감사패	164
[그림 5-4] 연구참여자 D의 센터 홍보 브로슈어에 나타난 연대활동	171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및 타자로 존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1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28,404명에 이르고, 외국인등록자 1,174,551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414,668명, 단기체류자 539,185명이다. 그 중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57만여 명, 결혼이민자는 15만 3천여 명, 다문화가정자녀는 10만 여명(초중고) 정도가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259,95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과 난민 등 이주민 인구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관련 법, 제도가 시행중이며 정부는 2007년부터 이주민 인권보호를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을 5개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반영되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중앙정부 차원이건 지자체 차원이건 이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통합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기순환정책,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동화와 통합,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통합정책을 펴고 그 외에는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일상적인 불편과 갈등

에까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이주민 기관 재직자들의 활동을 장려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22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집합교육(가족, 성평등, 인권 등), 한국어교육, 상담, 정보 안내,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민간이 주도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민간단체 중에는 종교단체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다문화 이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다른 종교단체보다도 이주민 봉사에 앞장 서 왔다. 수도권에 있는 개신교 목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회에 다문화인이 한명이라도 있다고 답변한 목사가 40%에 달한다는(김성영, 2016)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신교는 다른 단체들보다 다문화인 접촉 빈도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개신교는 이주민선교단체를 포함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시설이 6백여 곳 정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목회자와 같은 종교인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의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가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특히 이주민들을 더 자주 접촉하는 이주민 기관 재직자 및 종교인이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관련 기관에 재직하는 종교인은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알력과 반목을 평화와 사랑과 화합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혁과 변화, 나아가 사회의 갈등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김성영, 2016). 종교인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문화타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종교인들과 종교계 단체는 지역사회의 친근한 이웃으로서 다문화가족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한국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생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이주민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지만,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다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다.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은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 성별, 연령, 계층적 귀속감에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전경옥, 2010). 신약성서(갈 3:28, 골 3:11)는 피부색, 인종,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자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다문화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평등과 공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개신교 단체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신교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성직자들을 유의미한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¹⁾ 다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종교인, 특히 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 성직자의 생애사를 살펴본다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과정과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온 다문화 이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려운 현실에서, 다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종교인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주민을 대하는 바람직한 하나의 윤리적 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다문화 봉사 기관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신교

1) 김성영(2016)은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목회자의 39.5%에 해당하는 68명은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동화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종교인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문화교육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들은 타자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책임 윤리에 대해 자신의 삶으로 부딪쳐 가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타자성의 관점에서 다문화 사람들을 대했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개신교 성직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이주민과 다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식의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인식의 변화가 실제 어떠한 행동 실천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와 실천의 과정을 타자성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봉사 기관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에서 타인 이해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 중 타자인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고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과 윤리적 태도가 관건인데, 레비나스와 본회퍼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타자성을 적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강조하면서 타자를 위한 존재되기를 중시하였고, 본회퍼는 타자를 위한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임을 역설하였는데, 타자를 대하는 윤리적 책임 의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았다. 오랜 경력과 사회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된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들의 생애사를 다방면으로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이 형성한 타자성을 밀도 있게 접근하고 현장에서 실천되는 타자성의 양식을 연구하였다.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이하 레비나스로 표기함)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이하 본회퍼로 표기함)는 1906년 같은 해에 태어난 학자들이다. 타자 중심 윤리학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레비나스와 타자 지향적이며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강조했던 본회퍼의 신학이론들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와 본회퍼를 통해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윤리적으로 숙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레비나스는 존재론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윤리학이 가진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학 내에 새로운 윤리학적 전망을 열었으며, 개별적 자아의 주체성을 근거로 한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자 발견하였다. 본회퍼의 윤리학 역시 책임 윤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윤리적 책임을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행동해야 하며, 교회는 역시 세계 현실 속에서 타자를 위한 도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이 히브리 성서와 탈무드 전통을 철학적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회퍼의 신학적 윤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기독교윤리의 기초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워 주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과 책임윤리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겪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행위자로 하여금 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타자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실천동기와 의미, 교훈 등을 다양하게 도출해 내어, 윤리적인 관점에서 타자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및 내용

본 연구는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생애사적 경험에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에서 타인 이해에 대한 윤리적 실천의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문화 기관 재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타자성은 생애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연구문제 2: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타자성은 자신의 근무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타자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누구나 타자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들에게 형성된 타자성은 어떤 시간적, 공간적, 사건적 배경의 영향이 있었는지 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어린 시기와 청소년과 청년 시기, 그리고 이주민 봉사 재직 시절에 겪은 생애사적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타자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신교 성직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타자성이 실천되는 양식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타자성이 실천되는 계기, 동기, 경위 등을 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주민들을 어떻게 만났고 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기관에서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나 과제는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결론을 종합하여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 중인 개신교 성직자는 물론 다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동기

다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이다. 연구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종교와 인간'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불교, 카톨릭, 천도교, 정교회 등 다양한 종단의 성직자들과 만나게 되

었다. 20대 초반에 다양한 종교인들과의 만남은 큰 충격이었다. 4대째 개신교 신앙을 이어오면서 일상의 문화로 개신교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연구자에게 타종교인들의 깊이 있고 성숙한 종교적 수행의 태도와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계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생소하고 관심도 없었던 타종교가 타종교인들의 얼굴을 통해 내 앞에 불쑥 다가온 것 같았다. 그러한 경험 이후로 연구자도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종교 간의 존중과 예의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수행과 종교에 관련한 타자적인 경험이었다면, 20대 초반 3년간 전도사로 봉사했던 교회의 장애인 목사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제한했던 습관을 극복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강렬했다. 19살에 폭발사고로 두 눈과 두 손을 잃고 장애인이 되어 숱한 고난을 겪고 신학을 공부하였다. 얼굴에 폭발물 파편 조각들의 자국이 선명하고, 연구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이 없는 팔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명랑하셨고 가난하고 힘든 동네에서 이웃을 돌보며 열심히 살고 계셨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도 인간의 문화일 뿐이고, 다른 육체적 상황이 존재 할 뿐이었다.

그러한 교회의 유일한 전도사였던 연구자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진행하였던 선교 활동에 열심히 따라다녔다. 장애인들과 교도소 사형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대면했던 타자와의 만남 또한 충격 그 이상이었다. 맹학교에 가서 수십 명의 맹인 학생들과의 만남, 너무나 연약해 보이던 얼굴이지만 살인혐의로 사형 직전인 사형수의 얼굴 등등. 이러한 낯선 경험은 타자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일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하여 목회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타자를 바라 보고 만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실존적, 생애사적 경험들이 타자와의 관계성을 화두로 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타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 역시 연구자에게 타자의 얼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여러 작업을 하였다. 시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인 여성과 작은 단체에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6개월간 함께 하였고, 자식을 데리고 죽음의

길을 넘어와서 십수년 동안 남쪽에 정착한 여성과 1년간 남북한의 교육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을 하였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리더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욕구 조사를 1년간 같이 진행하기도 하였다. 여러 고통과 암담한 시간을 지나서 여전히 낯선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얼굴과 삶은 연구자 자신의 존재와 고통을 다시 읽게 했고 타자와 나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였다.

연구자 자신은 ‘타자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는 아닐까’, ‘나와 타자를 구별하는 타자의 문화나 경험 심지어 육체적인 차이까지도 인간의 무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비록 연구자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작은 경험과 만남들이었지만, 깊고 오래 지속 되어온 질문을 남겨주고 있다.

연구자는 약 10여년 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훈련원에서 일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난 경험이 많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신뢰 받으며 부흥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종교인들, 성직자들의 타락과 종교기관의 비리를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개신교 관련 기관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다보면 종교인들의 무지와 한계의 민낯을 보게 되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여러 유혹과 시련을 극복한 종교인들도 많이 있음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2012년에 독일에서 온 미하엘 벨커 교수와 함께 한국의 선교 현장 답사를 하다가 만난 Y목사를 통해서 받은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Y목사는 초창기 다문화 이주민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억울함과 불합리한 상황에 분노했고, 이주민들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눈에 무리가 되었지만, 흐릿한 시력으로 활동을 계속하다가 2005년 재한 몽골 학교를 건축하고 인가받던 중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Y목사는 어느 장소로 이동하든지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누가 있는지 묻고 밝게 인사해 준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에 대한 소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92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은 너무나도 엉망이

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담소가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향한 기독교의 색깔인 복음 전파의 방향으로 집중하려 합니다.” (들소리신문, 2009)

Y목사는 군중장교 전역 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으나 이주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 길로 유학을 포기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해 1992년 구로공단에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를 창설해 사역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 기관은 비교적 입지 조건이 좋고 지대가 높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이주민들이 많은 안산이나 구로일 것 같은데 전혀 연고도 없고 거주하는 이주민도 없는 광장동에 Y목사가 터를 마련한 이유는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이다. 이주민들도 자신과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갖길 원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고 안락한 환경이 갖추어진 광장동을 선택했다. 이것은 다문화사역의 장소에 대한 생각의 새로운 전환이었다. Y목사는 장소를 선택할 때 이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본인의 생애사에서 겪은 어려움과 섬세한 배려심이 Y목사의 사역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다보면 보다 깊은 의미와 교훈을 도출 할 수 있다. 현재의 선택을 과거의 사건과 연관시키며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더욱 명확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성직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이나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수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일생을 보면서 시간성과 관계성 그리고 생애사적 사건의 의미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 통한 성직자들의 타자성 형성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4. 연구 동향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3가지 범주의 선행 연구들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타자성과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후에 다문화 이주민에 관련된 생애사 연구와 종교인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타자성과 다문화 이주민에 관련된 연구(이종일 2008; 김범춘, 2014; 김효정·서동훈, 2017; 전보람, 2017)를 살펴보았다. 이종일(2008)은 다문화 교육의 핵심이 되는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을 사회사적 접근에서 찾으며 다문화 교육의 준거를 구체화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속한 내집단 문화를 준거로 타자에 대해 이해하였지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다수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구인들은 타자를 내집단 문화를 준거로 하여 인식하던 전통사회 인식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인종간·국가간 문제해결 과정에서 내집단 문화를 준거로 한 이해방식이 갈등만 키운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범춘(2014)은 다문화 사회에서 낯선 타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문제의 핵심에 근대적 주체관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근대적 주체관 대신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관을 제안한다. 자아동일성을 앞세우는 전통적 주체관이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고 배타적 향유를 가져오는 반면,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관은 타자를 자아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과 환대까지 주장한다.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며 사회정의로도 이어진다. 이때 사회정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리키며, 타자에게 단순히 마음을 여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입 속의 빵을 타자에게 건네주는 적극적인 환대 행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내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성이 다문화 사회에서 타자와 소통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효정·서동훈(2017)은 이주노동자 소설에 나타난 타자 윤리를 연구하였

다. 이주노동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주는 인물로,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타자에 속한다고 보았다. 소설 <루소와의 산책>, <동거인>, <월드 피플>의 화자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들 작품이 이주노동자를 다룬 소설과 다른 점은 기존의 이항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타자와의 경계 허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이주민은 우리를 위협하는 타자이기에 앞서 우리를 형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보람(2017)은 다문화복지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적 윤리학을 기반으로 한 실천 경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다문화복지실천가들 5명의 실천 경험의 양상과 의미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레비나스의 책임윤리학을 기반으로 한 실천은 다문화복지실천가들이 주체성을 지닌 클라이언트와 대면하면서 다름을 발견하고 존중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의 측면에서는 서로 지지하고 동반자로서의 관계 맺음을 경험하며 동등한 관계를 중요시함으로써 존재했다. 실천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기주도적 실천을 해나가고 있었으며, 사회 구성원 또는 가정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힘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사회에서 원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등의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주민을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타자를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이주민이 한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 이주민에 관련된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최근 들어서 점점 많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체성이나 능력 등을 습득하는 과정에 집중한 연구(박신규, 2008; 이희영, 2012; 양영자, 2013; 양영자, 2015; 강영미, 2015; 양영자, 2016)를 선별하였다. 박신규(2008)는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위치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과 주체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

이라는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정부정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이 형성되어 이들이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희영(2012)은 남한에 정착한 북한 여성의 생애사를 살펴보면서 북한, 중국, 남한의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탈북, 결혼, 노동 이주가 중층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사회주의 여성 영웅을 꿈꾸던 북한 여성이 초국적인 이주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지위와 국적, 결혼상태, 직업, 역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형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변위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 이주자들의 정체성이 결혼이주 또는 노동이주라는 이원화된 목적으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난을 배경으로 한 탈북의 흐름과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밝혔다.

양영자(2013)는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 5명의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해 분석하여, 이들에게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은 직업사의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거나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였으며,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분화되기도 하였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영자(2015)는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 3인의 생애 이야기를 로젠탈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개인과 가족, 직업, 민족 커뮤니티 관련 정체성이 독일 이주 이전과 이후, 그리고 노년기를 중심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구성되고 있는데, 이중 특히 ‘한인단체 리더나 멤버’ 등 민족 커뮤니티 관련 정체성이 이들의 생애 이야기에서 모두 강조되고 있고, 그 외 각 생애 이야기에 따라 ‘교육가’나 ‘유능한 여성의 지아비’ 혹은 ‘초국적 사업가’로서의 정체성도 각각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강영미(2015)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를 로젠탈(Rosenthal)의 내러티브 분석방법으로 접근했다. 로젠탈의 내러티브-생애사 분석 5단계를 적용하여 연대순으로 다루었으며,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를 구성하였다. 텍스트 분석과 주제의 영역 분석 단계를 통하여 현재에 서술된 생애사적 이야기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의 생애에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국제결혼을 수행했지만, 한국에서는 탈빈곤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바꾸게 하였다. 이러한 삶의 행로 변경에는 강점 지지체계로서 ‘모국종교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지지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양영자(2016)는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사적 체험을 내부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사를 로젠탈의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신을 식민화하는 다수자의 표준적인 기준에 균열을 일으켜 탈영토화하는 과정을 밝혔다. 노동자-되기, 이주자-되기, 여성-되기 등의 배치로 구성된 노동이주여성-되기의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동이주여성-되기’도 끊임없이 새롭게 또 다른 배치로 구성된 ‘소수자-되기’의 유동적인 과정이며, ‘차이의 정치’, ‘되기의 정치’ 과정이기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실천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이주민들이 형성한 정체성과 능력이 생애사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로젠탈의 생애사적 연구방법은 시대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모습이나 실천적 배경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병준·석영미, 2015; 전보람, 2017; 김성영·오영훈,

2013; 김성영, 201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준·석영미(2015)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문화적 학습과정을 거치고 직업전문성을 키워나가는지를 내러티브 인터뷰를 통한 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밝혔다. 연구결과 팀장 이상의 실무자 5명의 생애사에 나타난 전문성은 입문기, 적응기, 성장기, 주도기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들의 생애사를 통해 전문성 형성과정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능동성, 소통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의 이면에 정부지원기관이라는 제도적인 한계와 입문기의 열정과 사명감 보다 형식적인 업무로 이주민들을 대하게 되는 부정적인 변화들도 있음을 밝혔다.

전보람(2017)은 다문화복지실천가의 경험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타자윤리학의 대표적 학자인 레비나스의 책임윤리학으로 알맞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다문화복지와 관련하여 실천가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비하여 실천을 구조화하는 이론이나 개념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전보람의 연구는 바람직한 다문화복지실천을 구조화 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윤리적 기초로서 실천을 만들거나 구조화할 때 필요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했다. 이는 다문화복지실천가가 클라이언트를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방인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며 참여자들을 통해 개별화된 실천을 하고있음을 밝혔다.

다문화 관련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종교 기관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종교인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인식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김성영·오영훈, 2013; 김성영, 2016)가 진행되었다.

김성영·오영훈(2013)은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신교 목사의 인식을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3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0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목사이면서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5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문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독교가 갖는 절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문화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문화이해교육과 종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과 목사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신교계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하여 다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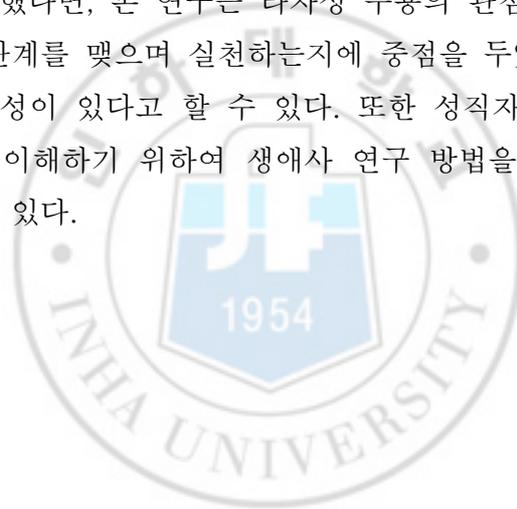
김성영(2016)은 수도권에 재직하는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교육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여 다문화·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개신교 목회자에게 필요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인식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첫째, 다문화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 둘째,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일부만이 다문화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 셋째, 다문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목회자의 의식 전환, 이해와 관심과 수용, 재정 지원,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한 것을 밝혔다. 오늘날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가 가졌던 다문화적 역량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연구 방법, 질적연구 방법을 막론하고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를 목회자로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로 한정할 경우에는 선행 연구를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성영(2016)은 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을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과 비슷했지만, 밝히고자 하는 중점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타자성이 지니는 함의와 시사점을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타자성의 형성과정과 실천의 양상을 그 주체의 생애사와 관련하여 접근

하는 연구는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시사하고 도전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그 대상을 종교인으로 한정할 경우, 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인에 대한 높은 이해와 배려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재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에게 타자성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는지 생애사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의 타자성이 현장에서 어떤 유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관 운영에 어떻게 실천되는지 밝히려는 시도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타자를 이해하고 인식하려고 했다면, 본 연구는 타자성 수용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실천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직자들의 삶을 통한 타자성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I. 타자성과 상호문화이해

타자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중요성은 먼저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념을 제공하고, 둘째 실천적인 지평에서 생겨난 철학적 사유의 철저함에서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하거나 성찰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자신의 주장은 참이며 상대방의 주장은 틀린 것이고 심지어 상대방을 ‘악의 화신’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자신(주체)의 유한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타자성(他者性)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도외시되는 인간의 성질”을 뜻한다(한국어사전, 2018). 한자어 '타자(他者)'는 다른 자아(다른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러 문맥들을 만나 적절하게 의미가 확대되기도 하고 또는 내용이 조금 변형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뜻은 한자어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학에서 타자성은 이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잖은 마찰의 소재가 된다(김승환, 2005). 철학과는 다른 교육학만의 고유한 구조와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학은 타자 일반의 존재론적 양태를 기술하고 설명하거나 혹은 인식작용의 체계나 흐름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의 규범적 작용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조상식, 2002: 136). 서양 교육학의 역사는 타자를 나의 관점에서 동일시하여 또 다른 하나의 나를 만들어 내거나 길러 내려고 하면서, 타자의 타자성이 교육이론 속에서 망각되어왔다. 타자의 타자성은 복원되어야 마땅하지만, 주체의 주체성 역시 포기할 수 없다는 이론적·실천적 현실이 현대 교육학이 당면한 근본적 역설구조이다(우정길, 2009).

철학적으로 타자성의 문제는 동일성과 차이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과 차이의 사고는 또한 보편과 특수 및 전체와 부분의 문제라는 철학의 본질적 과제와 결합된다. 이러한 사고의 토대 위에서 평등(동일성)과 차이(다양성) 및 조화와 구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강희복, 2007). 인간과 다른 존재자들 간의 관계, 인간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개인과 집단의 관계 등이다. 결국 동일성과 차이의 사고에 따라서 존재론적·인식론적 귀결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문제가 동시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존재의 질서, 실천의 질서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원론적 사고를 비판하고 '타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도한 레비나스의 관점과 타자를 위한 교회를 역설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본회퍼의 사상이 타자성을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와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타자성을 철학적 윤리의 차원으로 보고자 한다.

타자성에 대한 연구를 철학적 윤리로 접근했던 학자들 중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주장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에 존재한다. 박종균(2008)은 레비나스와 본회퍼가 상호적이지 않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타자를 동일시하고, 고통 받는 타자를 위해 죽기까지 책임지는 대리(substitution)적 삶에서 참된 초월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일치되는 영성적 에토스가 흐르고 있다고 해석한다.

타자성에 대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유사점은 각각 그들의 생애사적 주요 사건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레비나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포로로 갇혀있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철학의 방향이 달라졌다.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였고, 서구인의 전쟁과 폭력의 속성이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개인을 전체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이안나, 2009).

본회퍼는 독일 브레슬라우의 유복하고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후 이른 나이에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어가던 독일교회와 맞서 싸웠다. 본회퍼는 학자와 귀족 출신으로

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히틀러의 독재에 저항했다. 미친 운전수는 차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히틀러 암살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에 사형 당했다. 그 시대의 실존적인 상황과 자신의 신학 원리로부터 타자의 고난에 철저히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자 레비나스와 신학자 본회퍼가 공통적으로 주목한 타자성 개념에 집중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패러다임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과 윤리적 책임 의식이 다문화사회에서 타자와의 공존과 소통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함의가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과 책임윤리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이후에 이주민 봉사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실천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사회의 타자성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타자성에 대한 관점은 고유한 자립성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존재인 타자와 자신이 상호보완적이며, 종결되지 않는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낮은 문화나 타인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타자와의 대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 타자를 정확하게 더 나아가 남김없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타자를 자기 속으로 동화시키거나 수단화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타자와의 공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타자와의 공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많지 않은데,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에 대한 논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1.1. 레비나스의 타자성

서구의 존재론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며, 존재와 주체 중심의 자율성은 타자를 나의 동일성 안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근대적 도그마를 전제한다. 반면 레비나스는 존재론적 전통에서 나타나는 일원론적 전통이 가져올 수 있는 폭력성을 경고한다. 일원론적 사유의 전통은 동일자의 행위 양식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전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는 자아중심의 의식철학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지라도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특히 윤리적 관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연숙, 2001: 97). 왜냐하면 자아의 자기화, 동화과정은 타자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근대적인 자아중심적 주체관을 비판하면서, 주체성을 ‘타인을 받아들임’ 또는 ‘타인을 대신하는 삶’으로 새롭게 정의한다(레비나스, 1996: 7). 주체를 주체답게 만드는 요인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주장해왔던 정합성과 자기 동일성에 입각한 선명한 자기 완결성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놀라 떨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인 윤리적 감수성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자의 자기의식 안에 갇혀 있는 기존의 주체로는 타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 이전에 타자가 먼저 상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타자를 먼저 인식하고, 그러한 타자의 얼굴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로 자기를 정립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성 철학 안에 담겨진 비밀이다(레비나스, 2013).

레비나스에게 신은 타자이다. 그러나 타자가 신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타자는 낯선 존재로 나타나는 신의 현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타자를 통하여 신을 만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경외가 발생한다.

그에게 이런 타인에 대한 욕망은 곧 인간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며 신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속죄행위가 되는 것이다(윤대선, 2009).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자와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다.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과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타자와 동등한 사람이 된다(레비나스, 1996). 이처럼 레비나스에게 진정한 주체성은 타자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여기서 주체의 고유성은 자기 밖으로부터 선택받고 불리어지는 존재, 타자의 지명에 의해 형성되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 타자의 부름을 받고 응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통해 정초된다(김연숙, 2001). 그러므로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은 곧 타자에 의해 결정되며, 타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으로 타자를 대신하며 사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1.2. 본회퍼의 타자성

본회퍼는 예수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라는 질문이어야 하고,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나를 위한 존재라고 한다(본회퍼, 1974). 예수는 나에게 타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성육신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의 실존적 실천이다. 예수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즉 타자를 위해 인간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다. 그의 삶은 오직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본회퍼 활동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계시의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본회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도의 교제』(sanctorum communio)에서 주장한 교회 개념을 도입한다(본회퍼, 2010b). 계시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인간의 실존과 무관한 교리, 종교적 체험, 제도 안에서의 계시의 존재적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계시는 교회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만 사고될 수 있는데,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현재적 선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사고된다(김성호, 2013). 그러므로 본회퍼에게 계시된 예수를 따르는 주체는 타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 책임감이 부여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적 타자인 하나님에게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신의 입장에서 인간은 타자이어야 신의 신다움이 보장된다. 하지만 예수의 대리를 통해 양자 간에 극복될 수 없었던 타자성은 긍정될 수 있었다. 본회퍼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대리적 죽음으로 파악함으로써, 예수를 철저히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규정하였다(강성영, 2015). 예수와의 만남은 예수가 오직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다. 또한 신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는 타자를 위한 존재에 있어서의, 곧 예수의 존재에의 관여에 있어서의 새로운 생이다(본회퍼, 2000).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인간은 그러한 타자성을 인식하며 실천해야 한다.

본회퍼가 결국 주장하고 싶은 타자성의 존재적 이해는 ‘교회 내에서의 믿음을 통한 성도들의 교제의 실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의 성도들은 기독교인에게 타자이며, 타자를 위해 살았던 예수와의 교제가 근간이 된다. 타자를 위한 존재는 오직 행위적인 신앙 속에서만 존재하며, 오직 신앙 속에서만 예수의 공동체가 실존한다(본회퍼, 2010b). 결국 타자를 위한 존재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공동체, 인격 공동체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본회퍼의 타자성은 타자를 중심에 두며 타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1.3. 다문화사회에서의 타자성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공통점은 주체가 타자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의 자기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초월은 레비나스와 본회퍼에게 둘 다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유강식, 2009).

레비나스는 인간적인 것을 나의 밖에서, 존재의 저편에서, 타자의 세계에서 찾고자 하였다(박종균, 2008). 인간 혹은 인간성의 근원은 타인으로 보면서, 인간의 책임은 의식에 의해 인식되거나 나의 능동적인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즉 타자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회퍼에게 타자는 계시의 문제로 나타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순히 순종함으로 그의 윤리는 시작된다고 보며, 본회퍼 윤리의 핵심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윤리라는 것을 밝혔다. 레비나스도 본회퍼와 같이 단순히 타자 즉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타자를 주체에 대한 윤리적 요청으로 보았다. 레비나스에게 타자성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오직 죽음뿐이다. 하지만 이 죽음으로는 진정한 자기초월이 불가능하며 자기초월의 가능성은 타인의 얼굴의 현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문화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적 접근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호소통과 연대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마련하고 그 다양성이 갈등하지 않도록 공통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을 추구한다(문성원, 2007).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소통과 연대를 위한 방식을 상호문화주의라고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상호문화 이해는 전지구적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 사이의 평등함과 상호인정의 원칙이 통용되고 공동체적인 삶이 기본 가치로 자리 매김 하는 것을 추구한다. 여기서 상호인정이란 한 사회의 다수에 의해 주도되는 문화가 문화적 소수집단에게 다름을 묵인하거나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관용’이 아닌 ‘인정’은 주도적 문화 및 생활방식이 소수인들의 민족적·세계관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함을 의미한다(정영근, 2007: 265).

상호문화주의는 다문화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타자들을 상호존중의 자세에서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낯선 타자들을 문화·인종적 차이의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이론적 토대를 찾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의 타자에 대한 문제에서 상호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상호문화이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창호, 2011: 83).

상호문화이해에서의 전제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곧 내 것이 아닌 문화, 즉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관점에서 보자면 타문화는 곧 나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타자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타자이며, 타자로서 이주민을 이해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 즉 주체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타자와 윤리적 책임

상호이해의 윤리적 관점에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며 이주민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근대의 자율적인 주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타자지향적인 책임을 통해 실현되는 타자성의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주체 개념을 부정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지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회퍼의 윤리적 책임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라는 자기 동일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의 대리가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2.1. 레비나스의 윤리적 책임

레비나스가 정의하는 타자의 윤리는 전체성과 종합이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 있으며 사립 가운데 있다. 제일의 철학을 윤리학으

로 생각했던 레비나스가 내세우는 것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이다. 레비나스에게 타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종이나 믿음이라기보다는 응답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문성원, 2007).

레비나스의 타자는 동일자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를 맺는 타자, 절대적 다름으로서 존재 자체가 타자성인 타자다. 타자는 레비나스에게 동일성의 폭력에 반대하면서 윤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사상으로 전환하려는 사유의 중요한 거점이 된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레비나스는 “윤리란 타자에 의해 발생하고, 타자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레비나스, 1969: 16)고 말한다. 이때 얼굴은 우리를 향해 침투하고 관여하면서 손짓하고 아우성을 치며 우리의 응답을 촉구한다. 이렇게 타자는 우리에게 응답과 행위를 야기시키는 윤리적 요구가 된다. 레비나스가 타자의 얼굴에서 강조하는 점은 타자의 얼굴로부터 호명된 무엇인가로 인해 우리 마음에 생채기가 생겨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답변을 지닌 채 타자의 얼굴과 대면하는 것이다(레비나스, 2000). 바로 그 지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윤리가 발생한다.

레비나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삶을 타자에 대해 책임지며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자아의 존재유지, 자아의 내면성에서 찾지 않고 자아의 외부, 자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차원, 즉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적 사건에서 찾고 있다(레비나스, 1985). 여기서 윤리적 사건이란 타자 얼굴의 출현이다. 얼굴은 나의 자유로운 표상과 인식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타자의 존재방식이다. 얼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우리의 세계 안에서는 어떠한 지시체로 찾을 수 없는 ‘외재적 존재의 현시’이다(박종균, 2008).

나아가 레비나스는 나를 보는 타자의 시선과의 만남을 ‘절대 경험’이요, ‘계시’라 부른다. 자아는 이 계시에 직면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타자는 자아의 기대와 예측을 벗어난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주인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자아를 우선하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관계적이고 윤리적

인 인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철학적 근거가 된다(김범춘, 2014). 레비나스의 주체는 타자를 자아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아에 동화시키지도 않으며, 타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타자를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 환대한다. 이처럼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책임의 주체는 분명 윤리적인 주체이다.

2.2. 본회퍼의 윤리적 책임

본회퍼에 의하면 관념론에는 진정한 타자로서의 ‘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념론에서는 사고하는 내가 모든 타자를 자신의 정신성 안에서 인식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의 작용에서 나는 모든 타자의 다름을 자신의 사유에 의해 매개된 동일성으로 환원시킨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타자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나-너’의 관계는 진정한 ‘나-타자’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나의 정신에 의해 나와 유사해진 타자와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인식론의 체계에서는 타자성의 상실로 인해서 진정한 타자 대면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회퍼의 인식이므로 어떻게 하면 타자를 진정한 타자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본회퍼의 주된 관심이 있다. 본회퍼에게 타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고유하고 독립적인 또 다른 내가 된다. 그러므로 ‘나-너’의 관계는 서로 다르고 독립적인 ‘나-나’의 관계가 된다(김현수, 2009).

본회퍼에게 ‘나’는 윤리적 요구의 절대성 앞에 세워지는 존재인데, 이러한 윤리적 요구의 절대성 앞에서 나의 인격은 전인적 인격으로 형성된다. 나에게 타자는 내가 존재하는 절대이유다(본회퍼, 2010b).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책임윤리적 태도가 본회퍼 사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에 대한 관심은 두 권의 저작에서 제기한 질문들을 통해 추적해 볼 수 있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 서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노동자, 상인, 농부, 군인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질문한다. 『윤리학』에서는 “그리스도는 오늘 그리고 여

기 우리 가운데서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윤리적 도전과 대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박종균, 2008).

또한 본회퍼는 인간의 인격이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너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비로소 생겨난다고 생각했다(본회퍼, 1963). 인간적인 너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바로 이 ‘인간적인 너’가 자아의 인격을 생겨나게 한다. 즉 ‘나’의 인격은 도덕적으로 책임질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에 대한 책임을 유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성육신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식되고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을 위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타자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본회퍼, 1931). 그러므로 본회퍼 윤리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고 주어진 하나님의 현실성과 세계의 현실성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얼마만큼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집중된다.

본회퍼가 이해하는 윤리적 책임은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본회퍼, 1974). 책임의 개념은 본회퍼의 사회윤리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책임은 타자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 본회퍼는 책임의 개념을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현실과 인간적 삶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긍정과 부정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산 이러한 삶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책임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대한 응답의 포괄적인 전체성과 통일성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한 책임의 개념은 유용성을 고려하거나 특정한 원칙을 언급할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응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본회퍼, 2010c: 254)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도전이 본회퍼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인 배경과는 다르지만, 본회퍼가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룬 ‘책임’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은 오늘 여기서 모습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본회퍼, 1931).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나 이주민을 위해 동정심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의 본질을 예수의 삶과 형상을 통해 구체화한 책임 윤리가 절실한 까닭이다.

2.3.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책임

니케(Nicke)는 담론윤리의 연장선에서 ‘상호이해의 윤리’를 요구했다. 상호이해의 윤리에서는 “문화세계와 생활세계의 경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제한도 의식적이 되고 근본적으로 지양될 수 있다”(Nicke, 2008: 185). 다문화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은 상호이해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의사소통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상호문화이해는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행해야할 실천 원리가 되어야 한다.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를 환대하는 상호문화이해가 개인적 내부 세계를 혁신하는 호소라면,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다문화교육의 강령은 내부 세계와 개인의 외부세계를 연결한다고 볼 수 있다(김영순, 2018). 상호문화이해는 개인의 내부세계를 혁신시키기 위한 타자성이 필요하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윤리적 책임의 모습은 한마디로 타자지향적이다(이상철, 2015).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획득되는 다양한 복수적 타자들의 특수성을 지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는 그러한 권리의 전제 없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책임의 존재를 주장한다. 레비나스와 본회퍼는 상호성을 뛰어넘어 절대적인 책임을 주장한다(박종균, 2008). 그리스도와 고난 받는 타자와의 동일시, 고난 받는 자의 관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메시아적 구원사건을 성취한다는 점,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

유에서, 고통 받는 타자를 위해 죽기까지 책임지는 대리(substitution)적 삶에서 참된 초월의 경험(본회퍼에게서는 하나님의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치되는 영성적 에토스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윤리적 책임은 이주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며 이는 이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하는가의 방식으로 결국 그들을 상호문화주의 입장에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상호문화 이해와 타자성 실천

다문화교육의 이론 및 실천적 논의에서 강조해 온 다문화감수성은 Martineau(2008)가 주장한 7가지의 상호문화교육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칙들은 ①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한다. ② 자기 자신과 고유한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③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다. ④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⑤ 자신의 판단을 감정적으로 유보한다. ⑥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⑦ 협상과 타협을 권장한다.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상호문화교육은 연대, 공존, 평화, 사랑을 목표로 하며, 실천을 강조한다(이화도, 2011).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타자성이 필요한데, 그 실천적 방법을 레비나스의 대화와 본회퍼의 대리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3.1. 타자와의 대화

레비나스는 타자가 도전하는 윤리적 과제를 받아들이고, 자아중심성으로부터 타자로 향한 열망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만남과 대화를 말한다. 레비나스는 언어에서 대면적 만남과 대화를 보다 근원적으로 보면서, 대화의 언어구조에서 말해진 것에 대한 말하기의 우선성이라든지 말하기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윤리성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이안나,

2009). 타자 중심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타자로부터 발생하는 윤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를 통한 타자와의 교체에서 대면적 대화와 수사학을 구분한다. 대면적 관계에서 대화는 타자를 진정으로 마주하면서 그와 근원적 관계를 형성한다(김연숙, 2000). 타자와의 대면적 대화에서 자아는 절대적으로 다른 타자의 외재성과 무한한 타자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수사학은 타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그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그를 대면하지 않고, 내 안에서만 수용하며 타자로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학에 대하여 레비나스는 타자를 정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레비나스, 1969). 따라서 수사학의 방법으로는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레비나스가 타자와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주체성은 결코 혼자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려있다. 철저히 타자 중심의 대화에서 타자는 얼굴인 동시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며, 나도 그에게 말을 건넨다. 이때, 얼굴은 레비나스에게 타자성 자체가 된다. 자아와 타자 사이에 신뢰할 만한 관계는 의식의 관계가 아니라, 대화이며 대화에서 요구되는 응답의 책임성이다. 레비나스는 이것이 담론의 근원적이고 일차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담론의 영역에서 인식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김연숙, 2001). 인간들 사이에서 윤리적 관계는 자기중심성과 자기폐쇄성을 넘어서는 것, 나의 집의 대문을 열고 타인을 환영하는 것, 타자와 마주보기의 윤리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타자와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것, 타자의 얼굴이 보여주는 근원적 윤리와 타자의 현현에 응답하는 것, 타자를 자기의 논리 안에서만 수용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진정으로 마주하는 대화로 구체화된다.

레비나스는 이 같은 교체를 윤리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 타자와 대화하고 응답하는 관계에 형성되는 것이 윤리학이라는 것이다(레비나스, 1969). 대화에서 대화 주체자들은 나 중심으로 행하는 독백이 아닌 이상, 언제나 상대방의 언술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다. 대화가 성립되는 조건은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타자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 나의 본래적인 책임이

며, 타자를 위한 윤리적 책임이다.

내가 타자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타자의 표정을 감수성으로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 나를 타자의 위치에 대체시킴으로써 이뤄진다(박종균, 2008). 이런 대체를 통해,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타자는 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돌보아야만 하는 존재이다.

이 때 타자의 얼굴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정당화의 요구를 던져 놓는다. 그 요구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주체를 파괴하고, 책임의 주체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이 때 나의 자유는 좌절되고 그 자리에 책임이 들어선다. 이제 책임의 주체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향해 나아간다. 타자의 비참함이 직접적으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서용순, 2014). 다른 사람의 책임 역시 나의 책임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레비나스의 책임의 주체는 결국 타자에 대한 책임을 떠맡으면서 형성되는 주체인 것이다(레비나스, 2000).

타자의 얼굴은 응답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요구한다. 타자의 얼굴이 던지는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답하여 책임을 짊어지면 나와 타자 사이에 윤리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윤리적인 선이란 타자의 발견을 통해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의 현현을 통하여 동일자의 우위는 무너지고,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의 의무가 부과된다(서용순, 2014). 이처럼 타자를 통해 주어지는 윤리적 관계는 자신을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의 주체로 강제하는 것이다.

3.2. 타자를 위한 대리 사상

본회퍼는 교회론을 제시하면서 예수의 대리적 죽음을 부각시킨다. 독일어로 대리(Stellvertretung)는 ‘자리를 대신하여 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리는 내가 대신하여 타인의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며, 책임을 지향한다. 예수의 대리적 죽음에 기초하여 본회퍼는 교회됨의 기본 내용 즉 ‘서로 같이 있음’과 ‘서로를 위해 행동함’이라는 개념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적임을 지적한다. 이 두 가지를 사랑 공동체(교회)의 사회적 특성으로 본회퍼는 이해한다.

『성도의 교제』에서는 예수의 대리적 죽음에 기초하여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본회퍼, 2010). 본회퍼에게 신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드러난 ‘타자를 위한 삶’을 통해 새로운 자기동일성을 획득한다. 신은 세상과 타자를 위해 자기를 개방할 때 비로소 신의 신됨이 선포된다(이상철, 2015). 이렇듯 ‘타자를 위한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본회퍼의 사상은 그의 윤리뿐 아니라 교회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본회퍼의 유명한 신학적 표어인 ‘공동체로서 현존하는 그리스도’(Christus als Gemeinde existierend)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회론과 기독교론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리를 교회의 삶의 원리로 가진다는 뜻이다. 예수의 대리는 공동체 안에서 현실화되며, 그 원리가 된다. 예수의 현존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킨다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교회의 삶의 원리가 된다. 본회퍼는 나아가 『윤리학(Ethik)』에서 예수의 대리를 책임의 원리로 파악한다(본회퍼, 2010c). 이와 같이 그는 초기부터 교회의 타자에 대한 대리적 실천, 세계내적 책임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수의 대리를 본받아서 실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결단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다. 본회퍼는 내가 타인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예수의 대리행위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영위하고 행동하고 겪어야 했던 것들이 그분에게도 일어났다. 자신의 인간성의 본질이 되는 이러한 진정한 대리 안에서 그분은 오직 책임적 존재일 따름이다. 모든 인간적 책임의 근원은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리에 있다. 책임적 행동은 대리적 행동이다.” (본회퍼, 2010c: 275)

그리스도의 대리행위는 타자를 향한 책임을 전제로 한 행위였고, 인간에

대한 책임이 대리행위를 일으킨 것이다. 본회퍼는 이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현실적인 사명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타인의 죄책을 대신 책임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책임 행동은 “현실적 인간을 위한 이타적 사랑”에 근거한다(본회퍼, 2010c: 278). 이러한 이타적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요구된다는 것이 본회퍼의 타자성이다. 여기서 ‘대리’는 모든 낯선 것 중의 가장 낯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타자였던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한 인간을 통해 보여준 사건이었다(이상철, 2015). 본회퍼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리를 통해 고난 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존재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타자성을 옹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3.3.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타자성의 실천

상호문화교육의 방법론적 원칙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타인과 협력하기’, ‘타인이 현실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등이 있다(장한업, 2009).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공존과 이해라는 내용에 상호작용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타자를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윤리적 인간을 제안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성은 자아와 타자의 극단적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아가 타자와 맺는 책임 윤리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김범춘, 2014). 타자를 위하여 신을 대리하는 본회퍼의 타자성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응답 자체로써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 역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다할 때만이, 즉 삶의 한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고난을 짊어질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아가 레비나스는 타자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진정한 주체성은 타자의 존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타자와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며, 타자를 동

일성 안으로 환원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본회퍼는 교회를 오직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에만 교회인 것으로 보았으며, 윤리를 타자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강성영, 2015). 본회퍼의 교회론과 윤리관이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타자성의 실천요소라고 할 수 있다.

타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내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은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공존과 소통을 이루어내는 상호문화이해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며, 타자중심의 책임적 윤리를 지지한다. 따라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은 타자를 대상화하고, 동일성을 기반으로 타자를 재단하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대안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타자들에게 시혜만 베풀며 대상화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동일성 이전의 타자를 우선하며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과제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는 대면과 만남을 통해, 타자를 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지향하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패러다임은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주의로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함의를 지닌다.

레비나스와 본회퍼가 보여주는 타자성을 제고하는 과제는 상호문화이해와 연결된다. 상호문화이해는 타자를 결핍이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일방적 통합을 모색하는 단계로부터, 타자의 차이성을 강조하면서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상대주의적인 다문화성의 단계로, 그리고 다시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 또는 통일성 속에서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상호문화주의의 단계로 발전되었다(정창호, 2011).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다문화사회의 한 전형적인 발달경로를 보여주는데,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실천의 현 주소는 아직도 타자를 결핍이나 위협으로 간주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자성을 이해하고 실천한 생애사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일상적 실천과 이론적 논의 속에 뒤섞여 있는 타자 이해의 방식들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성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상호문화 이해를 위

한 타자성의 실천요소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에 대한 논의를 도식화하여 핵심적인 실천 요소의 내용을 범주화하면 다음 <표2-1>과 같다.

<표 2-1>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실천 특징

범 주	구 분	타자성 실천 특징
타자와의 정체성	레비나스	자기동일성 이전의 타자를 우선하며 무한한 타자로 받아들임
	본회퍼	계시된 예수는 나를 위한 존재이며 타자임
타자 지향적인 윤리적 책임	레비나스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적 사건에 타자 지향적 삶의 가능성이 있음
	본회퍼	나의 인격은 윤리적으로 책임질 때에만 존재하며, 책임윤리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임
타자를 위한 방법론	레비나스	타자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를 통해 자유를 지향함
	본회퍼	하나님(신)을 대리하는 방법으로 타자를 위함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방식이 레비나스와 본회퍼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레비나스는 자기동일성 이전에 존재하는 타자를 우선하면서 무한한 타자로 받아들이고, 본회퍼는 계시된 예수가 나를 위한 존재이며 타자라고 보았다. 여러 철학 분과 중에 윤리학을 가장 우선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레비나스에게 타자지향적인 삶의 가능성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일어나는 윤리적 사건에 있다. 신에 대한 절대적인 응답으로써 책임윤리를 주창한 본회퍼에게 나의 인격은 윤리적으로 책임질 때에만 존재하며 책임윤리는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지향점을 가지고 레비나스와 본회퍼가 실천의 측면에서 타자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대화와 대리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를 통해 자유를 지향하고 있으며, 본회퍼는 하나님(신)을 대리하는 방법으로 타자를 위하는 실천적 방법을 추구한다.

Ⅲ. 연구 방법

1.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이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널리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다(정경희, 2016).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은 일회적이 아닌 과정적 경험이기 때문에, 타자성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특정 시기의 횡·단면적 면으로 조각하여 보는 것보다 생애 전 과정을 살피는 생애사 연구가 유용하다(Ojermark, 2007).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을 자신의 단어들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특정하고 중요한 생애사건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참여자 자신의 주체적인 해석과 이러한 해석들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Sung, 2010).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양적연구로는 도출하기 어려운 집단의 독특한 인지적, 사회적 발달과정이나 성인기의 독특한 생활경험 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으며 삶 그 자체와 삶의 과정을 통한 경험의 전유과정을 상세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연구의 중요한 질적연구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다(Krüger&Marotzki, 1999).

생애사는 한 개인의 생애 그 자체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라 그 개인의 삶 속에 스며있는 살아 숨 쉬는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 개인이 체험하는 어려움, 갈등, 보람, 노력 등을 드러낸다(조용환, 1999). 즉 인간의 삶을 개인 주체와 사회 구조 어느 한편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두 측면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시카고학파의 Thomas와 Znaniecki가 1918년부터 1921년까지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라는 폴란드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총 5권으로 출판한 이후, 생애사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요한 사회연구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Breckner, 2009; Rosenthal, 2011). 그러나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199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역사학과 인류학, 사회학 등의 인접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이희, 2005: 122),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이보다 더 늦은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Schütze와 Rosenthal, 그리고 Rosenthal과 Fischer-Rosenthal 이외의 분석 방법들은 접근 방법의 명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범주 위주로 접근하는 내용분석 방법임을 발견할 수 있다(양영자, 2013). 이러한 분석 방법은 주관성과 시간성에 주목하지만 이야기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내러티브 분석 방법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Schütze의 분석 방법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 연구 -이론과 실제-』(이효선, 2005)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에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Rosenthal의 분석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적어서, 생애사 연구에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영자(2011b)는 Rosenthal의 분석 방법을 남성노인의 생애사 사례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Rosenthal의 분석 방법은 Schütze로 대표되는 생애사 텍스트 분석 방법이 이야기와 현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양영자, 2011b; Rosenthal, 1995; 2011), 이야기적 진실성과 사실적 진실성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실재성을 해명하고자 한 분석 방법인 바, 주관성과 시간성은 물론 이야기성까지도 분석하는 생애사 연구에 매우 적합한 분석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양영자, 2013).

이러한 Rosenthal의 분석 방법에 따라 접근한 연구는, 접근 방법과 연구 결과 간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진 현 생애사 연구 상황에서 매우 요구되는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인터뷰 분석 방법에 따라 한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인터뷰를 분석함으로써, 접근 방법과 분석 결과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생애사연구에서 분석과 해석 작업은 생애사 텍스트의 변환을 유도하는 두 개의 축이다(김영천·한광웅, 2012). 특히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결여된 연구자의 해석은 생애사연구의 논리적 일관성과 정교함을 저하시킬 수 있고,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오기 힘들다(김영순 외, 2018).

본 연구에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형성한 타자성과 책임윤리의 '시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사 연구는 과거를 시간적 영역으로 구분하거나, 현재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기기보다 현재와 과거는 분리될 수 없는 시간적 연속선 상에 있다고 전제한다(김영순 외, 2018).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간의 지속적인 교섭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참여자의 현재의 삶은 과거로부터 자리 잡은 삶이다(Goodson&Slkes, 2001: 46). 생애사 연구에서의 시간성은 개인의 기억이 사실 혹은 거짓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흐름에 따른 개인적인 맥락과 경험을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에 있다(Plummer, 2001).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직면했던 삶의 기회와 인생의 전환점 등 일련의 일어났던 사건 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에 초점을 둘 수 있다(정경희, 2016). 그리고 당시의 삶의 선택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질문으로 답을 얻게 되면 비슷한 경험을 겪거나 겪게 될 다른 이주민 봉사 기관 종사자에게 함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삶의 전반적인 맥락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한 개인 경험의 의미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개인 경험 이상의 넓은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이희영, 2005; Cole&Knowles, 2001).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물리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을 파악 할 수 있어서 연구참여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인생이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험의 재구성을 통하여 삶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도 있지만,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삶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배움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큰 의의로 볼 수 있다(정경희, 2016).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연구를 하면서 타자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른 이들에게도 귀감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속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한국사회 이주민 및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직간접적인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학자 레비나스와 신학자 본회퍼의 타자성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기술하고 해석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왜냐하면 성직자들의 생애사 이야기를 통해 현재 이주민 관련 기관 현장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적 이념이나 타자성의 가치들이 다문화선교의 이념과 어떻게 결합되어 실천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성직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현재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종사하는 개신교 성직자 4명을 선정하였다.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성직자 중에서 이주민기관 사역자들과 목회자 지도력 양성기관의 전문가에게 이중으로 추천을 받았다. 지역별 분배도 염두에 두었으며, 최소 경력이 15년 이상 된 성직자로 제한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개신교 성직자이며, 현재 기관장 또는 센터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특징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특징

구분	나이	지역	직위	이주민 기관 경력
연구참여자 A	67세	대전광역시	대표	35년
연구참여자 B	59세	대구광역시	공동대표	18년
연구참여자 C	52세	경기도 의정부시	센터장	15년
연구참여자 D	60세	경기도 오산시	대표	15년

연구참여자 A는 광주일고를 나와 1971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던 중 감옥에서 독일 신학자 본회퍼의 신학서적을 읽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출옥한 후에 목회하시던 이모부의 배려로 대전에 내려와 신학공부를 하고, 장신대 목연과정에 진학했는데, 우연히 영등포에 있는 노동자교회에 들렀다가 노동자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어서 산업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노동현장에 들어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조지송 목사의 지도를 받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와 선교를 구상하고 당시 낙후된 지역이었던 대전으로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1986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984년 9월 공단 빈민지역인 대화동에 빈들교회를 개척하였다.

연구참여자 B는 경북대 철학과와 장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후 1997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전도사로 활동할 때부터 영세민을 대변하는 활동했으며, 대구지역에서 외국인 구조활동에 힘써왔다.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 2006년 베트남에 하노이선교센터를 설립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한 뒤 귀국한 베트남인의 올바른 정착을 돕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작은 평화의 교회를 세워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침해 구제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20여 년간 힘써온 공로로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제2회 애산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2003년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살롬의집 사무국장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으로 일하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출입국사법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실무적인 일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연구참여자 D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잘해서 1978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하였다. 공고 시절부터 인문고 학생들과의 차이 속에 사회적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정권 말기의 대학 시절 때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저항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면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 교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선 이후 1988년 결혼과 함께 신학대 입학에 결심하였다. 민중교회 훈련과정으로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민중의 삶을 체험하고, 전국의 민중교회를 순회하였다. 이어서 빈민, 민중교회에서 현장 전도사 생활을 하였다. 1994년부터 목사로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아시아이주노동자 연대운동에 앞장서며 오산 이주민노동자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시행한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다. 연구 방법은 연구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2회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형식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절차와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절차와 내용

연구절차	기 간	연구활동내용
IRB 정규심의	2017년 10월 ~ 11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연구참여설명문 및 동의서 작성
연구참여자 선정	2017년 11월 ~ 12월	대상자 선정 및 기초 자료 수집
사전 회의와 생애사 연구	2018년 1월 ~ 2월	자기생애사 쓰기, 심층 면담, 생애사 인터뷰
면담기록 분석	2018년 3월	면담기록 분석
논문 작성과 보완	2018년 3월 ~ 5월	학위논문 작성과 보완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식의 변화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심층면담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저서, 논문, 웹문서(블로그, 인터넷 신문기사), 월간지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 외의 기타 자료들도 같이 수집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게 면담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으로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면서 메모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심층면담 일정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심층면담 일정과 장소

연구참여자	일 정	장 소
연구참여자 A	1차 : 1/3(수) 오전 10시~11시반	센터 상담실
	2차 : 1/30(화) 오전 10시~12시반	센터 상담실
연구참여자 B	1차 : 1/3(수) 오후2시~4시	센터 카페
	2차 : 1/30(화) 오후3시반~6시	센터 카페
연구참여자 C	1차 : 1/4(수) 오후2~4시	성공회대성당앞 카페
	2차 : 1/25(목) 오후3시~5시반	센터 센터장실
연구참여자 D	1차 : 1/10(수) 오후3시~5시	센터 사무실
	2차 : 1/31(수) 오후4시~6시	센터 상담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별로 2회 진행되었으며, 1회에 대략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뷰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에 따라 대화가 길어지기도 하였다. 질문 내용은 크게 생애사적 질문과 타자적 윤리에 대한 질문으로 구분된다.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의 내용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생애사 기술을 위한 질문 개요

범 주	질문 내용
청소년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형제자매, 서열), 가정환경은 어떠셨습니까? • 장래희망은 무엇이었나요? •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청년 대학 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을 미친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었나요? • 학창시절 활동한 단체나 동아리가 있습니까? • 기억에 남는 대학(유학) 생활의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영향을 끼친 책이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 활동 하는 데에 모델이나 계획이 있었나요?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 보람되거나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 현 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타자성 형성과정과 실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은 구분하였다. 타자적 윤리 실천사례 파악을 위한 질문 내용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타자적 윤리 실천사례 파악을 위한 질문 개요

구분	질문 내용
계시/종교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인 경험으로 타자에 관한 어떤 소명의식(계시 사건)을 느낀 적이 있나요? • 이 사건이 다문화인과의 접촉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까?
타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에 남는 타자(이주민)의 얼굴이 있나요? • 가장 인상적이었던 타자(이주민)와의 사건이나 대화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이 타자성과 어떤 관계(영향)가 있습니까?
윤리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자(이주민)와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타자(이주민)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 다문화교육(선교)에서 지향하는 타자적 (책임) 윤리는 무엇입니까? • 타자(되기)를 위한 이주민 봉사 기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기를 나누어 반구조화 형태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지만, 질문의 순서는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질문이나 가벼운 이야기의 형태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질문으로 좁혀 들어갔다. 심층면담은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참여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정경희, 2016).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연구참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웹문서의 기사를 찾아 읽거나, 저서가 있는 경우 저서를 구입하여 먼저 읽는 등 연구참여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수집된 자료 안에서 찾는 과정이다. 자료분석 과정이란 자료를 조직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하고, 자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이다. 이 때 자료분석의 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Merriam, 2009).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목적에 맞는 양질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 분석을 함께 진행하면서 다음 면담과정에서 이루어질 추가적인 질문 내용을 찾거나 또 다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이후

본격적인 자료 코딩과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한 구체적 자료 분석 단계는 자료정리-개방코딩-범주화-비교 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자료정리단계로서 연구참여자와 심층인터뷰 내용의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듣고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당시에 느꼈던 내용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메모하였다. 인터뷰의 전사 내용 외에 연구참여자의 자료가 담긴 문서자료(신문기사, 웹사이트, 기사자료 등), 저서, 기관홈페이지, 홍보 브로슈어, 메모 노트 등을 분석하기 좋은 상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개방 코딩(open coding)단계이다. 개방 코딩은 자료를 읽으면서 중요한 자료에 명명하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다. 정리된 자료들을 그동안 작성한 메모내용과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었다. 의미 있는 진술을 뽑아 일정한 법칙을 찾으면서 표시해 두거나, 떠오르는 개념이나 생각들을 적었다.

셋째, 범주화 단계이다. 개방 코딩 이후 비슷한 이름으로 붙여진 자료들을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그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다. 범주가 형성되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어떤 공통된 범주로 구성되어 하위 범주의 속성이 형성될 때까지 지속하였다. 범주화 작업을 할 때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자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 간의 관계를 연관 지으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주화가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 코딩 전 단계의 원 자료와 비교하였다(Merriam, 2009). 범주 확인을 통해 구성된 범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새롭게 재발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자료의 가치중립적 전달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삶이 재구성되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되어진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김영천, 2013: 224). 이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살아온 삶의 실재는 알 수 없고, 연구참여자의 재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만 수용하고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수많은 과거의 흔

적과 경험들 속에서 연구자의 질문과 의도에 따라 재생된 이야기이므로 경험을 해석하는 연구자와의 협동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Harnett, 2010: 162).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사용한 본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다양한 해석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주관적 의미의 상호교섭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료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게 된 녹취록은 모두 총 글자수 68,520개, 총 문장수 2,456개였다. 이 중에서 유의미한 분석을 가져와서 논문에 인용된 문장 수는 총 1,372개다.

심층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록과 녹취를 병행하였다. 프로그램진행 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한다.

4. 연구 윤리

연구윤리는 윤리학에서 다루는 윤리적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별히 질적연구는 기관생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참여자가 있는 현장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참여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둘째, 질적연구에서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 가능해야 한다. 셋째, 질적연구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연구로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속한 공간과 참여자의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형성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것을 찾아내고 해석하여 추상적 개념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

자의 대화나 긴밀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일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로서 그들이 외부 공개를 꺼리는 비밀을 보장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검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김영순 외, 2018: 89-91).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녹취 등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연구 중 중도이탈의 선택적 자유에 대해 설명하여 서면동의를 얻었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 위험, 이익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 개인의 정보 및 비밀 보장, 녹취록 등 연구 자료에 관한 보존 연한에 관련한 사항, 모든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본 연구의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연구결과는 출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기입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적음을 고지하였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은 없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로 1회에 상품권 3만원을 증정했다. 심층인터뷰를 1명당 2회 진행하므로, 1명당 사례는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에 대하여 크레스웰(Creswell)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유기웅 외, 2012: 315). 첫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기술 내용을 진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연구자가 정확한 결과를 얻어 내려는 연구 가치의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학자들마다 관점과 맥락에 따라 타당성에 관한 용어와 전략을 제시한다. 넷째, 질적 연구의 신뢰도는 일관성과 관련되므로 여러 유형의 질적연구와 접근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먼저 삼각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참여자가 인터뷰에서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므로, 구술자료 외에 연구참여자가 집필한 서적, 작성한 글, 인터뷰 기사 등을 대조하며 사실 확인을 실시하였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로 구체적인 년도나 일자를 잘못 이야기한 경우에는 보정 작업을 거쳤다. 또한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1학기 동안에 지도교수와 학위 논문 작성자들간의 콜로키움에 참석하여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갔다. 아울러 본 연구는 2017년 11월에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71010-6A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비밀유지와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계획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검증받았다.



IV. 타자성 형성 과정의 내러티브

레비나스에게 시간은 주체가 홀로 경험하는 사실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자체이다. 타자성은 자아 또는 주체의 지향적 활동에 의해 인식되고 구성되지 않는다. 타자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오고 대답의 짐을 지우는 비밀스러운 존재이며 이로써 자아는 지극히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타자와의 응답적 윤리관계에 들게 된다(레비나스, 2001). 본회퍼는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이해하며 윤리의 문제를 인간의 삶의 역사성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선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삶의 개별적인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인간, 사물, 제도, 권력과 연결된 살아있는 조건들 가운데서 제기되고 결정된다(본회퍼, 1992: 245).

고재길(2010)의 연구에서도 본회퍼에게 선의 형성에 대한 질문은 한 개인의 구체적인 윤리적인 삶에 대한 질문이라고 밝힌다. 선의 문제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윤리적인 삶의 문제로서 그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질문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자를 현실적이고도 윤리적 차원에서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생애사의 영역에서 가장 의미 깊게 탐구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직업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 경험의 시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그 경험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역사·지리적 영향력을 탐구하는데 유용하다.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의미인데, 의미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경험할 때 생겨난다. 이때의 경험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Bruner, 1986).

따라서 경험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연구참여자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참여자가 나름대로 평가하여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연구자가 해석해 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유철인, 1998: 187).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이주민 기관 재직 목회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전사자료와 그 외 기관 간행물과 기사 인터뷰자료, 저서 등을 가지고 그들의 타자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적 사유를 이주민 기관 재직 목회자의 생애사에 연장 또는 확장시켜, 생애사와 타자성의 접점을 각 연구참여자별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어떤 계기로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처음 이주민을 접하게 되었으며 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타자성을 만나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어린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대학 시기,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로 나누어 시간에 따라 생애를 구분, 그들이 특별히 기억하고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연구참여자 A : 민중신학의 실천가

연구참여자 A는 민중신학의 실천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애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민중신학을 실존적으로 배우고, 여러 모양으로 실천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A의 연대기 중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참여자 A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 체험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슈바이처, 여성, 노동자, 예수 콤플렉스
청년대학시기	1971년 대학 입학 군사독재시절을 온몸으로 겪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이주민” 생활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남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	1981년 출옥 후 민중신학을 접하다 조지송 목사를 만나다 1984년 민들교회 창립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2005년에 다문화센터 최초 설립, 섬김과 나눔의 집 생명마을만들기와 삼각연대공동체운동 민중신학과 민중의 구원을 위하여

1.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1)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 체험

연구참여자 A는 3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 둘째여서 안정적인 위치는 아니었다.

“원가족, 3형제 중에 둘째예요. 우리 집안은 광산 김가. 옛날에 왕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몰락한 선비 집안이었죠. 일제시대 때 시골에서 농사짓는 가족이 있었어요. 태어나기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어머니 쪽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 지내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는 곡성군 교육감이셨으니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둘째니까 외갓집으로 많이 보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외갓집에 가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 외할머니는 교회를 7개나 개척한 전도사였다. 뿌리가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얻게 되었다. 외갓집의 경험이 연구참여자 A의 신앙에 처음

으로 영향을 주었다. 연구참여자 A는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어서 나은 경험이 있다. 이를 신앙 체험이라고 회고한다.

“외할머니가 개척교회를 7개나 한 전도사였어요. 뿌리가 깊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 쪽 가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본가에서는 천덕 꾸러기였고, 외가에서는 환영받는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어요. 기억은 곡성군 안에 있는 교회를 짓는데, 현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 벽돌 한두장씩 날라준 기억이 나요. 어려서 체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해서 나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꼭 신앙체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외갓집의 경험이 첫 번째 나를 신앙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초등학교부터 광주로 나갔다. 학창시절에 전교에서 1,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는 광주로 나가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모든 본거지가 광주로 옮겨졌어요. 세 살 차이나는 형이 광주로 가면서부터 본거지가 옮겨진 것 같아요. (중략) 아무튼 나는 둘째로서 본가에서는 안정적인 위치가 아니었어요. 공부는 뒤 잘 해서 1,2등을 했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2)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연구참여자 A의 아버지는 교사였는데,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교육위원까지 역임했다. 교육위원하기 전까지는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아버님이 원래는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글을 잘 써서 언론계에 왔다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교육위원까지 했어요. 교육위원 할 때는 직업이

없이 있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져서 어머니가 장사, 다방을 운영했어요. 나중에 음식점점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어릴 때 꿈이 군인이었는데, 아버지가 고1 때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가 바뀌었다.

“어렸을 때 꿈은 군인이었고 육사 갈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고1 때 돌아가셨어요. 그 때 형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상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했어요. 정치학 쪽으로 교수가 되자 싶어서 연세대 정외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사실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통제가 심했지만, 둘째라는 이유로 형과 비교해서 더 많은 배려를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사실 엄격했어요. 집과 학교 외는 못 다니게 통제가 심했는데, 나에게도 약간 배려해주셔서, 형이 너무 고지식하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조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나는 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대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그 중에서 연대를 가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돌아가실 때 하셨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시자, 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그래서 대학생 시기 때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도 술을 안 마시는 독특한 학생이었고, 오히려 목사가 되어서 노동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또 아버님이 워낙 술과 담배를 좋아하셔서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래서 술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술을 안 마신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목사 되어서 노동자들과 같

이 지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거칠고 자유분방한 때는 술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3) 슈바이처, 여성, 노동자, 예수 콤플렉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생애사를 회고하면서, 자발적으로 몇가지 콤플렉스를 이야기했다. 이러한 콤플렉스가 목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가장 먼저 어렸을 때 읽었던 슈바이처 위인전이 슈바이처 콤플렉스로 작동했다.

“사실 슈바이처 이야기를 읽었어요. 슈바이처가 동네 아이들과 싸움 하다가 밑에 아이가 집안 환경만 나쁘지 않았다면 너에게 안 진다는 항의를 받고 슈바이처가 일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도 솔직히 있어요. 제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데, 군인 정신으로 굳세게 밀고 간다며 강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려운 사람, 부탁하는 일을 거절 못하고 내 것을 다 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내 동생을 때린 사람을 내가 때린 적이 있었는데, 슈바이처 생각이 나요. 슈바이처 콤플렉스예요. 슈바이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는 이미지가 저에게 남아 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강렬하다. 어렸을 때 슈바이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지 못한 것이 콤플렉스가 되었다. 이어서 여성 콤플렉스도 있다고 말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기억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게 강단이 있는데, 어찌다 십년에 한번씩 느끼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여성 콤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몸쓸 짓을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체육대회 때나 여장을 하면 내가 앞장섰어요. 어머니가 그런 것도 잘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아들만 셋 키우면서도 여자 꾸며주는 것을

잘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가장행렬을 하는데, 제가 여장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콤플렉스가 사실 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남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여성 콤플렉스가 있다.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때린 기억이 가끔씩 떠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으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 콤플렉스가 있다. 여성이라는 타자에 대한 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참여자 A는 체육대회 때 남자들이 여장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앞장섰다. 여자 셋을 키운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서 거리낌 없이 여장을 하였다. 여성 콤플렉스에 이어서 노동자 콤플렉스와 예수 콤플렉스가 있다고 했다.

“콤플렉스부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내 목회나 선교에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나는 목회하려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자면 기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자기를 성격이나 경험에 맞추어 디자인 하면 좋겠다. 정리를 해야하는 마당이니깐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 콤플렉스가 있다면 찾고 보완할 시스템을 찾아야 했는데, 부족했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 콤플렉스예요. 노동선교를 하게 되면서 내가 왜 노동자로 태어나지 않고 지식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콤플렉스가 나한테 있어요. 예수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닮고 싶다는 것도 느껴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의 목회와 선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콤플렉스들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 콤플렉스와 예수 콤플렉스다. 노동 선교를 하면서 타자를 깊이 만나다 보니, 노동자로 태어나지 않고 지식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나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자 중심적 사고를 하다보니 예수 콤플렉스도 생겼다. 예수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콤플렉스가 근본적이다. 이러한 콤플렉스가 연구참여자 A의 타자성 형성에 깊은 영향

을 끼쳤다고 사료된다.

1.2. 청년대학시기

1) 군사독재시절을 온몸으로 겪다

연구참여자 A는 고등학생 시절을 전라남도 광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광주는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학생 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일깨울 수 있는 고등학교 환경에서 자랐다. 피 끓는 학생으로서 바른 길을 본다는 역사의식이 형성되었다.

“제가 광주일고를 나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학생운동 일제시대부터 학생운동을 했던 역사가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광주일고 출신들이 현 정부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연대 정외과 출신도 장관, 국회에 많이 있어요. 아무튼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학생운동의 전통, 학생 관련된 시비를 보면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피끓는 학생이고 바른 길만 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아버지의 배려로 체험학습과 공동체 훈련을 하였다. 평소에는 관리 감독이 심했는데, 방학 시기에는 체험학습을 많이 경험하였다.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배웠던 공동체 의식이 목회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창극을 좋아했던 어머니 덕분에 창극단 공연을 많이 보았는데, 이것 또한 노동운동을 할 때에 풍물놀이패를 만드는 일 등에 영향을 끼쳤다. 연구참여자 A는 이처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이 나중에 목회 철학과 타자성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아버지의 배려가 나에게 준 특혜가 뭐였냐면, 평소에는 관리 감독 감시가 심했는데, 방학 때는 임해훈련, 바다 체험학습에 나를 반드시 보내줬거든요. 수영도 배우지만 주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죠. 거기서 배웠던 것이 목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내 몸에 많이 배

어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창극을 좋아하고 전통 문화를 좋아하셨어요. 창극단이 있었어요. 창극단이 오면 반드시 데리고 가서 보게 해준 것이 내가 노동운동을 할 때 풍물놀이 패를 만들고 조직 운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했던 것이 다 나중에 내게 활용이 된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1971년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입학 후에 대학생들이 만든 한국문제연구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 선배들의 영향으로 1학년 때부터 교련 반대 투쟁 시위를 많이 하게 되었다.

“1학년 때 교련 반대 투쟁하던 때여서 시위를 한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1971년에 77일 동안 데모를 했더라구요. 경찰에서 나를 주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씨클에서 책 읽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 드러내는 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선배들이 집회 시위하는 거 많이 배우고. 첫째 해에 위수령, 둘째 해에 계엄령이 있었죠. 선배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서 씨클이 해체되고, 외롭게 남은 몇몇 사람들이 계속 운동을 해야한다고 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홍사단에 가서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죠. 꾸준히 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교수가 꿈인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시대가 그를 평범하게 두지 않았다. 군사독재 시절에 비판적인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동아리와 여러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념적인 무장을 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하였고, 고문의 후유증도 남았다. 고문의 후유증이 60대가 된 지금 나타나서 건강이 좋지 않다.

“어느 곳에 가서도 민들레처럼 뿌리 내리려고 했고, 그러다가 김대중씨 사건 같은 경우 사실 잘 몰랐는데 3학년 때 누군가 기획했다고 보는 유인물 뿌렸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서대문경찰서에서 2주 동안 고문 당했어요. 선배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나한테는 말 안 해줬지만 나는 관계가 없었는데, 학교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붙잡혔어요. 양쪽에서 많이 고문을 당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석방을 했는데 몸을 많이 다쳤어요. 한 학기동안 휴학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때 고문의 후유증이 60대가 되니 나타나서 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보여요. 일을 젊었을 때처럼 못 하고 있구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4학년 1학기 때(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겪었다. 맞물려 진행된 학교 개혁운동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반정부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험하고, 긴급조치가 발령되자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4학년 1학기 때 민청학련 사건이 났어요. 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났는데. (중략)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학교 개혁운동에 돌입하게 되어요. 총장 퇴진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는데, 총학생회는 설득 당해서 멈췄지만 나는 끝까지 총장님 물러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중략) 반정부 투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학교 개혁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정부 개혁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때는 일반 씨클은 다 주저앉았고 대중 운동으로 확산되었죠. 나중에 긴급조치가 나오고 해서 구속됐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대학생으로서 격동의 시절을 겪으며, 지난 과거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었다. 덩덤하게 묘사하는 생애사적 사건이 현재의 타자성에 스며들어 있다고 사료된다.

2)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이주민’ 생활

연구참여자 A는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다녔고, 대학은 서울에서, 군 생활은 강원도에서 지냈다. 감옥에 다녀온 후에 자리 잡은 곳은 충청도였다. 이렇게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이주민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다닌 것은 광주에서 다녔어요. 대학은 서울로 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강원도로 갔죠. 그리고

돌아와서 5.18을 겪고서 감옥살이를 하고, 두 번이나 했는데, 군대를 갈 때도 학생운동 하다가 잡혔죠.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되서 군대로 끌려갔어요. 군대는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전반기 훈련 딱 끝나니까 함께 훈련 받던 사람들 속에서 몰래 나를 빼내서 밤에 전방으로 최전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이 강원도 춘천 양구였는데, 아무튼 군대 생활을 그 곳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중략) 그리고나서 외가가 있는 대전으로 오게 돼요.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나를 쉬게 해준다고 오라고 해서 머무르게 돼서 개척교회다보니까 도와주다가 신학을 하게 돼요. 대전신학교. 그런 식으로 나는 경상도만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가 경상도만 제외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이주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3)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남

연구참여자 A는 재판을 받고 군대에 끌려간 후에 전역을 했는데, 복학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시골에서 선생님 일을 하다가 1980년에 복학했는데, 5.18 사건이 발생했다. 복학생은 조용히 있자는 원칙을 지켰으나, 사태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복학생 대표가 되면서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다.

“재판 받고 8월에 군대에 끌려갔죠. 군대 3년 마치고 전역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복학을 안 시켜주고, 그 사이에 시골에 있는 고등공민학교에 가서 2년간 선생님 일을 하죠. 총각 선생님을 했는데, 79년 말에 복학하라고 연락 와서 방학 때 바로 준비해서 80년에 복학했죠. 처음에는 다들 하지 말자, 복학생은 조용히 있자는 원칙 지켰는데, 사태가 커지자 할 수 없이 복학생 대표가 되어서 나섰죠. 광화문에 나가는 시초가 연대였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시위가 확산되어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연구참여자 A에게 현상금까지 걸렸다. 현상금 수배 중에 친척 집에 숨어 다니다가 순천에 있는 외삼촌 교

회와 사택과 감옥에서 성경책과 본회퍼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예수를 만났다.

"저는 계엄령 철폐 위해서 했는데, 중단하자는 결론 낼 때까지 했죠. 연대를 대표해서 나에게 수배를 내렸어요. 나는 현상금 500만원으로 수배가 되었어요. 첫날은 작은 아저씨 택으로 가고 그 다음날은 선배, 친척집에 숨었는데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째 있으면 다들 공포감에 떠는거예요. 할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순천에 있는 외삼촌네로 갔어요. 순천에 있는 교회와 사택에서 지내게 돼요. 거기서 성경책 1독을 하고, 대망이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집도 1독을 하게 되고, 본회퍼의 책도 보게 돼요. 이 세 책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30여일을 살았다. 그곳에서 조직 폭력배와 소매치기단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타자들의 생활 방식을 보았다.

"그렇게 있다가 붙잡혀서 서울로 이송되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죠. 대부분 삼청교육대에 보냈는데, 나는 특별대접을 받았는데, 학생운동 거물처럼 보여서 나를 함부로 못하고, 유치장에서 30여일을 살았어요. 거기서 여러 좋은 경험도 많이 했구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조폭과 소매치기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게 됐죠. 그 사람들이 점조직이고 실제로 자기들과 영향 미치는 제도권과 연관되었고, 그들은 항상 감옥살이 할 준비가 되어있고 두목이 누군지 모르고 엄청 호화로운 생활과 밀바닥 생활을 모두 경험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감옥에 있을 때 친구가 넣어준 본회퍼 책을 많이 읽었다. 초등학교 때 외가에서 배웠던 신앙이 대부분이었는데, 본회퍼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본회퍼의 신학사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며 열심히 읽었다. 고난당

하는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책을 통해 만났으며, 감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옥에서 죽은 본회피와 묘한 일치감을 느꼈다.

“그 당시에 감옥에서 본회피의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넣어준 친구 덕분에, 신앙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외가 다니며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자주 못했는데, 연대가 미션스쿨이다보니 어렸을 때 익혔던 선과 악 등에 대한 내용이 성명서 초안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경구절을 꼭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는 아니었어요. 교회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그렇다고 내가 신앙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본회피를 보면서 이거 좀 다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신의 세속화 등 이런 책들을 4~5권 봤단 말이죠. 특히 거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감옥생활을 하다 보니, 본회피가 감옥에서 죽은, 묘한 일치감 같은게 생겼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감옥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A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타자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1.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1.3.1.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초기

1) 출옥 후 민중신학을 접하다

연구참여자 A는 1981년 1월 말에 출옥 후 대전에 왔다. 감옥에서 동상이 걸렸는데,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모부가 서울보다 따뜻한 대전으로 와서 쉬면서 요양을 하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이모부 교회 건너편에 있던 대전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81년 1월 말에 석방되어서 대전에 왔어요. 이모부님이 대전에서 목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분이 끊임없이 나를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나를 부른 거예요. 감옥살이 하다보니 몸에 동상이 많이 걸렸어요. 서울보다 대전이 따뜻하니까 요양하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놀았죠. 한마디로 쉬었죠. 바로 건너편에 대전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나를 그쪽으로 몰았던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전도사 정도 되는데 전도사는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신학교 가보라고 했어요. 할 일도 없는데 가게 되었죠. 지식은 없는데 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교회에서 쉬고 있는 연구참여자 A는 남들이 볼 때 전도사처럼 보였다. 주변에서 은근히 신학교에 가라고 몰아서 이모부 교회 건너편에 있는 대전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대전신학교 교무과장은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연구참여자 A에게 민중신학에 대한 책을 소개해주었다. 추천 받은 민중신학 관련 서적을 방학 중에 하루에 한권씩, 모두 60여권을 단숨에 읽어버렸다.

“전주에서 잡지를 내시던 분이 떠밀려서 교무과장으로 왔어요. 그분이 성격이 강하고 진보적이고 학생들과 대화가 되는거예요. 나를 만나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강사들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니까 이분이 사회경제사적 관점으로 읽는 책들, 민중신학 책들을 소개하셨어요. 방학 중에 그냥 읽어서 하루 한권씩 읽었어요. 60권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학기 때부터 신나게 공부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민중신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얻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A는 신학교에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꾸준히 읽었다. 책을 많이 읽었던 이유였는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차석을 차지하였다.

“3학년 겨울에 학생들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 공부를 하고 싶다고. 소그룹 만들어서 공부 했어요. 4학년 되어서 서울에 목연과정 올라가기

위한 공부도 해야 되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면서 소모임이 만들어진거죠. 입학 시험을 봤는데 나는 신학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아무튼 내가 차석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타자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지송 목사를 만나다

연구참여자 A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특히 민중신학 서적을 주로 접하다 보니,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현실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도 대형교회에 가면 배울 것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대형교회를 탐방하다가 우연히 영등포산업선교회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공부를 한학기 더 하고 나니까. 생각은 진보적이었는데 현실과 연결이 안 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때까지 나는 대형교회에 가면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순복음, 명성, 영락, 소망, 경동교회 등을 가보고 다 돌아다니는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1학기 공부가 다 끝나고 10월 초인거 같은데, 영등포 산선을 누가 이야기 한 거예요. 처음으로 듣고 갔어요. 그 때 인명진 목사가 설교 하는거예요. 인명진 목사의 설교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 제일 참신했어요. 아! 대형교회에 없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성문밖교회 탐방을 계기로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훈련 받았다. 인명진 목사를 모델로 삼고 있다가, 스타일이 전혀 조지송 목사를 만났다.

“마침 그 때 영등포 산선에서 훈련을 모집하는 데 같이 할 생각 없냐 해서 같이 하자. 7월 중순에 산선에 들어간 거예요. 인명진 목사에게 굉장히 감동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제일 먼저 결별했을 거예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되었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결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나에게 인명진 목사가 최고의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지송 목사를 만났는데,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지송 목사에게 마음이 더 기울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계속 나는 현장에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공장 현장에서 1년동안 노동 훈련을 하면서 조지송 목사의 지도를 받았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와 선교를 구상하였다. 공장 훈련도 하게 되었다.

“공장에서 계속 있었죠.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나오면 조지송 목사님께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받았고, 딱 1년동안 현장에 있었죠. 처음에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드는, 용어가 뭐였더라. 사출. 플라스틱 사출을 했어요. 그만두고 그라인더 가서 일도 하고, 마지막에는 프레스에 가서 일도 하고. 어쨌든 조직경험 가지려고 애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조직경험까지 가지려면 오래 있어야 되는데, 노동체험만 충실하게 하라고 해서 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공장훈련을 하면서 연구참여자 A는 노동자로 사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가 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때 당시에 권고 받기를 나는 노동자로 사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거다. 목사로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훈련 시스템 속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한거죠.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죠. 인명진 목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고. 그런데 조지송 목사님은 노동자로 있어도 좋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둘 사이에서 합의 본 것은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가 되자. 합의가 되었고, 어떻게 할꺼냐 논의하기 시작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조지송 목사와의 만남은 이후 개신

교 성직자이자 민중신학자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타자성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교회 창립

연구참여자 A는 공장 훈련 후 노동자와 함께 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나서 지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대전, 광주, 서울 등을 고민하다가 가장 낙후된 곳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대전으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연고지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는데 태어나진 않아서 연고지라고 하기엔 쉽지 않은 곳이고, 그 다음에는 광주나 서울이다 그 생각을 했다가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죠. 가장 낙후된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곳이 좋다. 관계가 전혀 나쁘지 않으면서도 낙후된 곳은 대전이다.”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1984년 9월에 대전시 대화동 근처에서 청년들 목회 운동고 야학 운동 등을 시작했고, 1987년 노동자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원래 여기 오면 산업선교 활동 속에서 노동선교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84년에 개척을 했죠. 처음에 대화동에서 떨어진 동네에서 시작을 했고. 장청, 청년들 목회운동을 시작했고, 장청 운동과 대학에서 야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1년만에 가까운 교회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대화동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1년만에.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교회 겸 사택으로 쓰고 있으면서 많은 일을 했죠.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고 야학 하면서, 87년 노동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참여자 A 2018.1.3)

창립할 때부터 이주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교회를 하다가 주민문제를 다루자고 하여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최초로 시작했다.

“그러면 이주민 선교는 언제 하게 되었냐. 92년부터. 노동교회가 88년에 민중교회로 바뀌어야. 노동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주민문제를 다루자. 보통 센터 형태로 갔는데,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노동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선교원, 탁아소, 어린이집의 전신 있죠. 그것도 하고, 공부방을 제일 먼저 대전에서 시작했구요. 우리 역사 속에서 자랑이라면 어린이집을 우리가 최초로 법제화하다시피 했고, 헌옷 파는 녹색가게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

그 이후에 주말진료소, 공부방, 무료급식소, 종합복지관 등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주말 진료소. 충남대 교수 네댓분하고 최초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많이 했죠.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법제화를 우리가 했구요. 무료급식소도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중략) 이처럼 우리가 맨 먼저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법제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섬나의 집이라고 이제 종합복지관 형태인데, 복지관도 우리가 모델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1992년에 우연히 이주민 노동자를 만났다. 이주민 노동자를 무조건 영접하여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1994년에 산업연수생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주말진료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92년도에 우연히 얼굴 새까만 노동자를 만난거죠. 그 친구를 성탄절에 초청했어요. 그때부터 불법체류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무조건 영접하여 친절하게 해주고 한국어 가르쳐주었어요. 그런 일 하다가 94년에 산업연수생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94년에 주말진료를 하던 충남대 교수들이 기독교인들이 여섯분 몰려와서 같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하였다. 자원봉사단이 50명 모집이 돼요. 막강한 자원봉사단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지역을 결정하고 어떠한 활동을 시작하는 선택의 순간에도 연구참여자 A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곧 타자성이 형성되는 과정이자 타자성이 표출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3.2.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연구참여자 A는 가장 어려운 곳, 취약지역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다. 공단에 가서 만난 이주민들을 센터에 초대했다.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나그네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본인도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상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우리의 관심은 가장 어려운 곳, 그것을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중략) 92년에 공단에 가서 보니까 새까만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센터에 초대를 했던말이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ngo가 만들어진 것이 1994년이죠. 항상 드는 생각이 나도 나그네다 이방인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거고, 나그네는 나그네끼리 도와야 한다.” (연구참여자 A 2018.1.30)

1) 섬김과 나눔의 집

연구참여자 A는 섬김과 나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섬나의 집'과 '평화의 일꾼 선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주민과 노동자를 섬기고 돌보고 있다. 처음에는 산업선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의 교회로 시작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대전지역 운동 관련된 일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대전NCC(지역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상임운영위원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지도위원, 대전충남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 충남 녹색연합 상임대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 생명마을만들기와 삼각연대 공동체운동

연구참여자 A는 90년대 중반부터 문화선교와 농촌선교를 수행하는 ‘생명마을 만들기’와 ‘농-도-빈 삼각연대공동체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참된 평화와 온 생명을 위하여 ‘생명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시민과 도시빈민과 농민의 자립적이고 생태적인 삼각연대공동체 실현을 통하여 대전지역을 작은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삼각연대 공동체운동을 한눈에 나타내는 관계도는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연구참여자 A의 삼각연대 공동체운동 관계도
(섬나의집 홈페이지)

빈민공단지역과 도심지, 농촌이 서로 노동력, 자원봉사, 농산물공급 등의 활동을 교류하면서 도시민중, 도시민, 농민이 순환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A는 삼각으로 연대하는 공동체운동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민중신학과 민중의 구원을 위하여

연구참여자 A는 민중신학을 기반으로 구원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교회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대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민중신학적으로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과 함께 했던 예수의 부활과 민중의 부활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개념 없이 구원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작업을 민중신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민중이었고, 예수가 민중과 함께 했고, 민중을 대변했고, 그러다가 죽었고 부활해서 민중이 깨어났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과 민중의 깨어남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중이라는 개념이 없이 구원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교리를 나는 안 믿는 건 아니라고요. 믿는 데 그 내용을 달리 하거나 풍성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A의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2. 연구참여자 B : 부드러운 상담자

연구참여자 B의 연대기 중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연구참여자 B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한지붕 스무가구에서 부대끼며 사는 즐거움 중학생 때의 이주민 경험
청년대학시기	변호사를 꿈꾸다 성경공부와 뜨거운 물세례 경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동질감을 느끼다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	10년동안 일반교회 부목사 생활 노숙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발견 이주민선교센터 개척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산업연수생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 이끌어 베트남에 선교센터 설립 카페에서 소통하며 마을공동체를 꿈꾸다

2.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1) 한지붕 스무가구에서 부대끼며 사는 즐거움

연구참여자 B는 서울 달동네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기는 한 지붕 아래에서 스무 가구가 모여서 사는 환경에서 생활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한 지붕 스무 가구. 공동화장실, 공동우물을 쓰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해서 정착한 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위 달동네 출신입니다.”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이웃끼리 부대끼며 살았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공동우물과 공동화장실이 있고, 방들이 붙어있는 곳에서 이웃 사이에 유대가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웃들끼리 가까이에서 살면서 함께 협력하며 살았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운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집이 다 붙어 있었어요. 공동우물이 있고 공동화장실이 있고 방들이 킁킁히 붙어있는 곳이어서 이웃 간에 유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부부싸움도 제대로 못 해. 싸우면 다 들리니까 다 쫓아와서 말린다고. 주변 이웃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기억이 너무 좋아서.” (연구참여자 B 2018.1.3)

좋았던 어린 시절을 뒤로 하고, 중학교는 천안으로 이사를 갔는데, 연구참여자 B는 가기 싫다며 문고리를 잡고 울기도 하였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리운 고향을 떠나왔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

“서울 떠날 때 가기 싫다고 문고리 잡고 나는 안 간다며 울던 기억이 나요. 동네 사람들도 떠나보내면서 같이 울고. 천안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도 고향을 떠나왔다는 마음이 어린 마음이지만 늘 있더라고.” (연구참여자 B 2018.1.3)

2) 중학생 때의 이주민 경험

연구참여자 B는 천안으로 이사 가서 중고등학교 다녔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주민의 경험을 하였다. 덕분에 이주민들이 겪는 문화충격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시절부터 이주민의 삶을 살은거지. 지금 외국인들이 겪는 큰 문화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빈, 허전함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고. 가난한 어린시절을 셋방 살이, 회사에서 지어준 직원 아파트 이런 데서 살다보니. 청소년 시절에 가난하면서도 주변 이웃들의 유대 관계를 늘 경험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 (연구참여자 B 2018.1.3)

청소년 시절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변 이웃들과의 유대 관계를 경험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B는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도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랐다.

“친구관계도 그렇고. 한쪽으로는 내 고향에서 살 수 없다는 공허함도 있지만 반면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있었던 거 같아.” (연구참여자 B 2018.1.3)

청소년 시절의 생활을 통하여 친구와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타자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습득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냈다.

2.2. 청년대학 시기

1) 변호사를 꿈꾸다

연구참여자 B는 어렸을 때에 변호사를 꿈꾸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마음이 있었다. 누나와 형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좋은 변호사가 되어서 가정 상담을 하며 좋은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고도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는 법학과로 진학했다.

“우리 형제들은, 저는 어린 시절이라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 나왔는데, 저희 누님과 형님은 정규 과정을 못했어. 그래서 형님은 일하다가 늦게 방송통신대에 들어갔고, 누님도 14살때부터 동화약방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제 희망이 사실은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가정 상담. 좋은 가족 만들기. 그런 마음으로 법대를 갔죠.”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원래 서울로 대학교를 가려고 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대구로 가게 되었다.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장학생 자리가 있어서 1980년에 경북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1학년 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4학년 2학기 때에 결혼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귀다가 한동안 주춤하다가 집사람은 졸업을 하고, 나중에 알았지만, 결혼 하기 전에 집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 발령이 나서 경북 상주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군에 나와서 복학을 했지. 고시촌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다가 집사람과 통화하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했어. 집사람이 저랑 동갑이고 집안에서 결혼을 시켜야한다 이래서 한참 선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 때 장인 어르신이 몸이 아팠는데, 살아계실 때, 막내딸이거든. 아내가 빨리 결혼해야 했고, 사람 없으면 나랑 하자 해서, 양가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살에 85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80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데, 법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위에 앞장서게 되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고시 공부를 준비하느라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씨클활동 하면서, 제가 법대생이니까. 법대생들은 늘 어디든 앞에 세우더라고. 특히 저학년들을 앞장 세워서. 영남대 캠퍼스에서 행진할 때 반월동 앞 탑까지 걸어서 오고 최루탄 쏘고 하면 싸악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런 것을 80년대 활동을 조금 했고. 그 이후는 저는 사실은 크게 결혼도 하고 고시 공부도 한다고 하면서 이후에는 활동을 못했어.”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대학생 시기에 책을 두루 읽었다. 사회과학과 문학 등의 책을 두루 읽었다. 데모에 앞장 서기도 했으나, 변하지 않는 상황에 회의를 느끼고, 고시촌에 들어가서 사법 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 읽었지. 사회과학도 하고 문학도 읽고. 그 때는 한완상 교수 책들, 지식과 뭐 윤리 이런 서적. 전환시대 리영희 교수 이런 것들. 제가 80년도에 입학했거든. 광주사태 일어나고 휴교령 내리고 그럴 때 대학 다녔지. 그래서 선봉에 서서 군부독재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할 때였잖아. 한창 데모대에 앞장 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동아사 골짜기 고시촌에 처박혀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가 다닌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어서, 반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믿음은 없었지만, 대학교 입학 후 모태신앙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다가 붙잡혔다.

“저는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 반강제로. 사립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 복음을 접하기는 했는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 대학 들어와서 아내가 모태 신앙이고 성악 전공이어서 교회에서 늘 솔리스트하면서, 주일은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가정이라 공예배는 안 빠져요. 수요일날도 갑자기 데이트하다가 말도 안하고 사라진다. 수요기도회 참석을 안하면 오빠한테 엄청 혼났다. 집사람은 굉장히 착실한 신앙인이었고.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다가 붙잡혔지.” (연구참여자 B 2018.1.3)

2) 성경공부와 뜨거운 물세례 경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받기 전 단계인 학습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결혼을 안 시켜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학습을 받았다.

“결혼을 하려고 하니깐, 합동측 교회였는데, 최소한 학습을 안 받으면 교회에서 결혼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한 학습을 받았지.” (연구참여자 B 2018.1.3)

그렇게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기존교회는 옥죄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B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경직된 교회의 분위기에 불만이 있었다.

“그러다가 합동측 교회, 집사람 나갔던 교회에 한동안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거야. 너무 경직되어 있고 사람을 옥죄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하는

가 불만이 많았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를 만난 교회 목사들은 하나같이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추천했다. 변호사 고시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 목사 고시를 봐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이 연구참여자 B에게 신학교 입학에 종용했다.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는거야. 당신은 고시 공부할 사람이 아니라, 목사고시를 봐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짜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아닙니다, 남편은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신령한 목사님들인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상주 시내에서 몇군데 옮기면서 목사님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닦달하더라고.”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성경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독서 모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을 읽었다. 성경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두 번만에 합격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건가 하는 느낌? 그러면서 법서를 점점 뒤로 물리게 되더라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첫해는 성경고사를 보는데 문제가 무언지 모르겠더라고. 첫해는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신대원에 간거죠.”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성경공부를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만난 교회 목사가 성경을 원어로 가르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다른 목사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책을 보자고 했는데, 연구참여자 B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공부를 시작했어. 목사님이 성경공부를 히브리, 헬라어를 가르치는거야.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인도를 잘 받은거야. 첫 만남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적용하면서 보니까 좋더라고. 일반 교리 공부가 아니고. 성경 원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구나 맛을 본거죠. 그 목사님과 공부하다가 교회를 다른 데 옮겼는데, 그 목사님은 불트만 계열 쪽에 굉장히 심취하신 목사님이 그런 신학 속에 공부하시더라고. 저를 또 끄집어 땡겨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당시에 세례도 안 받고 신학 공부도 안했는데, 어려운 책을 보고 토론하자고 하는거야. 그때 제가 제대로 알겠어. 속으로 자존심은 있어서 책을 외우다시피 해서, 잘 이해도 안 되는 거, 양식비평학적 관점으로 보는 성서 해석을 신학 하기 전부터 교회에서 그런 공부를 했다니까. 저랑 같이 하던 분들은 수십년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었고, 저는 젊은 애 아빠였고 백수였지.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된거야.” (연구참여자 B 2018.1.3)

어려운 신학 서적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변화되었다. 어느날 문득 세례를 받고 싶어졌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졌다. 세례를 받았는데, 물이 원래 뜨거운 물인줄 알았을 정도로, 미지근한 물이 뜨겁게 느껴졌다. 이른바 뜨거운 물세례라는 신앙 체험을 한 것이다.

“갑자기 세례 받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고 그러더라고. 저는 세례받을 때 세례 받는 물이 뜨거운 물인줄 알았어. 머리털이 빠지는 듯한 느낌, 뜨끈뜨끈한거야. 나중에 알고봤더니 그냥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에 재학할 때에도 독서토론 씨클을 만들어서 꾸준히 책을 읽었다. 여름에는 농촌 활동을 하였다.

“신학 입문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는 씨클을 하나 만들었어. 독서토론을 통한 사회봉사. 뭔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앎을 실천해야 한다는 영지회 라는 씨클하나 만들었어요.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 매달 독서토론하고 여름에는 농촌 농활을 하고 학창시절을 보냈지.”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이 있는 서울과 집이 있는 대구를 오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도 매주 책을 열심히 읽었다.

“결혼 이후에 가니까 매주 내려가야 하잖아. 엄청나게 힘들었어. 금요일에 학교 마치고 내려가고 주일에 사역 마치고 다음날 새벽같이 올라오고. 3년동안 매주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는 공부를 차 안에서 합니다. (중략) 기차를 4시간 5시간씩 타니까. 거의 책 한권을 내려오면서 다 띠고, 다 보고, 레포트 많이 쓰잖아. 그런 시절을 보낸 것 같고.”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성경공부와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신학 관련 서적을 열심히 읽으면서 타자를 위한 경험과 신학을 형성하였다.

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동질감을 느끼다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에서 농어민선교연구회에 가입했다. 다른 동아리보다 연구참여자 B의 영성에 맞았고, 암울한 농촌 현실에 함께 분노하는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몸과 삶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B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농어촌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토착 신학을 접했고, 민중신학적인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장신대원에 동아리가 있잖아. 마지막에 간 데가 농어민선교연구회야. 농선을 딱 들어갔는데, 뭔가 내 영성에 뭔가 딱 맞는거야. 그 당시에 농촌 현실이 굉장히 어려웠어. 우루과이라운드 체결되고 개방되면서 농민들 자살하고 굉장히 힘든 때였어. 그런데 농선에 가니까 이사람들이 딱 암울하잖아. 신학생들 자체가 울분과 분노가 그득하더라.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신학을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농선에 들어갔어. 농선 활동을 하고 지금은 이주민 활동을 하지만 아직도 빗진 마음이 있어. 농목회에 이름은 걸쳐 놓고 모임은 가끔 가지만, 아마도 제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동질감을 느껴. 오히려 거기서 내가 위로를 느꼈던 것 같아. (중략) 그러면서 농선 활동을 했는데. 농촌의 현실, 농업 경제 상황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명모 이런 분들의 영성도 공부했던 것 같아. 토착 신학, 농선 활동을 통해서 논리적인 신학체계를 공부했다라기 보다는, 민중신학적 관점의 신학적 훈련이 쌓아진 게 아닌가.”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학과 수업보다는 농촌 선교회 동아리의 지도교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신학함이나 좋은 교수들의 인격을 배웠다.

“학과 공부가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박동현 교수 아시잖아요? 박동현 교수가 학교에 오시면서 농선의 지도교수였어. 박동현 교수 자체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있잖아.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도 좋았고. 그래서 구약 원전 수업을 들었어. 예레미야 원전을 듣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정신. 강사문 교수 같은 분들의 좋은 정신이 남은 것 같다.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것이 신학함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질감 느꼈다.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신학에 매료될 느꼈던 것이다.

2.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2.3.1.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초기

1) 10년 동안 일반교회 부목사 생활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 졸업 후에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였다. 대구 지역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교역자 생활도 하게 되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일반교회 부목사,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아마도 신학 과정 속에서 그런 학습 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체험함을 통해서 된 게 아닌가.” (연구참여자 B 2018.1.3)

“제가 세례받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거기서 교육 전도사 하고, 울산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교회에서 그런 과정을 모두 겪었어. 한 교회에서 집사하고 반사하고 교육전도사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긴.”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는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199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10년 정도 일반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후에, 2003년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일반교회에서 한계를 느끼고, 가장 낮은 사역지로 몸을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신학대학원 동기인 박순중 목사가 있었던 노숙인 쉼터에서 남자 노숙자 생활 시설 상담일을 2001년에 시작하였다.

“울산 양정교회라는 곳에 가게 된거야. 일반교회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2년 있다가 부산진교회에서 3년동안 하다가, 대구 칠곡교회 부목사 1년 2개월 마지막 하고 이 일로 오게 된 것이죠. (중략) 교회를 개척한 것은 2003년, 사역을 그만 둔 것은 2001년. 일반교회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존 교회를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다, 내가 이룰 수 있는 한계, 내가 꿈꾸는 교회 모습,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는 답답함이 늘 있었는데. 신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보니 몸에 일반교회 목회자의 틀이 형성되는 저 자신이 굉장히 싫더라고.” (연구참여자 B 2018.1.3)

“그래서 가장 낮은 사역지로 내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노숙자 생활 쉼터였어.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인 박순중 목사가 먼저 여성 노숙인 쉼터에 있었고, 남자들만 있는 노숙자 생활 시설 상담 실장이 비어 있어서, 제가 그 자리로 사회적 약자 사역을 시작한거죠. 그때가 2001년도 였어. 1년 6개월 하고, 2003년 7월까지 하고 일을 그만 두고.” (연구참여자 B 2018.1.3)

박순중 목사의 영향으로 연구참여자 B는 가장 낮은 사역지인 노숙자 생활 쉼터를 접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타자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2) 노숙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발견

연구참여자 B는 2003년에 노숙자 쉼터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노숙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발견했다. 산업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 신고가 안 된 외국인 노동자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등록이 안 된 이주노동자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웠다.

“제가 있던 기관 자체가 상담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중국 노동자를 만났어. 2명을 만났는데, 한명은 산재를 당했는데, 산재 신고가 안 된 친구였고, 다른 한 친구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으로 있다가 회사에서 나와서 소위 불법체류자 미등록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 본인이 2년동안 일했는데 한푼도 못 받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회사에서 폭행당한. 제가 첫 번째 외국인을 본 만난 경험인데.” (연구참여자 B 2018.1.3)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보니,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노숙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3) 이주민선교센터 개척

연구참여자 B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 노숙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부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망이 더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그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개척했다.

“그 순간에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기본은 되어 있는데, 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숙자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보니까 노숙자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사는 주민이 있다는 것, 이주 노동자를 발견하게 된거야. 지금까지도. 노숙자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이주노동자들이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이구나 해서 집중해서 이주민선교센터를 개척했다.” (연구참여자 B 2018.1.3)

마음이 잘 맞는 박순중 목사와 팀목회라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개척했다. 목회와 이주민센터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식 하에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으로 이주민들을 대했다. 하지만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힘든 상황 때문에 1년을 버티기 힘들었다.

“개척할 때 박순중 목사와 팀목회로 시작했다. 목회와 이주민센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 일반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섬기는 선교사역이었다. 사역자들 외에는 모두 이주민이다. 가끔씩 사역자들이 오는데, 1년 이상을 못 버틴다. 사역하는 분들이 다 힘들다.” (연구참여자 B 2018.1.3)

그래도 다행히 박순중 목사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박순중 목사는 현재 베트남인 교회만 따로 목회하고 있고, 센터는 함께 운영 중이다. 함께 오랫동안 일 했던 분들과 활동을 공유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인복이 많아서 박순중 목사와 선교센터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고, 5년 전부터 박 목사는 베트남인 교회로 따로 예배 드리고, 센터는 같이 하고 있고. 그 때 함께 했던 윤일규 목사라고 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10년 넘게 동역한 목사도 있고, 개척 멤버인 이주민이 간사로 함께 일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물론 다른 분들도 사역자로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지만, 함께 오랫동안 있던 분들과 사역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사역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연구참여자 B 2018.1.3)

2.3.2.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연구참여자 B는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대구지역의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3만여명에 이르러 논공, 화원, 고령 등지의 이주노동자를 돌보기 위하여 외국인센터를 설립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법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산업연수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강제 추방 반대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 산업연수생도 노동자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례 이끌어

연구참여자 B는 2004년에 산업연수생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직접 이끌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슈 투쟁을 해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성 역할을 하였다.

“저희들은 저희 기관에서 처음 했을 때가 고용허가제 나오기 이전에 시작했는데, 그 때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어요. 산업연수생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인,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시키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적 차원에서. 물론 노동권도 다 안에 담겨져 있지만. 최저 임금을 적용 안 하시고 임금을 차등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 투쟁을 했죠. 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이런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산업연수생들을 위한 대법원 판결을 이끈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형성되었다.

2) 베트남에 선교센터 설립

연구참여자 B는 2006년 베트남에 하노이선교센터를 설립했고, 네팔, 스리랑카 등에 이주민을 파송했다. (박요셉, “이주 노동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2017.1.26.) 또 다른 이주민으로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중모족이라고 있어. 방글라데시 동쪽이지.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 아니야. 국가는 방글라데시 소속인데, 자치 소수민족인데. 그 친구가 자기 고향에도 너무 힘들고 차별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사역하고 싶다고 준비하고 있어. 작년에 보내려고 하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성경공부 더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어. 생각보다 중국 본토나, 사실 우리 센터에 오는 주류는 중국, 베트남이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 소수민족인 네팔, 스리랑카인들이 먼저 결단하고 가니까.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연구참여자 B 2018.1.30)

10년 넘게 교회에 나오는 이주민들도 있고, 대부분 1~2년만 머물다가 떠난다. 사람은 바뀌지만 상담해주는 내용은 같고 반복되다 보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연구참여자 B는 크게 실망하지 않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데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친구들이 오래 10년 넘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단속 안 당하고, 10년 넘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길면 1,2년 나오다가 계속 바뀌니까. 타지역으로 가든지 고국으로 가든지.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는 속에서 늘 처음 오는 사람 똑같이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느정도 교회에 적응하는가 싶으면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한숨) 크게 실망하지 않고. 뭔가를 막 여기서 이루어갈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빨리 소진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면

서 삶의 자리로 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목표지, 그 이상을 바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연구참여자 B 2018.1.30)

3) 카페에서 소통하며 마을공동체를 꿈꾸다

연구참여자 B는 센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음악회, 미술 전시회 등 활동하며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선한사 마리아인의집,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작은평화의교회를 설립해 20여 년 간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 구제활동을 해오고 있다. 언제 어떻게 후원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감사해야겠죠. 그것조차도. 못내 섭섭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동안 해 오면서 경험적으로도 준비해 놓고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일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확신을 갖고 일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케 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입버릇처럼 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표로서 긴장감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행사 계획을 잡는대든지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필요한 운동을 하는가 고민을 하다보면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강조하면서 저 자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하려고 한다. 센터 운영을 위해서 초심을 잃고 타락하는 모습이 다른 센터에서 보이더라도 연구참여자 B의 센터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초심을 갖고. 그런 교회는 늘 그 상황,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다른 곳에서 시혜적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더 할 사역이 많고, 비 본질적인 부분에 소진하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을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B의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3. 연구참여자 C : 열정적인 조력자

연구참여자 C의 연대기 중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연구참여자 C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어려운 집안 형편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다
청년대학시기	격동기에 사회의식이 생기다 본회퍼 시 ‘나는 누구인가’를 외우다 일반 교회 사목활동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 출입국 직원과 싸우다가 경찰에 소환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우린 잘 있어요, 마석』 책 출판 에과도르 세계이주사회 포럼 참석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3.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1) 어려운 집안 형편

연구참여자 C는 집안 형편이 부유하지 않았다.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겠죠. 올해가 51인데,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연배 높은 분들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으니까. 저도 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적 형편이 쉽지 않았고.”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3남매다. 딸 둘, 아들 하나. 스스로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케이스인데,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좋을 때는 딸을 찾고, 안 좋을 때만 아들을 찾기 때문이다.

“위로 누님이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딸 둘, 아들 하나. 네, 별로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을 때만 장남 찾고. 평소에는 딸만 찾죠.” (연구참여자 C 2018.1.4)

2)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다

연구참여자 C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자수성가하라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다. 부모님의 권유대로 덕수상고를 졸업했는데, 상업 쪽으로 진학하지 않았고, 재수 후에 1987년에 아세아연합신학대에 입학했다. 사춘기 시절에 연구참여자 C는 신앙체험을 하였고, 목회자의 추천과 당시 괜찮은 교수들이 많았던 이유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때는 사춘기 시절 때였으니까,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협소한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목회자가 우상처럼 여겨졌던 거죠. 목회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으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중략)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갈 때는 광나루 장신대를 가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세아연합신학대에 교수님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교수님들 보고서 거기에 들어갔죠.”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꾸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제 나름대로는 중학교 때 쯤 돼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사실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상고를 가서 자수성가를 하라고 부모님의 권유, 그게 마음적으로 청소년기에 아픔도 있고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님 말씀대로 덕수상고를 가서 졸업을 했는데.” (연구참여자 C 2018.1.4)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긴 했는데, 이후에 대학교 진학은 청소년 시기에 일찍부터 꿈꾸었던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3.2. 청년대학 시기

1) 격동기에 사회의식이 생긴다

사회적으로 격동기였던 1987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신앙이 깨지기 시작했고,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일반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재수하고 신학공부를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같아요. (중략)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적인 단편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학풍은 보수적인데. 제가 학번이 87학번인데, 그 당시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격동기를 겪는 때였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학보사로 있으면서 타 대학, 일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 의식이 생기면서 그 때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신앙적인 변화가.”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개신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원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학부와 같은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연구참여자 C가 성공회로 바꾼 계기에는 개신교 교회에서 경험한 ‘성미’ 사건의 영향이 컸다. 교회의 사모님이 아는 형에게 성미 향아리에 있는 쌀을 집으로 옮겨달라고 시켰는데, 그 형은 집에 쌀이 없을만큼 가난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보면서 연구참여자 C는 안타까웠고,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개신교에 있다가 성공회로 온 계기가 있다면, 한번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지금도 개신교는 있을 것 같은데 성미라고. 성미 하잖아요.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도 대학생일 때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성미 향아리에 있는 쌀을 자기네 사택까지 가져다달라고 제 아는 형한테 시킨거예요. 그런데 그 형네는 먹을 게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는데, 그 형이 성미를 가지고 사택에 가는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다.”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C는 격동기에 대학생살을 하면서 사회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C가 다닌 아시아연합신학교에는 보수적인 학풍 때문에 민중신학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 때문에 성공회 교단을 선택했다.

“그 때도 사실은 지금은 상관 없지만 아신대에서는 민중신학 이야기 자체를 못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를 했고 대학원 진학할 때 쯤에 고민을 했죠. 내가 그냥 일반 신앙을 한다고 하면 상관 없지만,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교단이 성공회. 성공회로 들어와도 다 좋지는 않아요.” (연구참여자 C 2018.1.4)

또한 연구참여자 C는 제2의 종교개혁 위해서도 성공회 신대원에 입학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장로교처럼 큰 교단보다는 비록 규모

는 작고 황무지 같은 곳이었지만 가능성이 있는 성공회 교단을 택한 것이다.

“교회가 개혁을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 당시 어린 마음은 한국의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장로교 같은 데는 비만증이 걸려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대신에 성공회는 아직은 황무지이지만, 그래도 개간을 하면 좋은 옥토로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생각으로 성공회를 선택해서 왔고. 온지 17년째 되었고.”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영향도 받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보다가 본회퍼와 문익환 목사의 영향도 받았다.

“아마 목회자가 되는 데에 영향을 제일 많았어요. 7,80년대 교회가 대부분이 부흥운동, 부흥회에 초점이 맞춰진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았지만, 신학대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다기 보다는, 학보사 선배도 있었지만 남미 해방신학이나 국내 민중신학이나 그런 것들을 강의실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도서관 내에서 제가 찾아보거나.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를 접하는 부분이라던가, 본회퍼의 책을 보면서도 나름의 감동이 있었고. 주로 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문익환 목사님 방북해서 돌아오셨을 때 연세대에 가서 보기도 했고. 출감해서 나오셔서 향린교회 처음 오셨을 때도 직접 가서 뵈기도 했고. 그런 방면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다양한 신학을 접했고, 극과 극을 왔다갔다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신학을 형성했다. 보수적이지는 않은 신학을 대학부와 대학원을 다니며 경험했다.

“성공회대 들어가서도 이재정 신부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또 아신대에 있을 때도 보수적인 신학이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울타리 안에서 배울 수 있었으니까. (중략) 옥한흠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해 오셔서 영국의 제자훈련을 가지고 와서 한거니까. 저는 사실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내 나름

대로의 신앙 경험에서는 좋은 경험이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찬 물과 뜨거운 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다.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지는 않은.” (연구참여자 C 2018.1.4)

2) 본회퍼 시 ‘나는 누구인가’²⁾를 외우다

연구참여자 C는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내면의 갈등도 컸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컸고, 본회퍼의 영향으로 굉장한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어쨌든 신앙적인 내면의 갈등이 굉장히 컸던 거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컸고,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용기를 내고 싶은 심리가 있었고.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자기는 죽이고 싶다는 심리도 있었고.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으니까. 저도 그걸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뭐하는 짓거리야, 하나님 똑바로 믿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본회퍼를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굉장한 괴리감, 현실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극복해내면서 겪는 갈등에 공감

2) “나는 누구인가?” (에버하르트 베트게 지음, 김순현 옮김, 『디트리히 본회퍼』, 복있는사람)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 어찌나 자유롭게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 어찌나 한결같고 병글거리고 당당한지 /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렵고 병약한 나 / 목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 빛깔과 꽃, 새 소리에 주리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 둘 다인가? /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꿈무늬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갔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본회퍼 책을 자주 읽었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는 거의 매일 읊다시피하여 다 외울 정도였다. 체게바라 같은 혁명을 꿈꾸기도 했지만, 크게 동떨어진 현실로부터 오는 괴리감과 자괴감 같은 것이 본회퍼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본회퍼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를 맨날 읊고 다녔죠. 옥중서신이라던가 그런 책들은 본지가 꽤 되었어요. 공동생활. (중략) ‘나는 누구인가’ 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내 안에도 잠재되어 있구나를 생각을 했었죠. 생각은 체게바라처럼 혁명의 꿈을 가지고 있고 현실로 이루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행동은 아직 크게 동떨어져있는 현실을 볼 때, 거기에 대한 괴리감, 자괴감이 생길 수 있었죠. 본회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었죠. 그런 점에서 솔직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18.1.4)

3) 일반 교회 사목활동

연구참여자 C는 2003년까지 일반 교회 사목활동을 하다가, 3개월 휴직 후에 마석에 있는 이정호 신부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주민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7년의 과정 속에서 2003년 전까지는 교회 사목을 하다가, 2003년에 잠시 3개월 휴직을 했어요. 마석에 있는 이정호 신부님이 마석에서 이주 사목을 하고 계셨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이주민과 관련된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거기 가서 외국인과 만나면서 지내다보니깐 조금 15년이 넘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이주민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안 것은 아니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직접 가서 외국인과 만나면서 이주민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이주민과 만나면서 15년의 시간 동안 타자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3.3.1.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초기

1)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

연구참여자 C는 외국인노동자협회(외노협) 활동을 하게 되었다. 교단 소속이 아니었고, 임기가 성공회 교단과 다른 점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외노협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사실은 여기 외노협으로 나갈 때도 여기 외노협이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에서. 왜냐하면 교단 산하는 아니지만 ncc처럼 우리가 회원 단체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여기는 우리 법인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게다가 제가 거기서 휴직을 했어요. 3년 휴직을 했는데, 우리는 휴직 기간이 2년이예요. 2년을 넘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3년을 계약하고 가는 바람에 거기 가는 동안에 제가 면직까지 됐었어요. 그 기간에. 여기 임기는 채우고. 면직 상태에서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갔고, 거기 있다가 복직이 되고 다시 의정부로 온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민들이 연극 연습을 하는 것을 도우며 서로 공생하는 모습을 보았다. 10년 넘게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배운 실력으로 못질을 안하고 연극 무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언어로 연극을 했는데, 한국 사람 관객을 위해서 한국말 자막을 넣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주민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섬세하다고 느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연극 연습을 할 곳이 없으니 성당을 빌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돼. 성당에 너네 무대 만들거잖아. 무대 만들려면 바닥에 기슭 나고 못 자국 나고 안 돼.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문제 생기지 않게끔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날 저녁에 트럭으로 목재를 싣고 왔어요. 그걸 지켜봤어요. 어, 근데 이 녀석들이 못질을 하나 안하고 무대를 만들더라구요. 이 친구들이 10년 넘게 가구공장에서 일을 했으니, 무대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닌거야. 그래서 연극 무대를 했어요. 그런데 연극이 다 방글라데시 말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녀석들이 한국 사람 관객을 위해서 옆에다 한국말 자막을 만들었어요. (중략) 우리가 만약 그 친구들 위해서 방글라데시 말로 자막을 깔 수 있겠어요? 연극인데.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왔더라구요. 저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보다 더 섬세하다.”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C는 1995년에 출입국 단속을 겪으면서, 사업주들, 한센인들, 중국집 아저씨가 서로 도와주는 상황을 보았다. 다른 이웃들로부터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배운 것이다.

“그런 일들이 기억에 남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95년도에 출입국 8시간 단속 대치할 때도, 다 이해관계죠. (중략) 그런데 출입국 직원들 40여명이 와서 단속을 하니깐, 일단 출입국에 붙잡혀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나와서 우리 애들 다 풀어달라고 항의도 하고, 한센인들도 나와서 항의하고, 외국인들도 같이 나와서 항의하고. 그리고 짜장면 집 아저씨는 저녁 늦게까지 고생한다고 짜장면 100그릇 갖다주고. 거기에 상황이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생을 하는거야.” (연구참여자 C 2018.1.25)

또한 연구참여자 C는 샬롬의 집에서 농성을 하던 중에 먹을 것을 갖다주는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났다.

“우리가 농성하느라고 샬롬의 집에 농성한다고 열흘 있을 때도 슈퍼 사장님들

이 먹을 것 갖다 줬어요. 먹을 것 먹으라고. 그 사람들도 거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단속 때문에 두렵고 하는 상황에서 모여 있으니, 가서 먹는 거라도 갖다주자 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2) 출입국 직원과 싸우다가 경찰에 소환

연구참여자 C는 2009년에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는데. 출입국 직원과 싸운 적이 있었다.

“2003년부터 외국인 관련 일을 하다가 2009년도에 지금 여기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사무처장으로 나왔어요. 나오게 된 계기는 현장에서 맨날 외국인들 월급 못 받으면 받아주고, 공장에 쫓아다니고, 출입국이랑 싸운적도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소환되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경찰에 소환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게 이게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의 싸움은 한번 더 큰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사무처장으로 왔죠.” (연구참여자 C 2018.1.4)

2009년에는 경찰 병력 230여명이 마석 공단 지역에 와서 1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해서 체포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하였다.

“저는 여기 나와서 사무처에서 일을 하고 임기 4년 끝나고. 여기 있을 때도 마석에서 일이 터졌어요. 2005년에 8시간 가깝게 출입국에 못나가고 저지당했던 양값음을 2009년에 3개 중대가 와서 230명이 공단 지역에 투입되어서 130명을 단속해서 끌고갔어요. (중략) 000대통령이 불법체류자가 길거리에 왜 활개

하고 다니냐 하니까, 법무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대로 축소시키겠다고 해서, 매년 3만명씩 단속을 하고” (연구참여자 C 2018.1.4)

3.3.2.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현재

1) 『우린 잘 있어요, 마석』 책 출판

연구참여자 C는 2011년에 마석 가구 공단에 있는 동안에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작가와 함께 책을 출판했다. 마석 지역은 성공회 영국 선교사들이 나환자들을 위한 자생마을을 만들었고, 1990년대 초반에 산업화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지역이었다.

“제가 사실은 2011년 12년에 마석이 있을 때, 제가 글을 쓰려다가 작가를 고용해서 시간이 없어서 작가랑 같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거기 공단이 원래 음성 나환자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거든요. 6,70년대 초반에 나환자들이 소록도에서 나와서 갈데가 없는 집단촌을 만든게, 성공회 영국 선교사들이 마석에다가 자생마을을 만든거예요. 초창기에 거기서 양돈 사업을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산업화가 되면서 거기에 가구공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나환자들이 정착했을 초기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하여 책을 집필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문화학과 교수와 1년 동안 집필 작업을 같이 했고, 마석에 머물던 친구들의 일상을 관찰기 형태로 구성했다.

“그때 제가 왜 책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냐면 조만간 여기도 언젠가는 없어질 꺼다. 그런데 한센인들이 여기 초창기에 정착했을 때 기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버림받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구도 기억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인류문화학 김현미 교수님이 계세요. 그 양반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김현미 교

수님은 나름대로 그 방향으로 논문을 준비하셨고 나는 책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일년동안 같이 작업을 했어요. 책 제목이 “우린 잘 있어요 마석”이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군대 간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가 힘들어도 너 군대에서 잘 지냈냐 그러면 군생활하는 아들이 엄마 걱정될까봐 우린 잘 있어요 잘 지내요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본국에 있는 어머니들이랑 통화할 때는 잘 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잘 있어요 마석이라고 정한거예요. 거기서 마석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일상을 관찰기 형태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이처럼 연구참여자 C는 마석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 친구들에게 애정이 깊다. 본인도 10년 가까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생각이 많이 나고, 그곳에서 만났던 이주노동자들과의 재미있는 추억도 있다.

“그 친구들이 마석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와서 젊은 청년의 시간들을 거기서 다 보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수련회에 가면 거기가 기억에 남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아주 큰 추억거리죠. 저도 10년 가까이 거기 있어서, 여기는 4년째인데, 거기가 많이 생각나죠. 거기에서는 모든 일상 생활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일 끝나면 숙소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또 필요한 일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우리는 센터에서 친구들 모이라고 하면 10분 안에 모여요. 옛날에는 교회에 중 있었어요. 출입국에서 단속 나왔다고 하면 중 쳤어요. 참 재밌는거야. 제가 그래서 책도 썼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많이 찍지는 않아서 누구 드리기는 그런데. 마석 친구들의 일상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2) 에콰도르 세계이주사회 포럼 참석

연구참여자 C는 2011년 에콰도르 세계이주사회포럼에 다녀왔다. ‘또 다른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이주사회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고민했다.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를 느꼈다.

“2011년에 에카도르 키토에서 세계이주사회포럼에 갔었어요. 한국에서 하려고 신청하려고 간 건데, 그 때 주제가 ‘또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또다른 새로운 세상이 뭐냐. 자본주의는 아닐꺼다.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참여자 C 2018.1.4)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초기에 시혜적, 동정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것은 바람직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는 정부 기관 단체들이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종교가 위탁을 안 맡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좀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시민단체에 있었고 이주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개신교 기관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시혜적 동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바람직한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 제도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지금은 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정부 기관 단체들도 많고 제가 일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케이스는 전국에 218개인가 올해 그러고, 법무부에서 만든 사회통합 기관도 있고, 노동부에서 만든 외국인센터도 있고, 지자체에서 만든 센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정부가 주도를 해요. 정부가. 그러면서 상당부분 ngo기관들이 정부 위탁기관에 흡수가 되버려요. 대다수. 위탁기관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겨요. 종교가 좀 손을 뺐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4)

3)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연구참여자 C는 2014년부터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임기 끝나고 마석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2014년에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새로 위탁 공고가 나서, 거기에 성공회 법인이 신청해서 위탁받았다. 올해까지 센터장으로 있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 2018.1.4)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사적인 것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주민을 상담할 때나, 센터 직원들과의 회의 구조에서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뭐 제일 기본은 그런거예요. 사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 친구들 이야기는 다 들어주지만 사적인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공식적인 회의 구조 내에서 풀려고 하는거고. 그래서 회의 구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나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거니까. 그렇게 풀려고 좀 애를 쓰고. 소위 비본질적인 싸움보다는 본질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센터가 추구하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 좋겠다. 그런데도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한데, 사실 성격상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튀어 나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나가야 되는거고. 또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말 열심히 해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C의 생애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4. 연구참여자 D : 이주노동자 연대운동의 선봉자

연구참여자 D의 연대기 중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연구참여자 D의 생애 연대별 타자성 형성 과정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육체 발육은 빨랐지만, 정신 성숙은 느려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
청년대학시기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공적인 일, 데모 10.26 사태 때 기절하다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	민중목회 훈련 18기 수료 카사마코 조직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 활동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이주민노동자문화센터 활동 이주노동자 진보운동의 선구자 아시아노동자 네트워크

4.1.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1) 육체 발육은 빨랐지만, 정신 성숙은 느려

연구참여자 D는 아름다운 시골 산골마을에서 딸 넷, 아들 둘 집안의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라며 초등학교 무렵에서야 도시 근교로 이사를 나왔다.

“나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웃음) 딸 넷, 아들 둘 집안의 다섯 번째, 아들로는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은 시골 산골 마을과 도시 근교 속에서. 놀이터가 자연이었죠. 잘 자랐고, 집 근처에 포도밭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무렵에 도시 가까이 나와서 작은 영세 사업체 공장하는 데서 자라났어요. 시골마을에서는 잘 사는 집이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어린 시기에 정신 발육은 늦었으나 육체 발육은 빨라서 키와 몸이 컸다. 어려서부터 말을 늦게 하다보니, 부모님이 운동을 많이 시켰다.

“그렇지만 정신 발육은 내가 조금 늦었던 것 같아. 말도 늦게 하고 그러다보니 보호하려고 많이 좋은 걸 먹여서 튼튼했죠.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배구도 하고, 육상 경기, 힘쓰는 경기도 나갔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2)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

연구참여자 D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 선수가 되려고도 했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재수 후에 야간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도시 대전으로 나가니까, 그 도시에서 살면서 신체가 좋으니까 운동 선수로 뽑혔는데, 그렇게 계속 갔으면 운동선수가 되었겠죠. 그 당시 아주 훌륭한 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운동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는데, 재수 했어요. 재수 했는데도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가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부모님이 가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D는 공업고등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원해서 타협점을 찾았다. 고등학교는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하고, 연구참여자 D가 원하는 카메라를 사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카메라 살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책을 사고 싶어져서 문학 전집을 샀다. 야간 고등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 주간 시간에는 책을 주로 읽거나 마음껏 놀면서 지냈는데, 그 시간이 연구참여자 D를 성숙시킨 계기가 되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가라고 해서 갈등하다가 타협점을 찾았어요. 야간 공업 고등학교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타협했어요. 그 당시 카메라를 사기로 했어요. 카메라 값 30만원을 막상 받고 나니까, 책을 사고 싶어졌어요. 그 당시 문학 전집을 사서 읽기 시작했죠. 야간은 오후 5시부터 10

시까지 공부인데, 나는 주간은 노는 시간이니까 맘껏 놀은거지. 그것이 나를 성숙시킨 계기가 되고.”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에 책을 읽으면 책 내용에 동화가 쉽게 되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책을 읽으면 바로 동화가 되었고, 당시 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그리고 책 속에서 순수하게 자랐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 그냥 동화가 되는거야. 순수해서.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면서 바로 동화가 되었어요. 어느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죽으려고 하고. (웃음) 고2 말까지 자연 속에서 잘 보냈죠. 책도 읽고 들에 가서 기타도 치고, 술도 먹고 그랬죠.” (연구참여자 D 2018.1.10)

4.2. 청년대학 시기

1)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공적인 일, 데모

연구참여자 D는 고등학생 시기에 형의 영향으로 대학교 가면 공적인 일을 하고 싶어했다. 당시 연구참여자 D가 생각했던 공적인 일이란 데모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대학교를 간다면 집안 책임 안 지고 좀 공적이라고 할까 그 당시는 공적이라는 개념은 모르고, 그 당시 유행했던 것으로 따지면 형 친구중에 가끔 데모하고 오는 친구가 있었거든. 형이 집안을 책임지고 형이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하니까 돈도 나를 책임져라. 그 때 요구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원래 책임져야 하는거야. 떠나왔으니까. 그렇게 고2때 진로를 바꾸고 대학 갈 준비 한거죠.”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진로를 바꾸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체육과를 목표로 하였고, 결국 1978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다.

“학원도 다니고 입시 준비를 1년 했죠. 결과적으로는 공업고등학교니까 공대르 가야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다른데 있었어요. 합격을 목표로 해서 1차로 고대 체육과를 넣었는데, 운동은 계속 했으니까 결국 됐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1978년 대학 입학식 때 총장의 훈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 총장의 훈화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공인(公人), 즉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훈화 내용은 대학생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와 공부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형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입학한 날부터, 내가 생각하기에 세례를 받는거예요. 총장이 입학식 때 훈화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원래 총장이 소리가 크거든요. 울림도 있고 교정이라는 품도 있고. 그때부터 내가 보는 세상이 확 바뀌어 보이는거예요. 공인이 되는거 예요. 그 때 훈화 내용이 이런거였어요. 고등학교까지의 삶은 세상의 지식을 전해줬다. 대학은 지도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입장. 그런 것을 공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에 하나 플러스 하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총장이 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할 일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자기들이 하고, 통일된 이후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해라. 여러분의 과정은 통일을 준비하는 거다.” (연구참여자 D 2018.1.10)

또 다른 교수가 했던 말도 연구참여자 D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15년 동안이라도 대학 신입생 때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독려했다.

“또 다른 교수가 하는 말도 나를 의식화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거예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깨끗해서 이 때의 마음을 간직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15년만 잘 간직하면 그 다음은 이미 되어있다고 하는거예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에게 대학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데모해야 하는 시기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타자성이 학내 사태와 민주화 운동의 시대적 요청을 만나면서 더욱 극대화되면서 깊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2) 10.26 사태 때 기절하다

연구참여자 D는 꿈 꾸어왔던 것처럼 대학 시기에 데모를 많이 하였다. 당시에는 사복 경찰에 대학교 강의실 안에 들어와 있던 때였다. 그래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영향으로 데모하다가 잡혀가면 집안이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서관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도망가기도 했다.

“당시 대학에는 조금만 저항하면 잡아가고, 강의실에 사복 경찰이 있던 때였죠. 위축된 때였지만 전체 내 의식이 그 쪽으로만 촉각이 가 있고. 1학년 2학기 때 한학기에 한두건 있을까말까했는데, 그날은 크게 붙은거예요. 9월 13일인데, 학내에서 전체 학생이 움직였지. 최루탄 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는 바깥에 있다가 도서관 대열과 합류했어요. 당시 나를 지도한 사람도 없었고. 가니까 도서관 안에 콜라 먹고 남은 빈병을 던졌어요. 화염병도 아니고.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나만 잡히게 되있는거야. 마지막 도망가는 문이 도서관 정문인데, 풍지로 들어가니까 문을 닫았죠. 3~4명 막혀있는거야. 잡혀간다고 생각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기를 데모하다 잡히면 집안이 망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겁이 나니까 도서관 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고 도망나갔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대학시기에 데모를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2년 정도 술을 많이 마셔서 간경화,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1979년에는 10.26 사태를 기점으로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거지. 79년 말까지 계속 그렇게 살은거죠. 그 과정에 매일 술 먹고. 매일 2년정도 먹으니까 급성 간경화, 알콜 중독, 환청, 환시가 다 온거지. 그게 79년 10.26때 폭발했지. 나는 그 전까지는 박정희를 없애야한다고 술 먹고 이야기한거지. 술먹은 사람이 한 이야기는 술주정꾼이니까 그 주변에서는 다 알죠. 쓰러져서 학교를 다 못 마치고 집에서 의식불명처럼 누워있다가 충남대학 병원에서 한두달 입원하고.”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죽으려고 하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군대를 가려고 해도,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광기에 죽으려고 하는 과정이 몇 번 있고. 그거는 하나의 미치광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7월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안 받아주지. 여러 가지 이유로. 3년동안 군대에서 계속 안 받아준거예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어려운 과정에서 몸이 아팠고 깨어나면 죽으려고도 해서, 가족들이 살리려고 절에 가서 기도했다. 연구참여자 D는 새벽까지 함석헌의 책을 읽다가 종소리 듣고 따라 갔더니 교회였다.

“그 과정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갔고. 교회를 가기 전까지 많이 아팠던 거예요. 굶도 하고. 어머니가 칠성님을 모시는 정통 불교 집안이었죠. 절에도 가고 아침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별걸 다 하죠. 아들 살리려고. 기도 하고, 무의식의 세계에 있기도 하고 깨어나면 죽으려고 하고. 어느날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복 바람으로 나가는데, 나는 그 때 함석헌 선생님의 새벽을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취가 책으

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종소리가 났는데 따라 가보니까 교회가 있는거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해졌다. 그러면서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게 되었다. 결국 1988년까지 그 교회에 적을 두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쓰러졌는데 잠깐이었는데, 개운했어요. 그동안 못자서 괴로웠던 것이 없어진거야. 새벽에 한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좀 나아지기 시작한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좀 나아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에서 87 민주화운동과 88선거 할 때 쯤까지 그 교회에 적을 두었거든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3)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연구참여자 D는 대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2년동안 하면서 조직적 의식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던 부천으로 가서 1986년부터 YMCA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 후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와서 기독교청년회 활동을 하였다.

“83년에 대학교를 다시 복학하고, 86년에 부천 ymca에서 처음 일했어요. 사회체육부 간사로. 그 당시로 따지면 운동권들이 모인 동네고. 거기 가보니까 ymca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범했고. 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는거 같지 않아서 다시 고향에 갔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그 이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진보운동진영이 분열되어서 대선에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D는 대선 이후 ‘다시 나를 돌아보자’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 때 대전에서는 장청 중심으로 활동했다. EYC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패

한거지. 그 때까지 사실 나는 정치에 뜻이 있었어요. 선배가 있었는데,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선배가 모델이었어요. 이철 같은 분과 활동했던 선배. 선거 끝나는 거 보면서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거지. 사람을 배신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내가 체육교육과였으니까 체육 선생을 하든지 교회 활동을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이 민족이나 사회를 바꾸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던거야. 정치는 포기하고 교육활동이든지 교회이든지. 고향으로 가는 마음과 같았던거지.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자.” (연구참여자 D 2018.1.10)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 D는 아팠다가 깨어났던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다. 더구나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에 실망해서 낙심하던 때였는데, 중매가 들어왔다.

“내가 깨어났다는 교회는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못 오게 하려고. 공정선거감시단 하면서 교회에 가서 비디오도 들고 해서. 고향으로부터 배척되고. 그렇게 돼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88년 노태우 당선에 실망해서 포기하던 찰나에 중매가 들어왔는데. 지금 오영미 목사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1988년에 큰 매형의 소개로 오영미 목사를 만났다. 당시 선교사와 맞선이 들어온 오영미 목사는 고생을 더 안 시킬 사람을 생각했고, 연구참여자 D의 큰누나가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었다.

“그 때 큰 매형에게 중매가 들어왔던거야. 우리 큰누나와 같은 교회에서 일을 같이 많이 하던 오영미 목사. 큰 누나 입장에서는 오영미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 더 고생 안 시킬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당시 오영미 목사에게 선이 들어왔는데, 남미 쪽 선교사였던거야. 누나가 생각하기에 선교사 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했던거지. 그래서 교회 교육관 1층에 앉아서 만났어요. 누나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할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를 교회 쪽으로 안내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여 갔는데, 맞선 자리였지. 88년이였다.” (연구참여자 D 2018.1.10)

오영미 목사와 몇 번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신학교에 편입하기로 하였다.

“몇 번 만나서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결과적으로 2년. 그 당시 대전신학교 서무과 직원이었어요. 내가 연애하니까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짜피 신학교 와서 편입하고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찾으면 좋겠다고 했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신학교에 와서 역사와 교회사를 새롭게 공부했다.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결정해야할 시기에 정치를 포기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신학교 입시 시험을 치렀다.

“그동안 보아 왔던 역사를 교회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보려고 했지. 다른 공부도 등한시하고 교회사를 2년 동안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졸업하고 지역의 한 선배가 목회를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1~2년 그 과정에 장신대 시험이 있었어요.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선배의 길을 갈건지 내 길을 갈 것인지. 선거도 안 끝났는데 수행비서 하다가 딱 접고 이야기 했지. 나는 앞으로 정치에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신학교 시험보러 가서 거기서 갈라 선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신학대학원에서 현대신학 연구 동아리에 가입했고, 신학대학원 입학 전 장청 활동을 할 때부터 접했던 민중신학을 공부했다. 민중신학을 학문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민중교회 사역을 하기로 생각했다. 당시 졸업생 600명 중에 두 명만이 민중교회를 한다고 하였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 바로 현신 동아리를 했지. 강경대 사건을 같이 하였다. 현신에 입회하는 과정은 일반 학생들과 비슷했어요. (중략) 민중신학이 있긴 하지만. 장청 할 때부터 민중신학을 접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민중교회 할 사람이 600명 중에서 두명이더라고. 3년 과정에서 한명. 1년 과정에서 나 한명.”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의 생애사에서 타자를 위한 투쟁과 진로 결정이 일관되게 이어지면서, 타자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

4.3.1.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 초기

1) 민중목회 훈련 18기 수료

연구참여자 D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신학교에서 휴학기간을 포함해 3년을 쉬고, 목회(연수)과정 1년 이후에 다시 민중교회 훈련과정으로 2년을 보냈다.

“그것은 훈련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구조와 비슷했어요. 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서류를 갖추어서 검증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끝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리할 수 있느냐, 앞으로 할 일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계기로 과거를 끊고 새로운 내 목표를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예요. 노동자들과 함께 사는 훈련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을 하죠. 나는 일용 노동자들과 함께 3개월, 또 이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3개월, 공장 훈련을 마치고 나면, 빈민지역 교회 가서 1년. 이게 2년 과정인거예요. 영등포 산전에서 했지만, 나갈 때 초기 자금은 예장총회 사회부에서 낸거였어요. 내가 9기고, 쪽 18기까지 갔어요. 그 후로는 지망생이 없어서 못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영등포산업선교회 민중목회 훈련 18기를 수료한 후에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목회에 대한 꿈을 꾸다가 당시 형성된 당파성에 대한 문제로 쫓겨났다.

“그 훈련 하고 나는 영등포에 갔어요. 1년 공장생활을 의왕에서 하고, 안수 받

을 때 영등포에 간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평생 영등포에 있어야될 것 같았어요. 나는 평생 노동자들과 함께 해서. 그 당시 화두로 따지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와 정치세력화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매진한다. 막 하다보니까 이미 거기는 70년대 선배들에 의해 당파성이 생겼어요. 민주노동당이 생겨도 결탁이 되어 있고, 인명진도 영똥한 사람과 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영등포를 인명진이 다른 사람에게 판다고 하니까 부딪쳤지. 나는 반대했는데, 영등포 노동자들은 내 편을 들지 않고 상대 편을 들었던거야. 그래서 나는 실망했지. 그러다가 쫓겨났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당시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세계교회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한국과 비슷한 전쟁을 겪고 있어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와서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D가 가서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세례를 보는 눈을 높였다.

“세계교회가 평가할 때 상당히 좋은. 산업선교회를 키웠는데 한반도 전쟁 이후에 교회와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 받았지.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서 비슷한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요청한거지. 르완다에 가서 소개하면 좋겠다. 민중교회에서 한명이 가면 좋겠다. 그 당시 갈 사람은 영어 잘하고 활동했던 조건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가려고 했지. 만약에 거기 가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당시 나는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를 활동을 해보면서 세계를 보는 눈을 높였다고 할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갔죠.” (연구참여자 D 2018.1.10)

2) 카사마코 조직

연구참여자 D는 해외 경험을 토대로 하여 1990년 초에는 카사마코를 조직했다. 필리핀 말로 한국 친구라는 뜻의 카사마코 조직은 산업선교가 필리핀 기독교인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카사마코 조직을 90년초반에 만들었어요. 필리핀 말로 친구가 카사마고, 코는 코리아.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에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저분들의 깊은 속에는 산업선교가 있고, 산업선교 속에는 종교를 떠나서 있고. 정치적으로는 반군 속에 있는거야. 미군과 싸우는 망명 정부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국제민중투쟁연맹을 제안해요.” (연구참여자 D 2018.1.10)

국내현장에서 경험하며 형성된 타자성과 연대활동이 필리핀 등의 해외에 까지 확장되면서 연구참여자 D의 타자성이 더욱 견고해지고 타국에 대한 연대의식까지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3)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 활동

연구참여자 D는 2000년에 르완다에 파송받은 후로 아시아태평양노동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 원래는 10년 동안 머물면서 센터를 짓는 계획이었는데, 그곳에 같이 있던 선교사들은 기독교대학을 세우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D는 1년 만에 돌아왔다.

“2000년에. 원래 계획은 10년 있으면서 꿈은 지금 이런 센터를 짓는 거였어요. 교회 사회 참여나 민중교회를 전파하는 거였는데, 내가 1,2년 있는 동안에 나는 정말 좋았는데, 거기 르완다 선교사나 총회 사람들은 1년을 보내면서 다른 꿈을 꾸는거지. 기독교대학. 옛날 수도에는 있는데, 새 수도에는 없어. 국경이 있긴한데, 사람들은 상관 없이 살고 있어. 평화센터보다 기독교대학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개혁교회연맹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나라에서는 먼저 대학을 지어 놓고 하려고 결정을 한거야. 그래서 나는 1년 만에 돌아온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현지 사정에 의해서 연구참여자 D가 원래 계획했던대로 실현되지 않은 경험은 연구참여자 D에게 타자에 대한 수용과 이해의 능력을 북돋아주었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해 주었다.

4.3.2. 이주민기관 활동 현재

1) 이주민노동자문화센터 활동

연구참여자 D는 가족들과 투표를 해서 혼자 르완다에 다녀왔다. 1년동안 홀로 나가서 돌아온 경험이 이방인의 경험이었다.

“우리 아이들 셋과 부부가 가자말자를 투표하니까 우리 딸하고 나는 가자, 아들 둘과 엄마는 안 간다. 3대 일로 졌지. 투표해서 3대 2로 졌는데, 나중에까지 영향을 미친거야. 딸과 나만 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좋았을텐데 나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나가 살고 돌아오니깐 4명이서 그 전에도 조금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나는 이방인인거야. 같이 살아도 의견 일치가 안 돼고 나는 왕따야. 나는 믿을 수 없고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2003년 우예현 목사 후임으로 오산 이주민노동자문화센터에서 대표로 활동 중이다.

“여기 오니까 그 때 오영미 목사가 98년에 중국에 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원래는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안 오려고 했어요. 보수적인 합동 같은 곳에서 여기 오려고 누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에 전화했지. 우리가 늦게 알았는데 민중교회니까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D 2018.1.10)

2) 이주노동자 진보운동의 선구자

연구참여자 D는 노동자 연대운동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민주화 과정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민중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고,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D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 인식이나 ilo에서 석방하라고 권하는 것도 위원장 석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계라는 거지. 결과적인 민주화로서는 족할지 모르지만 민중들의 삶과 평등사회는 한계가 있지. 내가 거기에 좋다고 할 수 없는거지. 조금 발전될 수는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거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일을 나는 하고 있는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연구참여자 D는 진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70년대 전태일 사건부터 지금의 세월호까지 사회의 진보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1978년에 온 거야. 왔다는 거는 70년대부터 전태일 이야기가. 최근에 세월호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전태일 사건이 확산이 되는데, 동대문 어머니와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세월호도 사람들이 싸우니까 관심을 갖듯이. (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D 2018.1.10)

3) 아시아노동자 네트워크

국제적인 노동운동 연대의 경험이 오늘날 연구참여자 D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선교의 틀 속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류와 소통과 연대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른 센터와 차이점은 아시아태평양노동자 연대라고 하는, 기존의 교회 조직이 받침이 되고 키워 놓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라고 할까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찾으면 아시아교회협의회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60년 전에 산업선교죠. 그걸 기반으로 3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91년이요 아시아에서는 81년이랄까. 그 때 태어난 두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내가 산업선교 속에서 내가 담당자가 되고 그 역할의 실무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만남에 바탕이 있었던 거지. 그 속에서 만나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난거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교류와 소통, 연대에 발판 하에 진행된 것이 지금 이주민 선교로 된거죠.”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 D는 아시아노동자 네트워크에서 굵직한 일을 해오고 있다. APWS라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 네트워크에서 남자 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호주 센터와 협력하면서 네트워크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는 apws에 내가 공동대표거든요. 남자 대표는 나고, 여자 대표는 호주 육가공 노동자야. 내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던 여성이 평생 헌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끝나야 될 상황이야. 조직에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여성이 나에게 유언처럼 말한거야. 이 일은 의미 있으니까 꼭 하라고 했어요. 그 여성이 한국 월드컵 전에 아동 노동 캠페인을 했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지. 나는 운영위원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노동넷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노동자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호주에서 받아서 인터넷으로 회의하면서 주요한 이슈마다 글로벌 기준을 잡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받고. 그런 일 속에 이주노동자가 우리가 볼 때는 큰 선교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큼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apws도 그런 망이 되는 거지. 여기 온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갈 때는 노동자 망을 갖고, 그 나라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D의 생애사를 통하여 그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았다.

5. 소결

본 IV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인 이주민기관 재직 개신교 종교인의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청년대학시기, 이주민기관 활동 초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른 생애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특

별한 사건과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하여 타자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여섯 가지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어린시기와 청소년시기의 경험을 사회화의 측면으로 살펴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1차적 사회화의 경험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의 경우는 교회 목회자들의 영향으로 대학교 진공이던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는 중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꾸었고, 연구참여자 D는 아내를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Cooley(1909)에 따르면, 부모, 친족, 또래집단 등 1차 집단에 의한 인격적인 만남은 사회적 본성의 형성과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시절에 부모나 또래집단인 친구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나 가족,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타자성을 견고하게 하였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직원, 동문,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된 거대한 조직(Hall & Baker, 2003)이라 할 수 있다. Sung&Yang(2009)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경험은 대학 졸업 후에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이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준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A와 D는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학내 문제에 대한 데모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수감 경험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B와 C는 대학 내 독서 동아리에서의 학습 경험이나 자기탐색의 경험 등이 그들의 자아나 정체성 형성 또는 타자성 형성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시기 동안 학업, 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을 하면서 지적·사회적·정서적 측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타자성이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을 처음에는 낯선 타자로 인식하였으나, 점차 그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과의 만남에서 자신과 다른 이주민을 배척하고 하대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점차 이주민을 타자로 인식하고, 타자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나아가 타자로서의 이주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가정 형편과 군대, 감옥 경험으로 인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였고, 이주민이었다고 고백하는 연구참여자 A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 B도 중학생 시기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가서 학교를 다니며 강한 이주민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 D 역시 노동훈련을 하면서 이주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형편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한 존재로 살겠다고 결단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험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타자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대신하는 삶을 경험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산업선교회에서 훈련 받으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와 선교를 구상하였고, 2005년에 대전 지역에 최초로 다문화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노숙인 사역을 하다가 더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발견한 이후로 이주노동자의 친구로 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C도 이주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국가와 정부에 대항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도 산업선교회 민중목회 훈련을 통해서 공장 노동훈련을 하며 노동자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에는 시대성이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시대적,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대학시절 4학년 1학기 때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겪었다. 군사독재에 비판적인 의식이 생기고 학생운동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까지 하면서, 타자성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B는 신학대학원에서 민중신

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질감 느꼈다. 연구참여자 C는 격동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의식이 생겼고,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성공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D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랫동안 몸이 아프면서 시대의 역사를 몸에 새겼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성을 함양하는데 본회퍼 서적의 영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기 전이나 혹은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본회퍼의 서적을 접했고, 그의 신학적 사상과 타자성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A는 감옥에서 본회퍼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만났고, 연구참여자 C도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를 자주 읽으며 그의 시 ‘나는 누구인가’를 자주 읊었다. 연구참여자 B도 대학원 입학 전후로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 본회퍼의 서적을 접했고, 목사님들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타자성을 함양했다.

기본적인 인성과 자아정체감을 형성은 1차적 사회화의 경험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형성에도 역시 1차적 사회화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경험은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대성,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이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 시기에 역사적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적든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은 이후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렇게 유년기와 청년기, 성인기를 겪은 연구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한 타자성을 가지고 이주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면서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대신하는 삶에 대한 종교적인 경험으로 주체성을 타자와의 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영향일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타인과 시대적인 사건을 대하는 윤리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상황에 적응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형성 과정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연구참여자가 신학을 접하고 본회퍼의 신학사상과 삶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타자성이 보다 더 확실하게 형성되었다. 또한 이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이주민 역시 타자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개신교 성직자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본회퍼의 신학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타자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은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후과정을 살펴보면 본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 추구 보다는 타인 다문화 이주민들과의 만남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 타자성 실천의 발현 양식

앞선 IV장에서는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준 경험들을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 대학 시기, 이주민 봉사 기관 활동기의 내러티브를 생애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타자성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뿐만 아니라 타인과 시대적인 사건을 대하는 윤리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생애사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IV장이 타자성 형성의 측면에서 기술했다면, V장에서는 타자성 실천의 발현 양식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형성한 타자성이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현장에 어떠한 실천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인터뷰에서 얻어진 구술 자료와 타자성에 대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이론적 논의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다문화교육과정에서 주요한 3가지 태도를 정체성, 다양성, 협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순, 2016). 다문화교육적 태도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특수성으로 인한 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협동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A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는 문제고, 주체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진정성은 위선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연구참여자 A 2018.1.3)

연구참여자 A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주체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정체성으로, 내가 하는 일에 위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진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정의를 내렸다. 연구참여자 A가 이해하는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은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으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타인을 특히 민중, 작은 자를 임금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그것은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하는 태도가 바로 주체성이예요. 그것을 의식해서 마치 아부하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차별해서 기피해버리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돌봐주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죠. 양의 비유라는 것이 묘하게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들 모두 개신교 성직자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A가 구분한 3가지 범주와 성경적인 이해를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다문화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내용과도 연관성이 깊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이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의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실천 요소를 정체성, 윤리,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이 실천되는 양식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의 발현 양식

구분	대주제	하위주제
정체성	타자를 위한 존재	자신과 타자와의 동일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리자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기
주체성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	다양성 존중
		타자중심적 책임 윤리
		상호주체성
진정성	지속적인 연대	지속적인 관계 유지
		다양한 연대활동
		제도 개선과 개혁 노력

1. 정체성으로서의 타자를 위한 존재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에게 자기 정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명하지 않은 자기 정체성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든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오늘날 기관이나 목회 현장에서 생겨나는 제반 윤리적 문제는 목회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활동에 임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선결 과제는 자신의 존재와 그 자격에 대한 명확한 자기이해, 즉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한 개인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자각하게 하며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자기로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주체적 자아의 통합과정을 말한다(박남숙, 2005). 한 개인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을 말하기도 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유하게 지각하고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의미하기도 한다(이재창·최정인, 2006).

또한 정체성은 ‘자기로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인 ‘자의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자의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Self-consciousness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에 대한 가치인 ‘자부심을 가짐, 자신 있음, 자기를 주장함’을 뜻하기도 한다. 정체성은 때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자신이 누구인지’ 대상화하여 의식하는 것을 뜻하면서도, 자존감, 자부심,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가치’의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백훈승, 2013).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특정한 서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통합하여 이를 자아에 관한 진행 중인 ‘이야기’ 속으로 선별해 넣는 것이다. 찰스 테일러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Anthony Giddens, 1997: 112)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은 단순히 개

인의 행위체계의 연속성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찰적 활동 속에서 관행적으로 창조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성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내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승인이라는 상호주관적 과정을 통해 매개된다.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에 대하여, 더불어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은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한데 객관적인 진리로 고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식은 자기의 타자를 자기와 대등한 자기의식으로 승인하고, 또 자신도 타자에 의해 자기의식으로 승인받음으로써만 진정한 자기의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훈승, 2013). 즉, 정체성은 사회적 승인을 통해서, 즉 타인에 의해 인격체로 존중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은 자신의 사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타인의 승인, 타인 안에서 사회적 좌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타자성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타자의 승인과 타자의 시선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정체성의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기의 정체성을 타자로부터 승인받고 타자의 시선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1.1. 자신과 타자와의 동일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타자에 대해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처에서 경험하는 생활 세계적 체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함께 한국인들의 문화적 폐쇄성에 의해 차별과 무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한진수, 2004)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문제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여겼다.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는 타인에 대한 나의 책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내가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즉 타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내

가 타자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타자의 표정을 감수성으로 느끼게 되며, 궁극적으로 나를 타자의 위치에 대체시킴으로써 이뤄진다(박종균, 2008). 이런 대체를 통해, 타자를 위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본회퍼는 타자를 위해 내가 결단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타자는 나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역설했다(고재길, 2012). 타자를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내가 타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임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본회퍼에게 개인은 오직 타자 통해서만 존재한다. 개인은 단독자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양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먼저 연구참여자 A는 본인의 인생이 나그네였고, 이주민이었다고 고백했다. 나아가 이주민, 이방인에 대해 항상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훈련을 하면서 노동자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도 많이 배웠지만, 스스로는 이주민에 대해서 훨씬 더 절실하게 동일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나 국민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거죠. 항상 나는 굴러온 돌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주민을 굴러온 돌이라고 표현하는데, 굴러온 돌은 항상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굴러온 돌은 항상 굴러다닌다. 이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항상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노동자로서 동일시하는 것도 많이 느끼고 배웠지만, 이주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절실해요. 자연스럽게 옮겨간 게 사실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옮겨갔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B도 서울에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가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험을 통해 본인이 이주민이었다고 고백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지점에서 동료들에게까지 철저히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고 이야기했다. 자기 자신이 타자를 위한 정체성이 뚜렷하다 보니, 교회의 정체성도 타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조금 제가 여기 나오는 친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어. 이 교회는 십오년쯤 되면 교회가 열다섯살쯤 되면 나는 누구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교회도 평화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정체성을 생각해 보자. 그동안은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였지만 이제는 이주민의 교회가 돼야.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역할을 하자, 그런 교회로 나아가자.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 (중략) 교회 정체성은 세워가야 하지 않겠나. 한번 해 보라고. 올해부터는 느그들 교회니까 느그들이 알아서 해! 하려고.” (연구참여자 B 2018.1.30)

또한 연구참여자 B는 기득권을 추구하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다. 어떤 일관되는 정체성이나 기준 없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저 해야 하니까 운영되는 총회 국내선교부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 선교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나눠서 국내선교부가 이주선교회의회인가를 만들었어. 어느날 갑자기 오라는거야. 와가지고 보니까는 기존에 기득권을 총회차원에서 뭔가 기득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 그것조차도 블랙홀처럼 기득권을 빨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거야.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저 사람은 끈이야. 저 사람 교회는 십자가 내려야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세대든 2세대든 잘 모르지만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다 쥐고 흔드는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꾸리고, 그러면서 권역별 모임을 한다는 등. 행사를 한다는 등. 내가 몇 번 참여를 해 봤어. 그런데 자존심도 상하고 정체성도 없는거야.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잖아. 그런 것들을 총회가 정치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총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권역별로 어떻게 꿰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데, 없어. 그냥 큰 틀에서 프로젝트만 냈지, 세부적으로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거야.”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도 정체성 부분에서 명확하게 타자를 지향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의 동질성만 보면 혐오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극우주의 성향의 민족주의가 동질성만 고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연구참여자 C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

“타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내가 동질성을 갖지 못하면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다문화 반대 운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문화 관련 되서 반대운동 하는 친구들이 어버이연합 이런 데서 활동을 해요. 극우주의 성향의 민족주의. 이 친구들이 극우주의 현장에는 어디에나 다 있어. 그만큼 다름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의 동질성만 보는거예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혐오의 기본이 되는거죠. 예를 들면 인종, 국가, 종교에 대한 차별이 결국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적대시하는 걸로 가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나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저 밑에서 개밥이나 먹어. 나랑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돼 하는 것을 미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형태. 외국인은 범죄가 많더라던가, 이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거지. 실상에 있어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배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는 공장에서 3년 정도 민중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기본 체험을 했는데, 노동자, 이주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3년을 공장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게 이주민에 대한 기본 체험이지. 우리도 이런 목회를 한다고 하면, 민중들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훈련을 짧지만 2년 정도 받고 시작한 거죠.”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들은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에 대한 태도에서처럼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회퍼가 인간을 위해 인간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이해로부터 고난 받는 타자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생겼던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은 자기와 타자를 동일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2.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리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고 있다. 본회퍼는 『기독교윤리』에서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킨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교회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데 있다(본회퍼, 1974: 173)고 주장한다.

본회퍼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타자를 위한 교회에서 보았다. 본회퍼에게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에만 참된 교회이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의 세상적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배하면서도 아니라 돕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타자를 위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본회퍼, 1974).

본회퍼에게 교회는 그것이 타자를 위해서 있을 때만 교회다(본회퍼, 1967).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할 때 본회퍼는 타자를 추상적인 인간이라기보다 사회의 소외층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염두에 두고 말하였다. 고난당하는 타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는 ‘대리자’(stellvertretung)라고 할 수 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대리에 대한 중요한 서술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 대신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가 대신 사신 삶이다. 예수는 결코 스스로가 완전성에 도달하려고 한 단독자(Einzelne)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받아들이고 감당했다. 그의 생활, 행위, 노력의 전체는 대리다. 그의 인간적인 실존을 형성하고 있는

이 진실한 대리의 행위에서 그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모든 생명은 대리된 것으로서 규정된다.” (본회퍼, 1974: 193)

이처럼 본회퍼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존재이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성육신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고난 받고, 대신 죽은 ‘대리자 그리스도’이다(박재순, 1993).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 받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고난당하는 타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이면서 동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타자를 볼 때에 더 낮은 타자 및 이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기본적인 타자적 관점이 타자중심적이었으며, 그 까닭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주민 봉사기관 쪽으로 온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A는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민중교회 훈련을 끝내고 지역을 정할 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에 남고 싶거나, 자기의 고향처럼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연구참여자 A가 선택한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인 대전 지역이었다.

“아무튼 인생에서 돌아다니긴 했지만, 공부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영등포 산선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래 했을 때 보통 다 서울에 남고 싶고, 고향이 제일 편하고. 그런데 저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대전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가 봉사하는 교회에서 발간하는 회보의 첫 장에는 교회의 신앙을 대표할만한 ‘바닥하늘’이라는 시가 실려져 있다.

“예수와 함께 민중과 더불어 /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 고난 가운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죽음 앞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서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공동체 //

낮아지는 것이 존귀해지는 것이고 / 보잘것없는 것들이 소중한 것이다.
 약한 것이 강하고 낡은 것이 새롭고 / 못한 것이 귀엽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가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영광이고 / 죽음이 생명이고 희생이 영생이다.
 예수가 민중이고 민중이 예수이고 / 바닥이 하늘이고 빈들이 희망이다.”
 (빈들교회 회보)

여기서 '바닥하늘'이란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보잘것없고 내놓을 것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기도하며 살아 움직이는 삶의 자리가 바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참사람이 되어 민중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교두보라는 뜻이다. 연구참여자 A가 개척하여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는 교회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선교의 주체로서 가난과 고난과 차별로 고통당해온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 은혜와 진리로 참 자유를 깨달아 민중이 해방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하고, 더불어 서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민중과 함께 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터와 판과 길을 닦고 함께 집을 지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는 꿈꾸고 있다.

연구참여자 B도 활동하는 곳을 정할 때에 사회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인지 질문했다. 노숙인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도적,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노숙인보다 더 열악한 이주민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기로 결단했다.

“저도 제일 낮은 곳이 어디일까. 물론 다 일면 일면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소외계층이 있는데, 노숙인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도적 차원,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체제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갖춰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물론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에는 26만, 30만 가까이 되는 미등록 이주민들도 있고, 그들이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도 있고,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그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니, 누군가는 이웃이 되어야 하고, 또 선교적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95%? 미등록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낮은 계층,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 중에 이주노동자가 가장 낮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연구참여자 B 2018.1.30)

30만명 가까이 되는 이주민들이 등록도 못하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복지도 받지 못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현실로 보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고통 당하는 타자를 외면하는 일은 예수의 제자 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큰 차이는 없지만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사후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의 제자 된 삶이라면. 갈릴리 사역을 하신 예수님.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들은 예수의 제자 된 삶의 자리가 아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자리다.” (연구참여자 B 2018.1.30)

예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은 제자라는 삶의 형태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으로 여겼다. 연구참여자 C도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 본인도 그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정체성으로 여기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고통 당했던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주 관련 되서 활동하면서 성경구절 중에 가장 와 닿는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고통 받는. 그러면서 거기서 하

나눔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아, 이거구나. 우리 사회 속에서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웃들 중에 고통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는거죠. 그래서 저는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어쨌든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다. 수원역 앞에서 허름한 노인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고백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다솜교회를 처음에 설립한 우예현 목사님의 교훈도. 자기가 어디 수원역 앞을 일이 있어서 보러 가는데 어느 노인 한분이 육교에서, 정말 허름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본다, 똥을 싸는 거야. 거리에서. 그걸 보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사회 속에 어렵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뭐라할까 그런 걸로 다가왔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여기서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급한 상황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먼저 찾아보고 도와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면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D 2018.1.31)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D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아프고 어려운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타자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살도 시도할만큼 힘든 상황까지 가서 자기를 살리게 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시대 상황 속에서는 부모님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죽

을 뻔했다 할 만큼 많이 아팠거든요. 아픔의 원인이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내가 못 케어한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우울증과 알코올 홀릭과 그런 것들이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살아가기 어렵다기 할 만큼,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최대한 갈 데까지 가 본 상황 속에서 다시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고. 그 해 겨울 내가 그걸 성령의 역사면 역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갖고 스물 한두살 때인데, 그 해 겨울이 가장 추웠고, 가장 죽고 싶었고, 그거 지나고부터 지금까지는 추위 더워나. 그 때가 가장 아팠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더 아픈 상황은 없었어. 40년 정도 동안. 그게 아픔을 일으켜 세운 것이. 나의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렇게 된거지. 그 힘으로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같아.” (연구참여자 D 2018.1.31)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한 거였고, 일어났을 때는 밑에 바닥은 하나님이 워낙 받쳐주는 바닥이니까.”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 D는 아팠다가 다시 회복한 생애사적 경험을 하나님이 역사 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과 신앙이 고난당한 타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실천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본회퍼의 생애사에서 나타난 타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회퍼는 독일 부르주아 교회에게 프롤레타리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 생활 중에는 흑인교회에 출석하여 차별받는 흑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베를린 공업대학의 교목시절에는 빈민 아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에 힘썼다(고재길, 2010). 이처럼 본회퍼가 타자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를 위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타자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도 본회퍼처럼 스스로 고난당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타자를 위한 실천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1.3.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기

연구참여자들이 타자성에 대해 갖는 태도가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사회 윤리로 작동되었다. 레비나스는 사회적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했고, 본회피도 기독교윤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참여자들도 그러한 점이 많았다. 그들에게 윤리란 즉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 가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추구한다.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윤리적 삶의 중심이 드러난다고 여긴다.

“결국은 이 세상 안에서의 삶에 중심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부활을 살 수 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나 죽음 이전의 가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이상한 영혼불멸에 대한 신화에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나오고, 역사나 기타 모든 것에서 타인을 오히려 배척하고 옳지 않은 현상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타나는거죠. 이것을 기독교는 개혁해야 하는거구요.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결정 나 버린다고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는 기울어진 현실에서 약자를 편애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신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외된 사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여긴다. 연구참여자 A에게 공훈이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고난당하는 타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약자편이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편애할 수 밖에 없다. 약자를. 이게 우리 논리거든요. 그

런데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중략)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편애하는 방법이다. 하나님도 그랬고. 편애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낮아지는 거다. (중략) 그러니까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소외된 사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다가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타자를 만났을 때 연구참여자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잘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고,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연구참여자 A는 자아 분열, 인격 분열 상태라고 진단했다. 자신의 정체성이 없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이 분열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 분열, 인격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종교인들에 그런 게 많아요. 그것이 영혼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혼이라는 게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안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중략) 어떤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일만 하든지, 정체성이 없고. 자기가 먹고 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많이 거뒀들여서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거죠. (중략) 신앙이라는 정체성과 민중을 사랑하는 정체성이 없이 영혼이 구원 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갔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분열되지 않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는 신앙이라는 정체성과 민중을 사랑하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존재이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자에 의해 결정되며, 타자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의해서 영혼이 결정된다고 여긴다. 존재와 윤리적 실천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것이라고 진단한다. 자아분열적인 현상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이기적

인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거죠.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나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 의의와 목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사회가 영혼이 죽은, 자아가 분열된 존재로 길들이고 있다는 거고, 종교도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종교란 그러한 자아분열적인 현상 속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표를 찾도록 결정해 주는 것.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것 그게 종교의 기능인데, 이 종교가 오히려 자아분열을 확장시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고 타자를 배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위선적이고.” (연구참여자 A 2018.1.30)

한편, 인권은 본회퍼의 윤리에서 볼 수 있는 분명한 사회윤리적 주제이다. 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기독교 사회윤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인간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인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본회퍼, 2010c: 275). 인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간의 기본권이 인간에 의해 공격받는 일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재길, 2010).

연구참여자 B도 인권을 강조하는 점에서 타자성이 실천된다. 다문화 이주민 관련 기관들 중에 종교성이 없는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연구참여자 B는 노동권이 아닌 인권에 집중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저희들은 인권 부분을 강조하죠.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주로 사회 시민단체는 노동권에 집중을 하고, 노동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노동 조합 이런 것들. 그리고 역량 강화하거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방점이

있다면, 우리는 침해당하는 차별, 또는 억압, 강제노동 이런 걸 통해서 당하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침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실제로 연구참여자 B는 위와 같은 정체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상의 사소한 영역까지도 이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불법 체류 이주민을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문제제기가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화되고 있기도 하다.

“출입국 관리소는 어쩔 수 없이 뭐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니까 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외국인들이 먹으러 가는 식당, 슈퍼, 길거리 이런 데서 단속 하면서 그들이 생존에 직접 관련된 이런 지역에서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 출입국에서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게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때 정하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제기들이 일정부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화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는 걸어가다가 ‘똑바로 살라’는 노숙인의 음성을 듣고 삶의 윤리적 실천을 성찰하였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다.

“노숙인들이 쭉 있어서 흠칫 보고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야! 너 똑바로 살어. 그러는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아니겠지. 신부 카라가 있는데. 누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저를 가르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속으로 저 새끼가 미쳤나 속으로. 그런데 열차 타고 가면서 생각했던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똑바로 살라고 그랬을까. 섬짓하게 생각되는게, 그 말이 뇌리에 와 닿더라구요.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지만 노숙인의 소리죠.” (연구참여자 C 2018.1.25)

또한 연구참여자 C도 타자와의 관계가 신앙을 결정한다고 여긴다.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는 방식이다. 한국교회가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 없이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신을 믿는다 또는 신을 만났다, 관계가 있다하는 모든 것은 이웃이라는 말을 쓴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실현이 안 되면 사실은, 나 아닌 사람과의 관계가.....그건 논의할 것도 아니잖아. (중략) 한국교회가 가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타자를 논의하거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연구참여자 C 2018.1.25)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C는 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물 한그릇 대접할 수 있는 본연의 윤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을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목 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보다도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중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적인 핵심, 본질에 대한 것들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거죠.”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도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한다. 이웃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창하게 따지면 생명을 살리고, 세계 교회

가 생명을 살리고 폭력을 극복하자 이런 세계교회 이야기를 도와줘야 되는거
죠.” (연구참여자 D 2018.1.31)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는 것으로 타자성이 실천되고 있다.

레비나스는 삶의 세계 내지 공공세계에서 주체 바깥의 다른 주체들 즉
다(多)와 타(他) 가운데 주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것을 요구한다(윤
대선, 2015).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성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으로 나와 타자
사이의 실존적 관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오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사회가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안목을 갖
고 배려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스스
로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이주들에 대한 사회적 책
임과 배려가 발현된다.

상호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다문화사회에서 타자는 단순히 우리와 마주하
고 있는 객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타자를 위한 존재로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타자를 우리의 주류문화에 통합시키고 무엇을 전달하고
자 제시하는 위치에서 개입하는 차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
자들의 현장에서 발현되듯이 상호이해와 호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현석, 2008).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본회퍼에게 타자는 신
의 현현으로 나타난다. 본회퍼의 삶과 사상에서 나타난 정체성도 연구참여
자들의 타자성 실천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강성영(2006)은 본회퍼의
신학을 ‘실천적 해석학’, ‘참여의 해석학’, 그리고 ‘타자를 위한 삶’으로 요
약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주체성도 본회퍼처럼 타자를 위한 삶으
로 요약할 수가 있었다.

본회퍼에 따르면 정체성은 개인의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정체성은 개인 자아의 밖에 존재하며, 예수와의 관계성 아래에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C가 대학시절에 외우고 다

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는 본회퍼가 1944년 테겔 형무소에 수감돼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 본회퍼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묻고 나서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본회퍼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독한 물음 앞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실존적인 대답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자기 실존적 고백은 본회퍼에게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실존적 고민과 실천이 연구참여자들에게도 발현되고 있다.

2. 주체성으로서의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

타자에 대한 사유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동일자와 완전성의 논리에 균열을 내면서, 타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주체성을 수립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 지향적인 사유를 독창적으로 전개했다. 근대적 형이상학의 주체는 외부를 타자와 관계없는 대상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타자의 문제에 닿지 못한다. 타자를 사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은 타자와의 만남, 즉 타자와의 대면에서 주어진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사건을 윤리적 사건으로 규정한다(레비나스, 2000).

자기성의 주체가 타자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얼굴은 자기성의 주체로 하여금 타자의 고통을 자기화하고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떠맡게 한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말하고, 실행되는 힘과 어떤 공통점도 갖지 않는 관계로 나를 이끈다(레비나스, 1961). 타자의 얼굴을 통해 주어지는 관계란 나와 철저히 비대칭적인 관계로써, 대상을 포획하여 자기화하는 객관적인 힘의 관계와는 다르다. 레비나스에게 그것은 명백히 윤리적인 관계가 된다. 타자의 얼굴과 마주한 주체는 자신의 주체성을 인간성이라는 윤리적 차원으로 개방하며,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형성된다.

본회퍼에게 객체는 단순한 의미에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

을 가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본회퍼의 타자성 중심의 신학에서는 객체를 전제하지 않는 주체의 현실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각 개인은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타자가 존재해야 한다(본회퍼, 1963). 본회퍼에 의하면 나와 너의 관계성에 기초한 만남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타인을 책임져야 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간은 그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된다(본회퍼, 2010c, 262-63). 그런데 이 책임은 내가 원하는 책임이 아니라 전적 타자인 신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책임이다(이동춘, 2015). 이것은 내가 강제하지 않은 것이며, 오직 요구에 직면하는 가운데서만 책임이 생겨난다. 타자는 그 자신의 존재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그의 요구에 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그 요구는 절대적이다.

2.1. 다양성 존중

연구참여자들은 주체성으로서 책임윤리를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공통적으로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종교적 타자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타종교를 가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개종을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A는 목사이지만 전도하는 순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 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을 내어주기도 하였다.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왜 종교적으로 강조하지 않느냐. 왜 전도 안 하나 해요. 우리는 전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나는 한 때 이슬람교 아이들이 자기들 기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내 줬어요.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다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해요.” (연구

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으로 타종교인 혹은 타자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거 안 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체성은 오히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배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율법주의적 태도, 바리새인적 태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다 초월했다는 거죠.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체성이 뭐냐인데. 정체성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은 거기서 오는 고난을 겪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해 못해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이 없고, 영혼이 없다고 봐요. 영혼 살린다고 하면서 영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B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주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개신교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있는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틀 자체가 복음 전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인을 만들기 위한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이웃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자리를 닮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거. 거기에 중심이 있다고 보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필요가 없고. 또 오는 친구들에게 강요하지 않죠. 일단. 또 그 친구들이 강요받겠다고 느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권유는 하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린 오후에 성경공부 시간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가치도 누려야 하니까 말씀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선택에 맞기죠.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독실한 이슬람 친구들에게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그 시간 피해서 오니까.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잘 하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친구들은 제 담당이야. 사역자들은 다 안에 인볼브 된 사람들을 케어하고, 저는 뒤에 아웃사 이더처럼 있는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또한 연구참여자 B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주민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친한 친구로 지내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 만난 이란 친구가 교회에 왔을 때부터 극진히 대접하면서, 이제는 아빠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네, 저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란 친구를 제가 사역 초기에 만났는데, 이름도 모함마드야. 그 친구가 여기 현풍에 있는 어느 회사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지역에 교회 교인이었어. 여기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회사에 이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데 소개해 줘도 되겠나. 아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요. 제가 그야말로 VIP 대접을 했지. 그런데 정말 녀석이 좋은 놈이었어.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고 참석하면서, 이 친구가 집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자기 엄마가 우리 집사람과 나이가 같다는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 엄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와이프인데, 너가 엄마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대.” 농담처럼 이야기했더니 아 맞다고. 그때부터 내가 아빠가 된거야.” (연구참여자 B 2018.1.30)

아내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아빠라고 부르는 이란 출신 이주민 덕분에 이란으로 단기선교 여행을 간 일행을 도와준 경험도 있다.

“2년쯤 그래가지고 아들하고도 형제처럼 잘 지내고. 그러다가 귀국을 했죠. 귀국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예수전도단인가 이란으로 단기선교를 간 거야. 딱 갔는데 하필이면 무함마드라는 친구의 동네로 간 거야. 갔는데 자기들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갔는데, 한국말 잘하는 이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또

자랑한거야. 한국에 아빠가 있다. 아빠가 누군데? 물어보니까 목사님이라는거야. 그런데 선교 자체가 이란이라서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거야. 자기네들이 기도 덕분에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한거야. 이 친구를 가이드로 해서 정말 마음 놓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한거지. 그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도 몇 사람 있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가 온거야. 무함마드 통해서 마음 놓고 전도를 하고 왔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심지어 설날 행사 때 이슬람 이주민들에게 기도를 시켰다. 결국 이슬람 이주민들은 코란을 외우며 종교간 다양성이 존중받는 것을 드러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슬람 친구들 만나서 종교적인 선을 긋는다거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를 이단으로 몰아냈겠지만. 심지어는 제가 설날 행사 때 다들 바람이 있잖아. 앞에 나와서 나라별로 기도를 시킨다고. 그 때 제가 이슬람 친구들에게 기도해라고. 그래서 애네들이 앞에 나와서 코란을 외우는거야.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악덕 기업주보다 나쁜 것이라고 여긴다. 이주민에게 전도를 해 본적이 한 번도 없는 연구참여자 C는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민들과 함께 개신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이주민도 있었다.

“저는 15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보다 두배 넘게 사역하신 이정우 신부가 저에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국인노동자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악덕 기업주보다 나쁜거다. 사실 저도 외국인 친구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대신 필리핀 공동체가 천주교인데, 예전이 비슷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친구들에게 개종을 하거나 신앙적인 어떤 것은 없었어요. 단순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했던 거였고. 한번은 그런 적은 있어요. 네팔 친구인데, 암이 걸렸어요.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수 없다. 그 친구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을 했고, 그 친구를 잘 아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세례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를 유일하게 세례줬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018.1.4)

2008년 아프간에 선교사 피랍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먼저 나섰다. 성당에 250여명이 가득 모여서 불교는 불교식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이슬람은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피랍된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 연구참여자 C는 감동을 받았고, 좋은 기억이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 좋은 사례로 남았다.

“우연히 감동을 받았던 게,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2009년인가 8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피랍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내 단속을 하겠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어쨌든 정부가 강제 단속을 한다고 하니, 주의를 요하면 좋겠다 밖에서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하자, 공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사건이 벌어진거예요. 정서상 좋지 않겠다.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국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깐 보류하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좋다 그러면. 그러고나서 성당에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일도 아니고 자기와 관계성이 있고 밀접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성당이 200석 규모인데, 성당에 250명 정도가 가득찼어요. 다 모여서 불교는 불교식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식으로, 이슬람은 이슬람식으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보람이 느껴졌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나서 피켓 들고 경춘국도에 가서 피켓을 들고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피켓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

도 다 좋아하고 우리도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한테 외국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주민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네팔 출신 이주민들이 기도하는 장소에는 십자가, 흰두교 상징물, 부처님 그림이 걸려있는데, 네팔 출신 이주민은 보기 좋다고 이야기 한다.

“나도 가서 기도할 때 해줘요. 너희 알라신이 도와주면 좋겠다. 너희들을 축복 해주면 좋겠다.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도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번에 마석에 갔는데, 네팔 친구가 있어요. 거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는 저희 센터에서 준 건데, 십자가 밑에 흰두상이 걸려있고, 그 밑에 부처님이 있어요. 이하 그래도 좀 떨어트려 놔라 한꺼번에 같이 있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보기 좋대.” (연구참여자 C 2018.1.25)

다양성을 존중하는 타자성이 다른 종교의 상징물을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어울려있는 모습을 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C는 그 덕분에 이주민 외국인들 사이에는 종교적인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들어 와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갈등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지, 이 친구들은 없어요. 이슬람 친구들과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도 타종교를 가진 이주민들을 편파적이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 센터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 후로도 지금도 여기서 같이 만나는 분들이 종교를 넘어서서 같이

활동을 해보면 특히 다문화센터 이주민 센터면 여러나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것을 기준으로만 보는. 언어든 문화든 풍습이든 그렇게 봤을 때는 잘못 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나라 문화나 역사나 신화 그런 배경을 좀 알았을 때 대화가 된다. 거꾸로 내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보면 그 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편견이 될 수 있는데, 넓은 수용을 가지고 보면 정확한 접근을 할 수 있는거죠.” (연구참여자 D 2018.1.31)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고, 서로 치유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기면서, 언어적인 소통이 어렵더라도 차이의 조건을 연결시켜주는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힘이 일차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걸로 소통하고, 언어적인 소통이 덜 되더라도, 그런 성령의 교통함으로, 종교의 차이가 있는 나라가 다르든 나이가 다르든 여러 가지 차이의 조건을 연결시켜주는 신앙이 되는 거지. 나하고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담과 공동체 모임과 이런 걸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 같애.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고, 치유 대상이고 아니면 서로의 만남에...” (연구참여자 D 2018.1.31)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에 대한 성찰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배려와 공정의 다문화적 태도를 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적 태도란 문화의 상이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타문화 구성원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정서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다원적인 개념이다(이화도, 2011a).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적 태도에 근거하여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관용의 정신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다.

2.2. 타자중심적 책임 윤리

본회퍼에게 인간이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본회퍼는 『윤리학』에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본회퍼의 사회윤리에서는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개인의 책임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재길, 2010).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얼굴과의 만남은 정서적인 혹은 심리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존재자체의 궁극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만남은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존재 안에 머무르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진정한 주체성이 구성된다. 왜냐하면 존재 유지의 욕구보다 더 앞서서 무한자에게로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레비나스, 2000).

연구참여자들은 주체성을 타자와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절대적인 책임윤리에 따르는 데에서 타자성이 실천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타자 중심적인 책임 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타자들의 생애사를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누구든지 생애사 같은 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밑바닥에서 살았던 이름 없는 분들의 삶에 대해 재평가를 해 주고, 재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애사 같은 것을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본 적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평가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 평가라기 보다는 주관적 평가라도 재해석을 해주고 재평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밑바닥에서 살았던 이름 없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뤄져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는 동네 가난한 주민들 중에 보호자가 없는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타자중심의 책임윤리를 드러냈다. 가족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의 장례를 치루면서 그 사람의 생애사를 전반적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지만, 타자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의미를 발견했다. 연쇄살인범일지라도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도 제대로 대접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비인간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끔 장례를 치러요. 노동자들이나 이 동네 가난한 주민들 중에 보호자가 없어서 치를 수 없으면 우리가 다 하거든요. 사실은, 심지어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장례를 치루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례식 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쓸데 없는 삶이고, 의미 없이 사는 것 같고, 오히려 남들을 괴롭히기만 했는데, 또 그것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된 원인 같은 것을 나는 좀 달리 보죠. (중략) 대전에 막가파나 지존파 같은 연쇄 살인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때 다 사형시키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만 반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람들을 무자비 하게 살인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태연하게 모든 것을 재연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일찍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보통 연구에 의하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한 사람이라도 믿어줬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한 사람도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준거예요. 완전히 비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비인간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나 윤리의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연쇄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이다. 이 시대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형시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중략) 우리 사회가 사랑해주지 않는 대가를 결국 우리가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

는 것과 같은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또한 연구참여자 A는 타자중심적 책임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계속 일이 많아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례를 발견하면, 그것을 하나의 특정한 사례로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접근한다.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역의 수요조사를 하고 이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일을 맞춰서, 그야말로 타자중심적으로 일을 하고자 한다.

“아무튼 항상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일이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속 다가온 사람, 나한테 도움을 청해 오는 사람을 나는 거절을 못 했고, 사건을 통해 만난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나면,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출근했기 때문에 죽었다. 길거리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가 이 동네에 몇 명이나 돼나. 이렇게 보죠. 지역조사를 한거죠. 우리가 설문지를 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적이 있어요. 82년도에 지역조사를 먼저 했죠. 우선순위가 그런 것이었어요. 노동자 문제를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사람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노동선교 쪽으로 4가지, 주민선교 쪽으로 4가지 정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생명선교 4가지 정도 있어서 12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다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혹은 어떤 사람들이 부탁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규모가 커지는 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돌아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체로서 민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면 사회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환경적이거나 환경이 항상 지배당하거나 의존하거나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거예요. 전체로서의 민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지는 도덕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거나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거죠. 그런데 정죄를 하고나

서 돌아서버리면, 안 되는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죄하고 돌아서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레비나스는 타자를 전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 개념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다시 윤리와 연결시킨다(이상철, 2015). 레비나스의 윤리는 상징계 밖에 무한에서 유래하는 실재(the Real)의 윤리다. 실재의 윤리는 법 밖의 정의, 법 밖의 윤리, 체제에서 배제된 자들을 향한 윤리, 법 밖에서 지워진 자들을 향한 정의로 나아간다. 연구참여자 B도 잘못된 법적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책임 윤리적 대책으로 법률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해외 투자법인 연수생 제도가 그랬다. 일종의 노예 계약 때문에 연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주 연수생들의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그들을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2004년으로 기억나요. 물밑듯이 상담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이 해외 투자법인 연수생 제도가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기업이 외국에 설립해서 사람을 뽑는거야. 그러다보니까 계약서에 연수생이 받는 연수비 이런 것들을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액수를 정하는거야. 정해놓고 그 사람을 한국에 와서 연수시킨다는 목적으로 일을 시키는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그 당시에 220달러인가 그것만 줬어요. 그러니까 터무니 없는 연수비로 일을 12시간 맞교대로 돌린거야. 본인들도 뻔히 알아. 자기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나마 그런 돈이라도 받는 것이 자기 나라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뻔히 하는 거죠. 노동강도나 그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거야. 계약을 하고 오는데 만기 되어도 가기 싫은거야. 이탈을 하잖아.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출국하면 자기 나라에서 지급한다는 노예 계약을 하고 오는거죠. 그 친구들이 이탈해서 나와서 센터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 터무니 없는거야. 일을 했는데, 임금이 임금이 아니잖아.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이야기하고, 노동청에 문제제기 해도, 연수생 제도의 틀 안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한다. 아니다 이들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연수생들도 임금을 제대로 줘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어.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도가 바뀌게 돼

조.” (연구참여자 B 2018.1.3)

산업연수생 제도의 잘못된 폐해들을 내국인 중심이 아니라, 이주민 즉 타자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자발적으로 불법이주민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법률 개선을 위한 싸움으로까지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 이전에 산업연수생제도의 잘못된 폐해들이 무척 많았죠. 천만원 가까이 쥐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받는 비용이 많아졌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탈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아지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이주민이 되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 자체가 양산하는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웠죠. 개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허가제 법률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가 또 있어. 어쩔 수 없는 제한된 노동, 그러니까 노동권리가 제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책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시각에서는 외국인 차별 금지라고 하는 헌법 가치가 있고 노동법 안에도 있고 한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적용 이런 것들이 인권과 관련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차별 이런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할 수 밖에 없는.”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C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접근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뉘는 것처럼 내가 이웃하고 싶은 사람과 이웃하기 싫은 사람 혹은 정 이웃과 비 이웃이 나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웃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 이웃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웃하기 싫잖아요. 내가 봐도 장애인, 에이즈, 외국인 노동자는 이웃하기 싫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는 그 이웃이라는 개념조차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져있는 것처럼 다 경계가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또한 연구참여자 C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될 수 없는 외국인과의 충돌 문제에서 국가라는 테두리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걸 맞다고 생각이 돼요. 보편적 인간에 대한 권리 보장이 법의 가장 기본 정신인데,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늘 충돌하는거죠. 외국인과의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국가와의 충돌, 이 지점에서 한계를 느끼는거예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외국인들도 외국인들 나름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타자화하면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망가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타자중심성을 근간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점이다.

“외국인들은 국민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닌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성이 있는 것인데,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대하고 어떤 결정을 지어버리면 우리들 스스로도 서로의 존엄을 망가트리는 게 아닌가.”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C는 이주여성들이 국가를 위한 노동력이나, 출산의 도구로 여겨지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 이주민들을 그들의 고유성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관점과 제도적 접근에 대한 반감이 크다.

“한편으로 거기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형태 자체가 국가가 조장하는 공공 매매의 성격,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거기에 뒷받침되는 가부장,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뿌리 깊은 게 담겨져 있는 상황 등. 이런 것들이 인구 정책 내에서 가려져 있는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갈 때는 좋은 이야기 하죠. 좋은 이야기로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우

리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만큼 되기까지의 토양이 우리 한국사회에 내에 있느냐. 다문화 가정 내에서 향후 자라나서 한국의 이런 토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구정책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도 타자중심적 책임윤리를 실천한다. 쉼터 생활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 규칙에 따라 3개월이 넘었는데 갈 곳이 없는 이주민을 강제로 내쫓지 않는다. 규칙은 깨지지만, 특별한 경우에 타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 즉 타자 중심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귀가 문제. 우리 쉼터 같은 경우는 연간 3개월 정도는 머물게 한다. 그런데 3개월이 넘는 사람은, 1년에. 연간 3개월 정도를 머물게 한다. 3개월이 넘은 분들은 다른 쉼터로 보낸다. 그런데 지금도 1년 넘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은 자기가 임무니까 트러블이 발생하지. 나가라. 이 사람은 나 갈데 없다 못 간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책임자니까 있게 해야 되는데, 있게 한다기 보다는 실무자 말처럼 나가라 나가라 같이 했지만, 그래도 원칙은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이 갈데 없으니까. 난민인데, 지금도 있어요. 1년 넘게 머무는. 그런데 물에는 완전히 깨지는거지. 그러면 그거를 공간이나 기회를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들어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하니까, 가끔은 물에는 벗어나는 일을 자기가 어려워니까 하는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이 타자중심적인 책임윤리로 실천되는 부분에서 본회퍼의 신학과 삶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회퍼는 타자를 위해 살았던 예수 자신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면서, 이웃인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타자를 위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교회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보았다. 나아가 책임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표로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타자에게 바치는 것이 된다. 본회퍼가 신학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지 않

고, 타자를 위한 도움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윤리를 타자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봉사 기관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성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문화의 공존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윤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은 인간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타자로서의 그들에 대한 존중과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성 문제이다. 다문화적 인성은 인간존중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타자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타자로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타자를 수용하며 타자에게 선을 행하고 타자를 위해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이다(이화도, 2011a).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중심적인 책임윤리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적 인성을 이주민 봉사기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2.3. 상호주체성

기든스(A. Giddens)는 세계화를 서구 지배의 확산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는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문화도 더 이상 강한 의미의 타자로 존재하기 힘든 만큼 문화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며, 이런 대화의 기저에는 서구적 민주주의가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형태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특히 개인들이 지역공동체의 맥락으로부터 벗어나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관계들을 형성하는 탈맥락화(distanciation) 현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앤서니 기든스, 1991: 32).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을 일방적인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상호 주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타자를 재인식한다. 연구참여자 A가 실무자들에게 받는 불평은 이주민들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것이다. 거짓말을 잘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주민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잘 대

해준다.

“실무자들이 가끔 왔다가 떠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면, 목사님은 너무 잘 해준다. 자기가 해 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덕성도 그렇고 예를 들어 간음도 많고. 나는 맨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으로서의 민중이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민중, 전체로서의 민중에 대해서 존경하고 메시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으로서의 민중은 엄청나게 모순된 존재라는거죠. 예를 들어 거짓말도 잘 하고 낭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걸 먼저 정죄하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A가 상호주체가 되기 위해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 가능한대로 내주고 최선을 다해서 타자를 세워주는 것이 방침이다.

“우리는 다 존중해줘요. 마치 우리가 부자이고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는거니까 불평하고 요구해도 된다는 그런 태도죠. 그것은 사실 힘들죠.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만일 안 도와주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능한 대로 다 내준다.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 이것이 우리의 방침이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이주민들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을 함께 세워가는 주체로 인정한다. 이주민들이 교회에 오면 좀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지내는 주체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거야. 제 마음 속에서 이게 흔쾌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암만 해도 이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이주민을 주체로 세워서. 이주민들이 이 교회에 오면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이런 모습으로 하기를 바라는데. 제 편견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 봉사하라고 시키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리스펀스가 잘 안 오니까, 거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다거나 뭔가 안 되니까 좀 충돌하더라고. 힘들다고 하면 또 명령조로 하는 것 있잖아.”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이주민들이 카페에서 성경공부를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언론사에 소개된 사진은 다음 [그림 5-2]과 같다.



[그림 5-2] 연구참여자 B의 교회 카페에서 성경공부하는 이주민들

연구참여자 B는 이주민들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과 존재가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상호주체성을 인정하다보면 베트남 쌀국수의 진미를 맛 볼 수 있고, 세다는 선입견이 있는 중국 사람과도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란, 터키, 방글라데시 친구들과 가족관계를 맺으며 자신이 확대되는 경험을 누리고 있다.

“내가 이주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언제 베트남 쌀국수의 그 진미를 맛 볼 수 있었겠는가. (웃음) 어...그저 좀 뭐 더럽다는 느낌, 조금 세다는 느낌이

가졌던 중국 사람들이 깊은 정을 나누면 그들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란 친구나 터키, 방글라데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이웃 관계를 넘어서 가족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민족과 나라, 인종을 뛰어 넘어서 이웃관계가 넓어지고 큰 가족이 되는 마음들. 거기서 오는 기쁨이 크죠.”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주의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사람들이 이주민들을 알게 모르게 낙인 찍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인종차별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말로만 이웃이라고 하지, 이주민들을 자기와 동등 된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으로 타자를 규정하고 낙인 찍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생각은 연구참여자 C의 상호문화 이해에 근거한 타자성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람들이 90년대 초반에 외국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거든요. 동정주의 내지는 시혜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었는데, 그게 조금 바뀌어서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잠재적인 범죄자 내지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 인종차별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생긴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웃은 이웃일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와 동등 된 사회적 구성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략) 또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낙인을 찍는거예요. 너, 외국인.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결혼이주민 같은 경우만 우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다 밀려나게 돼요. 알게 모르게 낙인찍는 사회.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연구참여자 C 2018.1.4)

아울러 연구참여자 C는 정부의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정책과 인식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주체적인 이주문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가지고 당사자 중심의 주체적인 운동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외국인 관련 사업은 사실 한국사회가 아직, 다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다문화의 성격이 많이 있는데 동화주의적인 다문화예요. 그 동화주의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블랙홀이에요.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동화주의적인 것. 한국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는 다 제외되는. 저는 그래서 블랙홀 다문화주의다. 한국어로. 다문화를 가장한. 한국사회가 정말 다문화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중략) 저는 오히려 자발적인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권리를 스스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당사자들에 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전에는 타자적인 성향이 강했고,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지금은 정부가 모든 것들을 제도와 정책을 끌고 가는, 그러다보니 이주민 당사자들은 늘 항상 의존적이다. 어려운 거 있으면 부탁하고. 자기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하지를 못한다. 그런거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네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당연한 건데.” (연구참여자 C 2018.1.4)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의 당사자 문화를 정부가 말살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가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관련된 당사자 문화라는 것 자체는 정부가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찬찬찬이나 부르고 그런 노래를 잘 하면 상도 주고 하지만, 한국의 이주문화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한국사회 내에서 이주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문화가 없다는 것은 웃기잖아요.”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오히려 외국인주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과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다문화를 꿈꾸고 있다.

“내가 외국인한테 배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고정관념. 아마 내가 이 활동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그런데 외국인과 만나

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거죠. 저는 다문화 관련된 생각에서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이해다. 이해. 타자에 대한 이해.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문화가 아니다. 한국화 되어야 하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상호간에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게 다문화의 핵심인 거지. 어떻게 이 친구가 한국화 되는 것이 다문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C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배우면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팔 친구도 외국인 보호소에 있다가, 한달만에 내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너네 나라 음식 잘하는 레스토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밥이나 먹자 했더니, ‘아니야 김치 찌개 먹고 싶어’ 이래요. 그렇게 달라진 부분들을 서로 메꿔 나갈 수 있는거죠. 쓰레기 버린 것도 내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행사할 때 너희들 분리수거 안하면 장소 못 빌려줘. 그 다음에 행사할 때까지는 분리수거 해요. 다 치울 때까지 내가 보고 있지. 그런 것처럼 뭔가 서로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가는 부분도 서로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뭔가 다른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필요는 있는거죠.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려운거니까.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같이 살아갈건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같이 살건데.”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는 오늘날 민중인 이주민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어려운 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만드는 데 함께 하는 동역자로 여긴다. 힘을 합해서 평화를 이루고, 변혁을 도모하는 상호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민중들의 기준점은 민중들이 뭐랄까 민중들의 요구? 민중들의 요구와 현실을 (종이에 적으며 천천히 이야기함) 민중들의 요구와 현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현장이다. 여기가. 물질이나 시대 상황을 민중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고, 노동자

가 여러 가지로 제일 어렵고, 살기 어렵고 자살률이 많고 산재가 많고 세계 노동 시간 1위이고 그런 어려운 조건을 최근 표현으로는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세상이다. 그런 헬조선을 하나님나라 같은 하나님나라로 이 땅의 하나님나라로 만드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모든 기준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민중들을 그걸 깨우치고 힘을 합해서 억울한 것을 풀고 평화와 그런 권리라고 할까 권리를 찾는 내 표현으로 따지면 요즘 관심이 쏠려 있는거지. 변혁의, 변혁의 현장이다. 일터다. 변혁의 사역이다. 변혁의 사역이다.” (연구참여자 D 2018.1.31)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지향적인 절대적인 책임윤리라는 주체성을 실천하고 있다.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해서 키젤(Kiesel)은 상호작용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 파트너들과 모순되는 행위요구를 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한다(Kiesel, 1996: 209). 연구참여자들끼리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상호작용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에서 타자성이 실천되는 양식을 볼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타자중심적인 책임윤리를 가지고, 상호주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주체란 서로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서로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소통하고 통교함으로써 자아를 실현시켜 나가는 상호주관성을 지닌 주체이다(이화도, 2011). 이는 나(주체)의 정체성은 오직 너(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타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인간에게 있어 주체로서의 자기긍정의 필수적 요소는 타자긍정을 통하여 상호주체로서의 자아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에서는 상이한 문화들의 현존과 이들 사이의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공통된 문화적인 표현의 형식들을 창출한다(박인철, 2010). 즉 문화 간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통성을 지향하면서 상호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을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실천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주체성은 타자를 향해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주체성을 ‘타인을 받아들임’ 또는 ‘타인을 대신하는 삶’으로 새롭게 정의했다(Levinas, 1969). 타자를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타자를 내 손님

으로 환대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윤리성이 시작되며, 이로써 전체성의 틀이 깨어지고 참된 무한의 이념이 자리할 공간이 열릴 수 있음을 강조한다(강영안, 1990). 연구참여자들에게 인격적 관계와 책임감은 타자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한 수궁과 책임의 자세를 요구하였다. 얼굴을 마주하는 상호간 정서적인 이해와 유대는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되었다.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나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와 책임감은 중요한 윤리적 덕목이 된다(윤대선, 2015). 또한 본회퍼에게 성도의 사명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욕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현실에 기초한다(본회퍼, 2010b). 개신교 성직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주민과의 사명은 그리스도에 기초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상호주체성이 가능한 것이다(김병권, 2003). 본회퍼와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봉사 기관이 기관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본회퍼에게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모델이 예수였듯이, 연구참여자들의 모델은 타자중심적인 책임윤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실천되는 타자윤리는 주체를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인식하기 때문에 타자중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주체 자신의 행위적 본성에 따르는 윤리가 아니라, 상호주체성에 근거한 다문화 이주민 중심의 책임윤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문화 봉사기관에서 재직하면서 다문화 이주민과의 실존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책임감에서 절대적인 책임윤리가 비롯된다.

타자중심적인 책임윤리는 생명에 대한 동정과 희망을 강하게 근저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책임관계를 구성하며 이런 관계에서 타자는 주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는 나와 타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인데, 이로써 나와 타자 사이의 책임관계가 요구된다. 특히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텐데, 이럴 때 통용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절대적인 책임윤리를 포함하는 주체성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타자

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책임윤리의 가치를 타자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재직하며 마주하는 모든 가치의 중심은 나와 타자 사이의 파괴될 수 없는 실존적 관계와 책임감을 수반하며 존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가치를 공공의 윤리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관계의 상호성 또는 상호주관성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한 교육은 폭력의 반복이고, 교육적 관계는 도구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우정길, 2009). 교육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교육도 표면상의 일방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적·구체적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히 상호적이다. 어느 한 개인만의 책임성이나 서로 동등한 책임성이란 없다. 책임은 항상 타자와 마주한 각자의 몫이며, 타자와의 사권의 관계 속에 있는 실존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함께 다문화사회를 세워가는 협력자로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진정성으로서의 지속적인 연대

‘진정’이라는 단어의 한문 표기는 眞正과 眞情으로 두 종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진정(眞正)은 “거짓 없이 참으로”를 뜻하는 부사, “참되고 올바르다”를 뜻하는 형용사이고, 진정(眞情)은 “참되고 애뜻한 정이나 마음”을 뜻하는 명사다. 용례를 보면 둘의 의미는 중첩되는 듯하고, 일상에서는 ‘진정’을 다의적으로 사용한다. 진정(眞正)은 수식하는 동사의 행위가 진짜임을 뜻한다. 진정(眞情)은 느낌 또는 느낌을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마음을 뜻하고, 이것이 없는 말은 공감하지 않는 상태의 한갓 상투적인 말, 또는 진심을 담지 않은 빈말, 또는 아무런 느낌 없이 남의 말 하듯 하는 말 등으로 이해된다(하병학, 2015).

심리학에서 진정성이란 “참된 자기에 대한 이해, 체험과 행동의 일치”를 의미하는데(Rogers, 1961; Guignon, 2000), 정신분석 분야에서는 부산물

로서 인식되는, 분열된 ‘개인의 내면과 외면’을 통합해야하는 과제로 인식한다. 사회철학에서는 진정성을 고립되거나 원자화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자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관계에서의 책임과 윤리적 실천’간의 일치에서 찾으며, 사회도덕적 책무감에 기반한 ‘사회적 배태성’을 강조한다(Taylor, 1992; 송재룡, 2011; 김홍중, 2009).

이처럼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과 타자라는 두 가지 차원의 논의가 담겨 있다. 첫째, 개인의 진실된 감정과 관련된다. 진정성은 현재의 감정이 진정 나로부터 비롯되고 유지되는 것인지, 한갓 타인의 모방이나 타인의 충동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짓 감정은 아닌지 하는 물음과 분리될 수 없다. 둘째, 진정성은 타자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다. 타자와 공감의 이루어지기 위해 말하는 자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투여하고 언술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해야 한다(하병학, 2015).

한편 연구참여자 A는 “진정성이 있다고 함은 위선이 없어야 한다”(연구참여자 A 2018.1.30)고 말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 없는 진정성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의사소통과 윤리적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면서 투명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회퍼가 강조한 타자를 위한 공동체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회퍼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를 필요로 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형제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는 확실하기 때문이다(본회퍼, 2010a).

본회퍼에 따르면 동질성이 아닌 다름의 공동체, 즉 타자를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성찬(Communion)과 코이노니아(Koinonia)에서 나타난 참여, 연결, 관계,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시간 속에서 수용되었고, 영원을 위해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사려 깊게 분별하면서 참여와 포

용, 연합으로써의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본회퍼, 2010b).

이러한 진정성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며, 제도 개선과 개혁하려는 노력으로 발현되고 있다.

3.1. 지속적인 관계 유지

연구참여자들은 한번 만났던 이주노동자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연구참여자 B는 네팔, 스리랑카 등에 이주민을 파송하고 직접 가 보았다. 한 네팔인은 한국에 이주노동자로 와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돌아가서 연구참여자 B의 교회이름을 따라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네팔인인데, 7년 정도 전에 이주민노동자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산재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네팔로 돌아가면서 기아대책 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했어.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그 친구에게 도전 받은 친구가 4년, 5년 됐나? 남편은 스리랑카, 부인은 중국사람. 한국에서 애 둘 놓고 잘 생활하다가 스리랑카 현지에 가서 고향 마을에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 평화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엄청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 그 친구들을 후원하는 박희범 목사님과 네팔 현지를 갔어요. 그 친구 사역하는 현장에서 3일동안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일을 계속 해라. 저도 사실 늘 후원자 모금해서 보내는 일만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중략) 제가 굉장히 뿌듯한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씨앗을 돌짜밭에 길 밭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산돼 나간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보이는거야.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한국에 와서 봤잖아. 우리 센터가 어떻게 이 주민들을 돕는지 다 보니까 컨셉이 다 똑같아. 자기들도 가서 여기저기서 모금하고 계속 베푸는 삶이야. 짬짬히 복음도 전하고. 유치원하는 스리랑카 친구는 시련도 많은거야. 불교국가니까. 그래도 식사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크리스찬의 문화를 접하고 삶으로 전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친구들 때문에 힘을 얻죠. 어른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 산지 학교 아이들, 강가에 돌 깨서 1달러 받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에 있는 친구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거야.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든 그들을 섬기고 친구가 되고 심지어 가족 관계 형태로 하다보면, 가족인데 서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겠나. 그 이유만으로 싸우겠나? 그래서 나는 서로 관계를 맺는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친구들이 방글라데시, 터키, 이란, 주로 회교권에 있는 친구들과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거지.”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도 한번 만난 이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नेपाल, 몽골 이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준 감사패가 사무실에 놓여있다.

“네팔 공동체 친구들이 준게 저한테는 훈장이죠. 대사에서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어요. 친구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연구참여자 C 2018.1.25)



[그림 5-3] 연구참여자 C의 센터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감사패

[그림 5-3]처럼 연구참여자 C의 사무실에는 이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감사패가 5개 정도 놓여있다. 감사패를 만들어서 줄 정도로 신뢰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주민들이 단속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제 3국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다.

“단속되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한 친구는 아랍에미리에이트에 다시 이주 노동으로 갔었는데 다시 연락이 안 됐고. 한 친구는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만났죠. 만난 친구도 있고.” (연구참여자 C 2018.1.4)

한국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경험도 했지만,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처럼 연락을 지속하며 지내는 이주민도 있다.

“어려운 일로 왔는데 내 말을 듣고 약도 먹고 그 당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지만, 잠을 같이 자면서까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케어되어서 병이 좀 나아서 다시 현장으로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왔는데, 또 말을 잘 들어서 억지로라도 치유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귀국해서 지금까지 아들처럼 연락

도 돼고 결혼도 해서 잘 된 경우도 있고.”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 D도 한국에서 도움을 준 필리핀,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고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 연구참여자 D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에 비하여 이주민 연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꾸준히 하는 이주민들이 곳곳에 한명씩 있을 정도다. 1978년에 필리핀에서 파송한 활동가가 지금까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준 동역자로서 센터에서 여러 경험을 함께 한 이주민들이 각자의 국가에 가서 연대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따지면 곳곳에 한명씩 있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필리핀에 존스칼라 선교사 같은 경우는 1978년에 이주민을 위해서 필리핀 연합장로교회가 파송한 활동가예요.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오래 됐죠. 원래 필리핀에서 신부 수업을 받던 분인데, 사회 선교 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그 속에서 여기 와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러 온 거지. (중략) 준 동역자로는 여기 저기 이주민 중에서 초기에 오산 센터를 만들 때 네팔에서 온 노동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다양한 헌신력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일은 자기 일대로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오산이주센터 처음 설립할 때 이주민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소통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 D는 이주민 봉사 기관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연락하며 지내는 타자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협력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강한데, 이는 진정성에 기초한 타자성이 발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3.2. 다양한 연대활동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회퍼의 윤리 의식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한 개인

을 통해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구원한다. 한 개인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윤리적 책임은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확장된다(본회퍼, 1974).

이렇게 확장된 책임의식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연대활동으로 표현된다. 자신의 활동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혈연, 지연, 학연 등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연대’라는 단어는 조급한 기대처럼 보인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 사이의 대화와 연대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인종적 차이와 문화적·종교적·언어적 차이를 전제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힘을 모으는 관계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이 실천되는 다양한 연대활동의 사례들은 진정성 있는 연대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A는 낮은 곳, 고통 받는 사람 또는 고통 받는 존재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곳, 고통받는 사람 또는 존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 그럴까 마음이 항상 가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아진 이유가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천안에서 오피스텔 사기 분양을 당해서 계약금도 떼이고 마치 범죄자처럼 되어 버린 사건이 있어요. (중략)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탓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꼭 노동자 농민만이 아니라는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이 이런거다 최근에 와서 세삼스럽게 느끼는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지식과 돈과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뜯어 먹는 방식이 굉장히 크다양하고 치밀하고 악랄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제가 일이 많아지는거죠.”
(연구참여자 A 2018.1.30)

오피스텔 사기 분양을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농-도-민 삼각연대 공동체운동’도 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와 민중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순들을 극복하고 연대하며 협동조합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연대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도민. 농민하고 도시의 민중과 시민. 이 삼자가 결합해서 생명공동체를 만든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전국 차원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모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족 모순이 있고 민중 모순이 있는데, 농도 모순이 있어요. 농촌과 도시가 서로 연대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생태 모순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과 생태계가 서로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녀모순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모순들을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설정하죠. 그 중에 농도모순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민도 농촌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도 만들잖아요.” (연구 참여자 A 2018.1.30)

베트남 지역과 연대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A가 재직하는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주민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따라 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을 지구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부른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문화패를 만들어서 레인보우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고국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학교 시설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서로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의 개발사업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실시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열매가 크지 않은데, 돌아가면 자기 마을에서 뭔가를 시작한다는거죠. 우리가 관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기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문화패를 만드는거죠. 레인보우 코러스라고 불렀다가 레인보우 예술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방문해서 거기 마을에서 민박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기부하고 친교도 하고 함께 공연도 했어요. 거기 가서 베트남 학교가 낙후되었거든요. 시설도 낙후되고 해서 교체해주고 텔레비전도 설치해주고, 앰프도 설치해주고 했어요. 거기 출신 엄마들이 이쪽에서 또 모임을 하는거예요. 모금을 해서 그 쪽을 도울 것은 연구하고. 운동하고. (중략) 우리가 가서 인터뷰했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다문화아이들과 방문해서 자매결연도 맺을 계획이 10월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여기 온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같이 가고, 같이 프로그램하는 형태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개발사업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컨설팅하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A 2018.1.30)

연구참여자 B는 대구지역의 대학 교수가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은 계명대학교에 다문화 이민 센터인가? 김해순 교수님 운영하시는, 운영이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원장으로 그분하고 교류가 있고요.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민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는 mou가 되어 있어. 서로 교류하자. 학술적인 부분, 우리는 현장에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교회가 아닌, 여기 지역에 이주연대 회의라는 데가 있어.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위한. 긴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주연대라고. 거기와 협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또한 연구참여자 B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대구시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이웃끼리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면서 멀리서만 보다가 가까워서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장난도 치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소통의 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2년동안 하다가 제작년에 주춤하다가, 2017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어. 예산은 작지만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 해서 6개월 동안 음악회도 하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랬어. 이웃과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다들 좋아하더라. 특히 한국사람들도 이주민들을 보니까. 맨날 먼 밑에서 보니까 마음이 닫히는데, 가까워서 밥도 같이 먹고 장난도 같이 치고 하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B도 장기적으로는 마을공동체 운동을 꿈꾸고 있다. 너무 폐쇄적으로 되어버린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한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홀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연대활동을 하는 것이 약한데, 그러한 현실이 오히려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B가 재직하는 센터가 있는 지역은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사람들과 섞여서 어울려 살 수 밖에 없으니, 앞으로 마을에서 다양하게 연대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꿈을 꾸고 있다.

“마을공동체 꿈을 꾸고 있어. 동네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예요. 동네 목사님들 불러다가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하자고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약한 부분이 오히려 해야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주민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한국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음악회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싶네요.” (연구참여자 B 2018.1.3)

연구참여자 C는 통일운동에 연대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접근의 측면을 한국의 관점으로 보면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민과 어울려 사는 것이 건강한 통일국가로 갈 수 있는 훈련과 학습의 장이라고 여긴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은 통일 이후에 발생할 일들에 대한 바로미터다. 연구참여자 C는 다문화 이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경험이 통일의 경험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사실 외국인 측면을 한국의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통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일 국가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훈련과 학습장이다. 이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속에서 100개국 이상 200만이 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걸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차후에 북한과 통일, 북한사람들의 이념과 생각, 문화와 생활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냥 하루 아침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거죠. (중략)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다. 통일에 대한 학습장이

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참여자 B 2018.1.25)

이처럼 연구참여자 C는 늘 분단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뿌리 깊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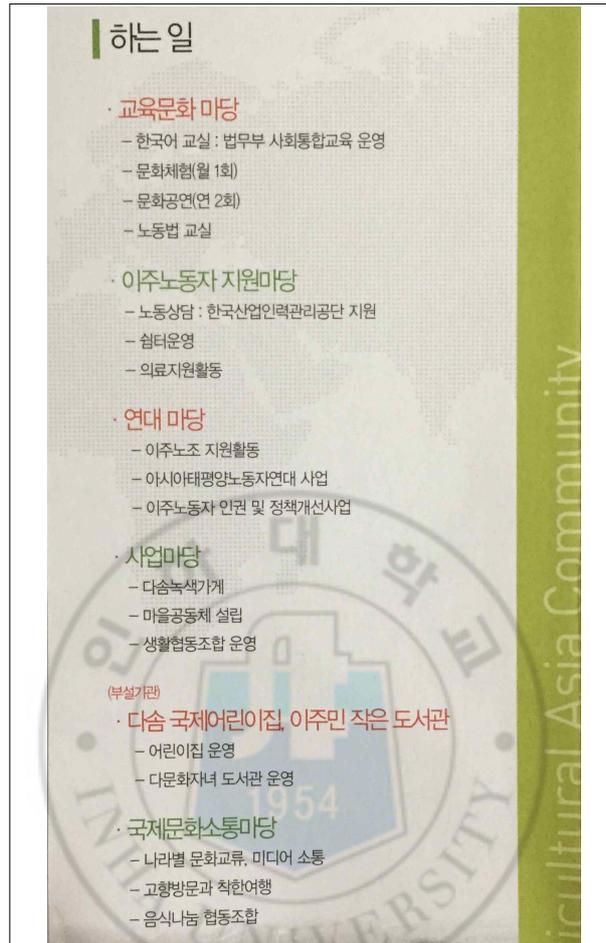
“제가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늘 걸리는 게 남북한 분단이에요. 늘 걸려 있어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바람직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걸림돌은 늘 거기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에 더 봉착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C 2018.1.25)

연구참여자 D는 아시아노동자 연대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D가 재직하는 센터는 처음부터 아시아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관점과 조직이 있었다.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아시아 관점이 있었지. 아시아 노동자 연대지. (중략) 그 속에서 만나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만난거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교류와 소통, 연대에 발판 하에 진행된 것이 지금 이주민 선교로 된거죠. 그 당시는 URM 속의 교류고 협력이고 협력사업이었지.” (연구참여자 C 2018.1.31)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그런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어있고,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있고. 그런 땅이 장점이지요. 교회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연구참여자 D 2018.1.31)

연구참여자 D가 재직하는 센터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를 지원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및 정책 사업과 녹색가게와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에도 다양하게 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5-4]와 같다.



[그림 5-4] 연구참여자 D의 센터 홍보 브로슈어에 나타난 연대활동 내용

연구참여자 D도 또한 평화통일과 민주해방 사회에 대한 꿈이 강하다.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 유공자를 모집했는데, 연구참여자 D는 참가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D가 바라는 사회는 평화통일이 되고, 민중의 고통이 해방되는 사회인데, 아직 그런 사회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평생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김대중 노무현 때 민주

화 유공자를 모집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78년 9월에 내가 싸우고 다친 것이 민주화기념사업회에 가면 명예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고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평화통일과 민중의 고통이 평등한 속에서 해방사회가 되기 전에는 그 때 상을 받을 일이지, 하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지, 민주화 운동에서 상을 받는 것은 포기한 거지.” (연구참여자 D 2018.1.10)

본인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타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3.3. 제도 개선과 개혁 노력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제도 개선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타자윤리학은 근본악을 드러내고, 다르게 사유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보려고 노력했다. 다르게 사유한다는 것은 타자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나를 내세우면서 타자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근본악이라고 규정한다. 근본악과의 투쟁을 선언한 레비나스는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며 타자에게 선을 행하고 타자를 위해 책임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근본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시도한다(강영안, 2005). 이처럼 타자를 위한 책임윤리적 행동으로서 근본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법 제도에 대한 개혁의지도 타자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B는 센터가 시작될 때부터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도로 바뀌는 전환 과정에서 법률적 개선에 깊게 기여하여 성과를 경험했다. 이슈 투쟁만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까지 직접 만들어냈고,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주민들이 노숙인보다 더 바닥에 있고 모든 권리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중략)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 센터가 시작될 당시에 엄청난 투쟁이라고 이주민 인권과 노동을 위한 투쟁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결과가 산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바뀌는 전환,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데에 우리 센터가 기여한 바가 있다. 이슈 투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직접 만들어내고, 산업연수생도 노동자라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또 사업주와 직접 다이렉트로 싸워서 최저임금도 받아냈죠. 실질적인 법 투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연구참여자 B 2018.1.3)

이주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경험과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이주민 관련된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상부 조직인 노회가 아직까지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시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이주민과 함께 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어느 특수한 사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빨리 제도적으로 총회든 어디서든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좋은 황금어장이 다 날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답답해. 우리 노회만 되도, (중략) 아무리 이야기해도 노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개척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서 조금 도와줄게. 이정도 밖에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시스템을, 공적 사회로 만들어서 실무자들 운영하고 하긴 하던데, 그게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특수한 교회든 센터든 뭐 성공했다, 거기는 뭐 일반적인 모델은 아니야. 일반화된 모델이 될 수 없다.” (연구참여자 B 2018.1.30)

나아가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차별적 대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그런 부분에 목사들의 역할들도 있어요. 일반 노동 단체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민주노총이나 지역의 시민운동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 그것이 이슈를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무게가 가볍지 않다.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회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 이주노동자나 혼인이주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연구참여자 B 2018.1.30)

연구참여자 C는 이주민들이 결국에 국익이라는 우선순위에서 정책적으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여러 지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에 가서 봉착되는 지점이 뭐냐면, 어느 한 순간부터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이 국가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표방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책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국익이에요. 국가의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국익에 편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편승해야지 한국이 요구하는 것에 반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거기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에 맞춰야 한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도, 헌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을 보호하자는 거죠.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거지, 거기 외국인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제가 늘 부딪치는 지점이 그거예요.” (연구참여자 C 2018.1.25)

또한 연구참여자 C는 출입국과 싸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한 부속품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는데, 바르게 바뀌어야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은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본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이주의 문제가 단순하게 외국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중략)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연구참여자 C 2018.1.4)

연구참여자 C는 저서에서도 제도 개선과 법률적인 보완에 대해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미봉책보다 모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제한외국인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권리보장법, 이주민인권보호법 등이 올바르게 역할을 해서 이주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봉책보다 모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제한외국인기본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법도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아동권리보장법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상태인데 통과되지 않았다. 지금의 문제들은 이주민인권보호법을 만들어서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불법이라는 섬에 가두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선진 이민국가로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고영란, 이영, 2013: 282)

또한 연구참여자 D는 총회에서 이주민 활동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 교회가 따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하면서 평등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도적인 뒷받침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도 내가 매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동안 역사와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온 교회가 매뉴얼 같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이주민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유년부 교재, 소년부 매뉴얼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복잡하

지 않고, 상식적인 것을 만들어서 온 교회가 이주민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유하면서, 어느 특수한 기관만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평등하게 이주민들이나 세계인들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D 2018.1.31)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연대를 함으로써 진정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번 맺은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이주민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연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개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의 진정성이라 함은 진실을 말하는 주체가 자신이 말한 바를 동시에 체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주체가 진실된 바를 체화하는 것이다. 테일러(2001)는 진실을 주체화하는 것, 진정성의 윤리로 주체화를 거쳐서 자기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정성의 윤리’를 복원시키려고 했다. 자기의 진정성을 회복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에게도 사회에게도 의미 있는 삶의 지평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테일러는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의 요점을 잃어버리는 것”(테일러, 2001: 45)이라며 인생에서 진실한 태도를 중요시 여겼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과 진정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타자지향적인 주체 개인과 역사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연대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타자와의 연대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강영안, 1990).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호소하는 타자로부터의 욕구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욕구를 뒤로 하고 타자로 향하게 하는(김성애, 2006) 인간의 윤리성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다양하게 연대활동을 하며 타자성을 실천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타자와 연대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 문화의 공존을 통한 연대가 아니라, 윤리성과 타자에 대한 절대적 책임의식을 기초로 한 소통으로서의 연대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소통으로서의 타자와의 연대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이해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기관에서 실천되고 있는 타자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회퍼는 교회론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부각시켰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더라도, 이주민을 대신하여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회퍼에게 교회란 서로 같이 있고, 서로를 위해 행동하는 것인데, 연구참여자들도 이주민과 함께 있고, 이주민을 위해 법적인 투쟁과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으로써 타자성을 내포한 진정성이 실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진정성은 자기 안에 담겨 있는 본원적인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일관되며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현되었다.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오늘날, 크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진정성 있게 타자성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본회퍼의 말과 행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이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각광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자를 개별적으로 고립되고 추상화된 원자적 존재로 보지 않고, 언제나 다른 타자들과 만나며 공동체적 연관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들은 타자와의 상호 대화가 가능한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함으로써 진정성을 발현하고 있다.

4. 소결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 봉사 기관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은 그들의 타자성이 발현된 결과물이며, 이런 타자성의 발현은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고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목회자로서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주민들을 고난을 당하는 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목회자라는 신분을 차치하고라도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자로서 이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주체성은 절대적인 윤리적 책임 의식과 실천에서 표출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자중심적인 책임 윤리의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혼자서 또는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타자를 인식하면서 상호주체성을 실천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이주민은 신앙을 전도하고 공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로, 서로가 서로를 대등한 주체로 본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진정성은 지속적인 연대로 드러난다. 한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과 관계를 그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종교 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및 기관과 연대활동을 펼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주민 봉사 기관이다. 종교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이주민과 자신의 정체성, 역할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며 개인적인 구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개혁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실

용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김범춘, 2014). 이러한 사회정치적 접근들은 인종적·문화적 차별에 분노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종교·민족적 공동체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결국 문제의 이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의무론적 당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같은 인간이므로 인간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상 도덕적인 이상일 뿐이다. 이로써는 다문화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자체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관과 세계관을 추적해야 하고, 결국 세계와 사회,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해야 한다.

또한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다문화주의는 여러 문화 간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으로 평등한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일한 공통문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어, 제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될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손은하, 2013). 이에 벨쉬(W. Welsch)는 “다문화주의가 상이한 문화들을 계속해서 독립적인 그 자체로 동질적인 형성체로서 이해함으로써, 개념적으로 여전히 단일문화라는 관습적 문화이해의 계열에 놓여있으며, 융합되지 못한 다양한 단일문화들의 병존을 의미하게 된다”고 한다(최성환, 2009).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동일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에 근거한 다문화사회의 윤리이다. 다시 말해 타자를 통해 나를 인식하고, 상호문화이해에 입각하여 서로 이해하며 공존을 도모하는, 타인지향적이며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사회적 약자인 타자와의 공존과 소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인간의 주체성과 정체성 그리고 진정성이 지향하고 있는 타자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레비나스와 본회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타자에 대한 책임윤리가 바로 상호문화이해를 지향하는 윤리관이자 동시에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다.

이러한 타자성의 윤리는 이주민 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타자적 윤리를 갖춘 사람은 타자로서의 다문화 이주민들을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의 어려움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상호주체로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형성된 타자성과 기관에서 실천되는 타자성의 발현 양식을 들여다보면서 각자의 실존적 자리에서 적용하며 개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성을 실천하는 다문화사회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점 변화와 실천이 병행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인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개신교 성직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타자성의 형성 과정과 타자성이 발현되는 실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재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주민 관련 기관 재직자는 좁게는 연구참여자와 유사성이 높은 개신교 성직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같은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I 장에서 타자성 형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혔고, 연구자의 연구동기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II 장에서는 타자성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레비나스와 본회퍼를 통해 전개하였다. 레비나스와 본회퍼는 공통적으로 타자중심의 철학과 윤리를 주창하였는데, 타자를 위한 주체 되기와 방법론(대화와 대리) 그리고 윤리적 책임 의식에 대한 관점에서 동일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III 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기를 어린시기부터 청소년시기, 대학 청년 시기, 이주민 기관 재직 초기와 현재로 분류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장래희망, 학창시절 좋아했던 과목이나 영향을 미친 교수 또는 목회자, 활동한 단체나 동아리, 기억에 남는 대학 생활의 에피소드 등 연구참여자의 타자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사건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주민 봉사 기관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활동의 모델이나 계획,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람, 보람되거나 후회스러운 일, 현재 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생애를 살아오며 형성된 타자성이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

고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IV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출생연도, 태어나서 자란 지역, 가정 환경, 학력과 배움의 경험 등이 서로 다르고,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들여다보면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목회자(개신교 목사와 성공회 신부)인데, 목회자가 된 동기는 각각 상이하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는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시골에서 교회를 7개나 개척한 전도사였던 외할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어렸을 때의 경험이 연구참여자 A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렸을 때 특별한 신앙체험을 하였다.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마비된 적이 있었다. 그 때 외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어서 나은 경험이 있다. 그러한 신앙 경험을 거친 후에 초등학교부터 광주로 나가서 지냈는데, 연구참여자 A는 전교에서 1, 2등을 할 만큼 성적이 우수했다. 어릴 때의 꿈은 군인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창시절독서를 통하여 슈바이처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 슈바이처 처럼 살지 못한 것이 콤플렉스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성, 예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도 생겼는데, 이러한 콤플렉스가 연구참여자 A의 타자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71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당시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을 보내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생기고 학생운동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연구참여자가 4학년 1학기 때에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났고,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후에 1980년에 복학했다. 당시 민주화운동과 학내 시위 최전선에 섰던 연구참여자 A에게 현상금이 걸렸는데, 수배를 피해서 외삼촌네 교회와 사택에서 머물게 되었다. 또한 감옥에서 성경책과 본회퍼의 책을 읽으면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1981년에 출옥 후에 대전신학교에 입학하여, 민중신학 책을 읽고, 성문밖교회 탐방을 거쳐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훈련받

고 목사가 되었다. 조지송 목사의 지도를 받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목회와 선교를 구상하게 되었다. 공장훈련 후에 1984년 9월에 빈들교회를 창립했고, 198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B는 어렸을 때부터 이웃끼리 부대끼며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서울 달동네에서 태어나, 한지붕 아래 스무가구가 함께 모여 생활했다. 스무가구가 우물과 화장실을 함께 공유하며 살았는데, 좁거나 답답하게 느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정겹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1980년에 경북대 철학과 입학 후 청년 시기에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꿈 꾸었다. 26세가 되던 해, 대학 4학년 2학기 때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기존교회는 옥죄는 느낌을 받았는데, 교회 목사님들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특별한 신앙 경험을 하였다. 미지근한 물이 매우 뜨겁게 느껴지면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내려오는 듯 하였다. 이후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신학교를 가라고 추천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독서를 좋아해서 독서토론 동아리도 만들고, 신학교에서 토착 신학을 접하고, 농어촌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동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199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C도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꾸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자수성가하라는 부모님의 권유대로 덕수상고를 졸업했는데, 상업 쪽으로 진학하지 않았고, 재수를 하였다. 사춘기 때에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신앙심이 협소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목회자를 이상으로 생각했고, 목회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러다가 당시에 아세아연합신학대에 교수님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학했다. 연구참여자 C는 개신교 신학대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원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학부와 같은 교단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지만, 연구참여자 C가 성공회로 바꾼 이유가 있었다. 어느날 개신교 교회의 사모

님이 아는 형에게 성미 향아리에 있는 쌀을 집으로 옮겨달라고 시켰는데, 그 형은 집에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황이었다. 그런 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연구참여자 C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자신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C가 다닌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는 보수적인 학풍 때문에 민중신학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지 못했고,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거대한 교단보다는 작은 교단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성공회 교단을 선택하여 성공회 사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C가 성공회 사제가 된 데에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영향이 있었고, 본회퍼와 문익환 목사의 영향도 컸다.

연구참여자 D는 연구참여자 A, B와 같이 어린시기에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시골 산골마을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며 지냈는데, 또래에 비해서 신체 발육이 빠른 대신 정신 발육은 늦은 편이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였다. 1978년에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입학했다. 당시에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특히 연구참여자 D는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데모를 한다는 생각에 적극 참여했다. 데모하면서 매일 술을 마셨고, 1979년 10.26 사태를 기점으로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D는 어려운 과정에서 몸이 아팠고 깨어나면 죽으려고도 해서, 가족들이 살리려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였다. 어느날 밤을 지새우고 새벽까지 함석헌의 책을 읽다가 종소리 듣고 따라 갔더니 교회였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쓰러졌는데,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해 졌다. 교회 안에서 아픈 몸이 낫는 신앙 경험을 한 것이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했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에 실망해서 낙심하던 때에, 중매가 들어왔다. 연구참여자 D의 큰누나가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준 덕분에 결혼을 했고, 연애하던 중에 신학교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참여자 D는 신학교에 와서 역사와 교회사를 새롭게 공부했고,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결정해야할 시기에 정치를 포기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렀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현대신학 연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현대신학과 민중신학 공부했다. 민중신학을 학문으로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민중교회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민중목회 훈련 18기 수료한 후에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민중 목회를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목회자가 된 동기는 서로 다르다. 다른 꿈을 꾸다가 영향력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거나, 청소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꿈꾸어 온 경우도 있고, 민중신학을 접하면서부터 고난받는 타자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연구참여자도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혹은 목회자가 된 이후에 가까운 지인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려는 생각을 제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애사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이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과 타자지향적 책임윤리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사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그 이후로도 생애사를 관통하여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 개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지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로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말한다. 이 가치관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행동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일은 개인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정호범, 2013: 122).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여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어린시기와 청소년시기의 경험을 사회화의 측면으로 살펴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자아정체성은 1차적 사회화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기에 학업활동,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적·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름의 타자성이 형성되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 이주민들을 보면서, 즉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타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대신하는 삶에 대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체성을 타자와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시대적,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본회퍼의 신학사상과 삶에 감명과 도전을 받으면서 타자성을 함양했다.

IV장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타자성 형성의 측면을 살펴보았고, V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타자성이 이주민 봉사 기관 재직 현장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종교적인 경험으로 타자에 관한 어떤 소명의식(계시 사건)을 느꼈으며 이 사건이 다문화인과의 접촉 경험과 관계가 있는지, 기억에 남는 타자(이주민)의 얼굴이나 인상적이었던 타자(이주민)와의 사건 또는 대화는 무엇인지, 이주민 선교에서 지향하는 타자적 책임 윤리는 무엇인지, 타자를 위한 이주민 봉사 기관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준이 필요한데, 마침 연구참여자 A와의 두 번째 인터뷰 중에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분석의 범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A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주체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냐는 정체성으로, 내가 하는 일에 위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진정성으로 범주화하여 정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생애사를 거쳐 형성된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이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의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고,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과 타자를 동일시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의식이 있으며, 사회적인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고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의 주체성은 절대적인 책임 윤리 의식과 실천에서 표출되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타자중심적인 책임 윤리의 맥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자를 동역자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상호주체성을 실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구참여자들의 진정성은 지속적인 연대로 드러났다. 한번 만난 이주

민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주민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적인 구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개혁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은 각각 상이한 배경과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형성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주민 봉사 기관 현장에서 타자 지향적인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진정성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성영(2016)은 이주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인식에 일부 동의하던 중 이미 이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타자성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례를 생애사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목회자의 생애를 통해서 다문화사회의 타자성 실천을 위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나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의 자유가 더욱 강화되면, 실제로는 이런 선언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사회가 될 수 있다. 다른 민족,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와 같은 타자는 나와 거리가 먼 낯선 타자로서 위협적인 존재이거나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전적인 외부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 타자의 고통과 가난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보다 그것을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뒤따르는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기도 한다(김범춘, 2014).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정의를 다문화 타자를 배제하게 되고, 다문화 타자의 등장과 공존은 나에게 불필요한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문제로 여겨진

다. 따라서 나와 다문화 타자와의 소통은 윤리나 사회정의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실천은 실제로 이주민들을 만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생애사적인 경험이 공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철학적, 이론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초적인 버팀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한병철(2012)은 지난 세기를 번역학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지난 세기는 번역학적 시대였다. 즉 안과 밖, 친구와 적, 나와 남 사이의 뚜렷한 경계선이 그려진 시대였던 것이다. ... 이러한 번역학적 장치의 본질 속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다. 낯선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방어의 대상은 타자성 자체이다.” (한병철, 2012: 12)

낯선 것은 무조건 막고 보자는 이른바 ‘번역학의 시대’에서 번역 방어의 대상은 타자 그 자체다. 아무런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타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타자조차 이질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번역학적 장치가 다문화 이주민 같은 우리 안의 타자를 실재하는 위험요소로 간주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는 동일성의 틀에 기초한 번역학적 장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으며, 타자중심의 타자성이라는 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가 주장한대로 “이웃과 제삼자 앞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비교해야 하고, 무게를 달아야 하며, 무게를 헤아려야 한다. 나는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정의로워야 한다”(레비나스, 2013: 277).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근접한 이웃인 타자와 제삼자 모두를 무한한 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레비나스, 2010). 레비나스는 어떤 새로운 윤리나 체계적인 철학을 제시하거나 윤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레비나스는 어떤 것이 윤리적이라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

라 타자를 포함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까지 선한 결과가 퍼져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레비나스는 자신의 작업을 “새로운 길을 통해서 존재를 벗어나는 일”(레비나스, 2012: 72)이라고 보았다. 결국 레비나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인식적 철학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윤리적 철학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때 사랑의 지혜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빵, 자기 빵 한입을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레비나스, 2010: 143)이며, 연구참여자 C가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다.

타자는 주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Levinas, 1979)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내 밥그릇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것, 헐벗은 타자에게 나만의 안락한 거주공간을 내어주는 것, 나의 지갑을 여는 것이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다(김연숙, 2001). 이는 책임윤리적인 주체이며, 연구참여자들의 타자성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가 누구이든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관용하며 존중하는 것이 레비나스가 초월적 존재 또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본회퍼 또한 타자를 위한 존재를 역설했다. 나치 독재에 저항한 교회의 정치적 투쟁과 신학적인 반성은 타자를 위한 신학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정치신학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여 약자를 편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적인 삶을 추구한 것이다(강성영, 2000: 347).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과제로서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진정성이다.

이러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타자지향적인,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타자성의 핵심은 타자와 나를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상호문화이해주의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것으로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체성이자 윤리 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봉사 기관에 재직하는 개신교 성직자의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타자성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이주민 관련 기관 재직자들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개신교 성직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든 목회자로서의 선교를 목적으로든 이주민에게 봉사할 것이라는 당위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현재의 활동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드러난 현상이 아닌 그 기저에 깔린 인식과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시사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체성은 나와 동등한 타자로서의 이주민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그들과 공존을 목표로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이다. 이러한 ‘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이주민을 위해 존재하지만 결코 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둘째,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는 상호문화이해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주민을 나와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며, 이주민을 나와 동등한 주체의 위치로 두기 위해 타자지향적인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이러한 정체성과 주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은 물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성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정체성과 타자지향적인 책임 윤리를 실천하는 ‘나’의 주체성에 진정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앞으로 다문화 이주민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모색해야 할 주체성과 진정성에 대해 윤리적 모델을 구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모델은 작게는 이주민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에게, 넓게는 모든 이주민 관련 기관 근무자에게

필요한 윤리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 한국 체류 외국인들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타자와의 관계설정과 이주민 봉사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관련 봉사기관 재직자의 자기정체성, 상호주체성, 진정성을 정립하는데 의미있는 이해와 실천 과제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연구자적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을 이미 알고 지내고 있었다. 어디서 공부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으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사연들이 너무 많았다. 연구자 본인이 알고 있던 것은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전반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고, 단편적이었으며 피상적이었다. 생애사 연구를 위해 심층면담을 2회씩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삶과 활동, 생각과 계획 등을 더욱 새롭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공동의 비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은 생애사 연구가 연구자에게 준 큰 선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생애사 연구는 타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생애사가 있는 법이다. 연구참여자 A가 모든 사람들의 실존적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와 생애사를 주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타자를 대할 때 그의 생애사에 대한 겸허한 존중심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의 통합이다. 생애사 연구를 통해 타자성 실천 요소의 양식을 3분류로 제시했는데, 이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정체성으로 절대적인 책임윤리를 주체적으로 지니면서,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윤리적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국민적 정체성 약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 타자성을 습득하고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례들이 더욱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러 생애사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정체성, 주체성, 진정성이 통합된 생애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서로의 사례와 생애가 만나고 어울려지면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시혜적이거나 동화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저히 타자에서 출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주체가 되려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일회적이거나 관념적인 언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진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셋째, 타자성 철학과 윤리의 중요성이다. 우리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윤리적인 과제에 있어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성 개념과 태도는 매우 적합하며 시대 요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 관련 기관 재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타자성의 가치는 유효하다. 타자성과 윤리성은 분리 될 수 없다. 레비나스와 본회퍼,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에게 타자성과 윤리성은 동시적인 것이다. 타자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윤리적인 행동을 요청하며, 윤리적인 책임을 실현할 때에도 타자성이 그 목적과 방법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상이한 문화를 가진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이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다. 연구를 통해 가장 핵심적으로 발견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할 영역은 타자 되기의 형성과 실천이다. 이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문화 이주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때에 어떤 철학적 기초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법적인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정비 이전에, 다문화 사회 철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그 키워드는 타자성이어야 한다. 다문화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타

자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 추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이주민이 300만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외국인 유치 노력을 더 강화하고 이주민 정책 등을 총괄하는 이민청이 신설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사회가 다문화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적인 원리에 타자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영(2000). 한국교회가 읽는 본회퍼의 신학. 신학연구 제41집, 328-347.
- 강성영(2006). 생명.문화.윤리: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주제탐구. 한신대학교 출판부.
- 강성영(2015). 본회퍼의 교회론: 십자가 아래 있는 타자를 위한 교회. 기독교사상, 5월호, 10-17.
- 강연안(2005). 타인의 얼굴 :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 강영미(201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생애사 : 로젠탈의 내러티브 분석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115-136.
- 고영란, 이영(2013). 우린 잘 있어요, 마석. 클.
- 고재길(2010).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 장신논단, 37, 117-151.
- 고재길(2012). 본회퍼의 윤리학에 나타난 생명의 개념과 선의 문제. 선교와 신학, 제 29집. 251-282.
- 김범춘(2014). 다문화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57집, 161-191.
- 김병권(2003). 본회퍼의 사회적 실천과 교회 이해. 복음과 실천, 32(1), 183-210.
- 김병권(2013). Bonhoeffer의 형성으로서의 윤리와 기독교윤리학 방법론. 복음과 실천, 52(1), 165-192.
- 김성영·오영훈(2013).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종교연구, 72, 207-235.
- 김성영(2016).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3), 277-299.
- 김성애(2006). 레비나스의 윤리관에서 본 특수교사의 윤리성 제고. 이론과 실천 7(1), 177-196.
- 김성호(2013).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론적 윤리. 신학과선교, 43호, 331-361.
- 김승환(2005). 한국문학교육의 타자성 인식 방법론. 문학교육학, 17집, 129-157.
- 김연숙(2000). 레비나스 타자윤리에서 윤리적 소통에 관한 연구: 얼굴.만남.대화. 국민윤리연구, 44호, 83-99.
- 김연숙(2001). 레비나스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 김영순 외(2014).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한국학술정보.
- 김영순·오영훈 외(2016). 처음 만나는 다문화교육. 북코리아.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순(2018).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다양성에서 이타성으로. 이화다문화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7-39.
- 김현수(2009). 타자 대면의 방법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1), 275-303.

- 김혜란·최은영(2013).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대장간.
- 김효정·서동훈(2017). 이주노동자 소설에 나타난 타자 윤리 연구. 인문학논총, 45, 81-102.
- 김홍중(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43권 5호, 1-29.
- 디트리히 본회퍼, 유석성 옮김(2010a). 그리스도론. 대한기독교서회.
- 디트리히 본회퍼, 유석성·이신건 옮김(2010b). 성도의 교제. 대한기독교서회.
- 디트리히 본회퍼, 고범서 옮김(2000). 옥중서신. 대한기독교서회.
- 디트리히 본회퍼, 손규태 옮김(1974). 기독교윤리. 대한기독교서회.
- 디트리히 본회퍼, 손규태 외 옮김(2010c). 윤리학. 대한기독교서회.
- 디트리히 본회퍼, 허혁 옮김(2004). 나를 따르라. 대한기독교서회.
- 문성원(2007). 해체와 윤리-틀뒤스와 레비나스 철학의 사회철학적 함의. 시대와 철학, 18권 3호, 35-64.
- 박남숙(200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권 1호, 한국심리학회.
- 박신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40-53.
- 박인철(2010). 상호문화성과 윤리. 철학, 103, 129-157.
- 박재순(1993).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한울.
- 박종균(2008).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6집, 239-265.
- 백훈승(2013). 칸트와 독일관념론의 자아의식 이론. 서광사.
- 서광필,이철원,김민정(2012). 목회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 분석: 생애사적 관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Vol.36 No.2, 66-76.
- 서동욱(2000).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 서용순(2014).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반(反)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정치적 주체성. 사회와 철학, (28), 323-346.
- 손은하(2013).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다문화와 평화, 7권 1호. 33-65.
- 송재룡(2011). 한국사회의 '자기진정성' 문화와 그 비극. 사회이론, 가을겨울호, 125-150.
- 양승준(2016). 미래시대 참된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 원리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1, 63-91.
- 양영자(2013).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 :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5(3), 79-106.
- 양영자(2015). 재독 한인 광산노동자의 생애 이야기 재구성 : 내러티브 정체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9), 281-329.
- 양영자(2016). 재독 한인여성의 생애체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노동이주여성되기.

한국사회복지학, Vol.68, No.1, 141-168.

- 앤서니 기든스, 이윤희·이현희 옮김(1991). 포스트모더니티. 민영사.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 엠마누엘 레비나스, 양명수 옮김(2000).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 엠마누엘 레비나스, 서동욱 옮김(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 엠마누엘 레비나스, 김연숙 외 옮김(2010). 존재와 다르게 : 본질의 저편. 인간사랑.
- 엠마누엘 레비나스, 문성원 외 옮김(2013).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그린비.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세일, 박태진(2016). 대학생의 연애와 행복. 사회이론, (50), 207-248.
- 우정길(2009). 타자의 타자성과 교육학 지식: 레비나스의 타자성 철학에 대한 교육학적 소고. 교육철학, 45집, 151-174.
- 유강식(2009). 타자성에 대한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대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대선(2009).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 윤대선(2015).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갈등문제에 대한 철학적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78호, 71-92.
- 이동춘(2015).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반성. 선교와 신학, 37, 233-261.
- 이병준, 석영미(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의 직업생애사 연구. 다문화콘텐츠 연구, 18, 329-362.
- 이상철(2015).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타자의 윤리. 신학연구, 66, 59-87.
- 이안나(2009). 레비나스 타자윤리와 도덕성.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정인(2006). 자아정체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9권 1호, 한국진로교육학회.
- 이종일(2008). 타자인식 변화에 따른 다문화 준거의 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5권 2호, 1-21.
- 이화도(2011a). 상호문화성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비교교육연구, 21권 5호, 171-193.
- 이화도(2011b).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육사상연구, 25(2), 179-200.
- 이희영(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45.
- 장훈태(2011). 선교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 도서출판 대서.
- 장한업(2009).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32(2), 105-121.

- 전보람(2017).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복지실천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옥(2010). 다문화사회의 학교 내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다문화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Social Paradiam Studies*, 25(2), 41-76.
- 정경희(2016). 대안학교장의 실천적 지식 형성과정과 표출양식에 관한 생애사.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근(2007). '사이'의 세기와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1), 257-272.
- 정영근(2011). 독일 초등학교의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2), 55-77.
- 정창호(2011). 독일의 상호문화교육과 타자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1), 75-102.
- 조상식(2002). 현상학과 교육학. 원미사.
- 최규련(2010). 가족구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문제와 친구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7), 33-48.
- 최성환(2009).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다문화의 이해, 경진.
- 최성환(2009). 다문화주의와 타자의 문제. 다문화콘텐츠연구, (1), 131-154.
- 최재식(2017).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이해. 시민인문학 제32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72-106.
- 콜린 데이비스, 김성호 옮김(2001). 엠마누엘 레비나스: 타자를 향한 욕망. 다산글방.
- 하병학(2015). 감정(Pathos)의 수사학. 철학탐구, 37, 63-89.
- 한건수(2004). 타자 만들기 :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 한병철(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 황성현·이강훈(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Anthony Giddens, 권기돈 옮김(1997). *Modernity and Self-Identity*.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Charles Taylor, 송영배 옮김(2001). 불안한 현대 사회. 이학사.
- Dietrich Bonhoeffer(1988). *Werke*. München.
- Dietrich Bonhoeffer(1963). *The Communion of Saints*. Harper & Row
- Dietrich Bonhoeffer(1992). *Ethik*. hg. v. E. Bethge/ I. Todt/ C. Green, DBW 6. Gutersloh: Chr. Kaiser Verlag.
- Emmanuel Levinas(1969). *Totality and Infinity*. Duquesne University Press.
- Emmanuel Levinas(1985). *Ethics and Infinity*. Duquesne University Press.

- Guignon, Chales(2000). Authenticity and Integrity: A Heideggerian Perspective. M. E. Miller and P.Yougn-Eisendrath(The Psychology of Mature Spirituality: Integrity, Wisdom, Transcendence (New York: Brummer-Goutledge, 62-74.
- Merriam, S.B.(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ieke, W.(2008). *Interkulturelle Erziehung und Bildung*. Wiesbaden: VS Verlag.
- Rogers, Carl(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Houghton Mifflin.
- Taylor, Charles(1992).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rüger, H. H. & Marotzki, W. (Hg.)(1999).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Biographieforschung*. Opladen.

연구참여자 A의 이주민 봉사기관 홈페이지 <http://www.seomna.or.k>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들소리신문(2009). “선교하다 실명한 유00 목사”, 2009.06.10.

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2

연합뉴스(2016). “아직까지도…外노동자·이주민 곳곳서 ‘차별’ 한숨”, 2016.3.21.

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9/0200000000AKR20160319055500004.HTML

ABSTRACT

A Life History Study of the Protestant Clergy in the Immigrant Service Organization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Bae, Kyung 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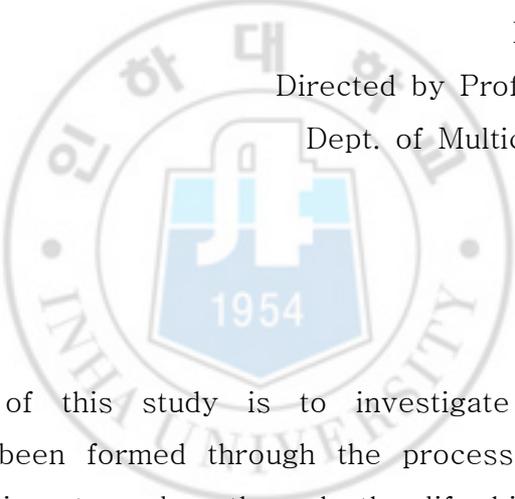
Ph.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otherness have been 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and ministry as a migrant worker through the life history of religion work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religious workers who are working in immigrant-related organization have learned and ministered as immigrant ministers, and what kind of otherness they formed, and how the otherness appeared on the field through their life history.

Although Korea has already enter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ethical challenges are being raised about how to deal with those who exist as oth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such as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In particular,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 workers are severe due to lack of awareness and exclusion of multicultural society. For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cases of multicultural immigrant workers who have good relations with immigrant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practitioners and managers of multicultural migrant support center with systematic support system nationwide.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at kind of occasion they have come to work in this field, and what attitude and responsible ethics they are working in the field.

This study focused on the workers of Protestant organizations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cases. By studying their life histories, I tried to refine the awareness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how to practice love.

This study also sought to find a desirable ethical model to show how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multicultural people who came deep within us.

Before life history interview, I examined the theological theories of Levinas who can be said to be a representative of other ethics and Bonhoeffer who emphasized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terms of otherness. This is to interpret the impact that otherness has on research participants and how this is actually reflected.

Levinas' ethics suggests a way to spread good results to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oneself, as well as multicultural hats accepting the nearest neighbor and other third parties as infinite hats, Bonhoeffer also stresses the fulfillment of ethical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God while emphasizing the existence of

others.

Bonhoeffer's claim to bring out an ethical subject that is responsible and hospitable to others and the otherness of Levinas can be a paradigm to resolv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multicultural society, so these claims support the other ethical responsibility. It is not the subject who applies the sincerity to the other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but gives priority to the others who are prior to self-identity and to be a subject for others.

In addition, the other paradigm of Bonhoeffer and Levinas that aims to be a free being for others has the ethical implic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this implication, I conducted research on the life history of religious workers who are working in immigrant-related organization.

The research method is to conduct and analyze qualitative case study through the narrative and life History interviews twice a month for five research participants. In life history research, I deeply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e of person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research participants. I will use the method of in-depth interview because we need not only research participants, but also their social and cultural and natural environment data. It took about 2-3 hours at one time. The question was asked about the contents of life history and other ethics by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of otherness of the participants, I described and interpreted their life stories by life cycle. The study participants, who differed in their birth year, birthplace, home environment, education and learning experience, lived different lives in different places. However, I could find a similar point by looking

deeply into the lives of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the story of life history,

Participants found in the life history of the participants can be summarized in six categories. The primary personality and self-ident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primary socialization. They formed other forms of intellectual, social, and emotional aspects through various activities during college years. They looked at the faces of the migrants through life-history experiences, looked back at themselves, and identified themselves with the other. As a religious experience of a life that accepts others and takes the place of others, it recognizes subjectivity as a relationship with others. They were influenced by historical and historical events and understood himself and others in it. they were inspired and challenged by Bonhoeffer 's theological thought and life, and cultivated his otherness.

After examining the process of otherness formation, I categorized it as identity, subjectivity and authenticity in order to examine how the otherness is expressed in the field of migrant workers.

Participants have self-identity as being for others. They equate themselves with others and have self-consciousness of a representative of God with the suffering people, expressing their faith and thinking of God from social ethics. Second, the subjectiv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expressed in absolute responsibility ethics and practice. Respect diversity, and carries out various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other-centered accountability ethics, in doing such activities, the other person is recognized as a co-worker or partner and manifests mutual subjectivity.

Third, the authentic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has been shown to be a lasting solidarity. They maintain a lasting relationship with

migrants once we meet and they are engaged not only in migrant-related ministries but also in various solidarity activities. It is not just doing personal relief, but is also working on system improvement and refor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otherness was formed by various experiences in different backgrounds and environments, but In the field of migrant-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it has been commonly manifested in the field of migrant-related organizations as being other-oriented identity, subjectivity, and authenticity.

Keywords: Otherness, Bonhoeffer, Levinas, Multiculturalism,
Ethical responsibility, Life history research

